

역주 몽골 황금사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 책의 한국어판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Handwritten text in Mongolian script, likely a list or index of names and titles.

역주 몽골 황금사

저자 미상
김장구 역주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Handwritten text in Mongolian script at the bottom of the page, mirroring the top section.

머리말

동북아역사재단 동국대학교 도서관에서 『황금사(黃金史)』라는¹ 책을 처음 본 것은 1993년 봄이었을 것으로 기억한다. 몽골 역사에 흥미를 가지고 도서관 장서를 훑어보던 중 제본을 새로 한, 책등에 한문으로 『몽문 몽고사기(蒙文 蒙古史記)』라고 적힌 책을 보게 되었다. 그런데, 막상 책을 펴보니 모르는 글자로 인쇄되어 있었다. 원래 책의 속표지에 적힌 제목은 『蒙文 蒙古史記 MONGOL CHRONICLE ČINGG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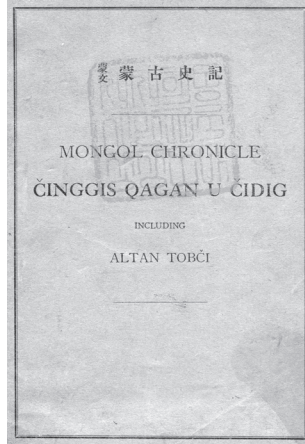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蒙文 蒙古史記』(『黃金史』 포함), 텀게투 本. 도서관용 제본 표지

¹ *Qad-un ündüsün quriyangyui altan tobči* (칸들의 근원을 모은 黃金[家門]의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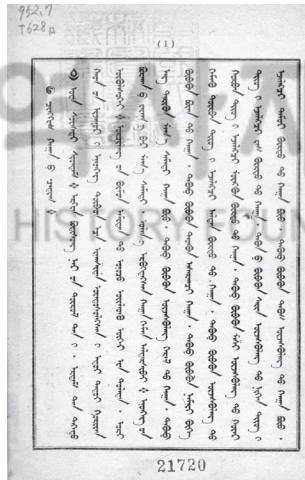
QAGAN U ČIDIG INCLUDING *ALTAN TOBČI*』였다. 판권이 표시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언제 어디서 누가 발행했는지도 몰랐다.

나중에 김방한(金芳漢) 선생님의 「황금사 역주」 논문들과 크루거(John R. Krueger)의 「Mongyol bičig-ün qoriy-a」(蒙文書社) 관련 논문을 읽고 나서야, 템게투(Temgetü 特木格圖, 중국 이름 汪睿昌)라는² 내몽골 하르친[喀喇沁] 사람이 북경에 세웠던 ‘몽문서사’에서 출판했던, 1925년 초 판본을 1940년에 다시 영인 출판한 책[일명 ‘템게투 본(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말로 처음 완역하는 이 역주서의 저본은, 1997년 몽골에서는 처음으로 고비알타이 아이막(道)에서 발견된 ‘신발견 『황금사』’다. 유학중이던 2002년 8월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제8차 국제몽골학자 대회에 맞춰 발간된 초이마(Шаравы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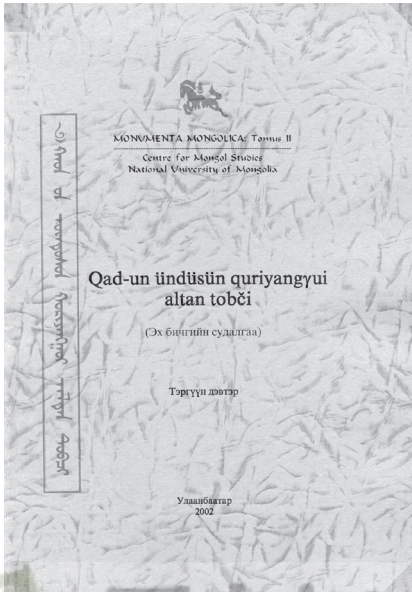


『蒙文 蒙古史記』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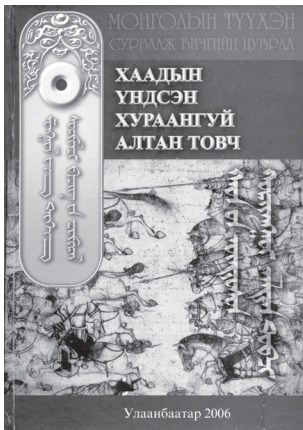
『蒙文 蒙古史記』 첫장

² 札奇斯欽(Jagchid Sečen) 역주(1979), 『蒙古黃金史譯註』, 臺北: 聯經出版事業公司, 6쪽; 김방한(1999), 『몽골어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9쪽에는 ‘王瀋昌’으로 잘못 표기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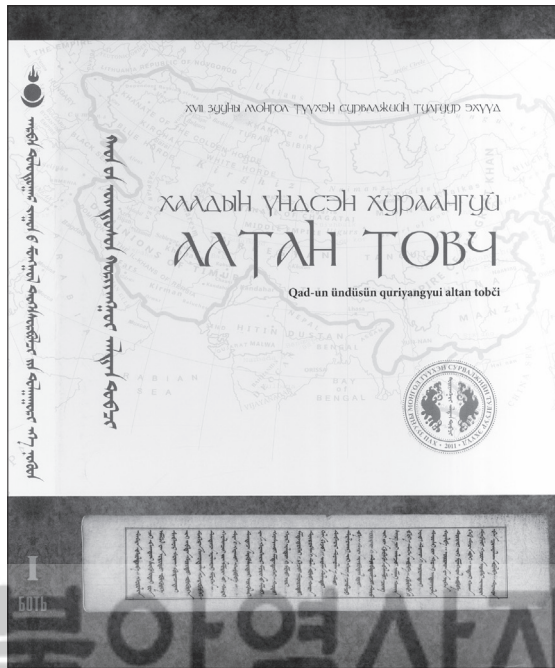
신발견 『황금사 *Altan tobči*』 연구서
(초이마, 2002)

Чойма) 선생의 연구서를 구입했으나, 어떤 가치가 있는지 어떤 판본인지도 모르고 그냥 새로 발견된 『황금사』 정도로만 이해하고 구입해 두었다.



신발견 『황금사』 연구서(초이마, 2006)

이후 초이마 선생은 2006년 끼릴문 현대몽골어로 다시 간행했으며, 2011년에는 다섯 권으로 된 ‘*Arban doluduyar jayun-u mongyol teüken surbulji-yin eke-nügüd* (17세기 몽골 역사자로 원전들)’을 간행하면서 제1권으로 『황금사』를 다시 간행하면서 해제와 현대몽골어 번역, 라틴 전사와 인명과 지명 및 전체 어휘 색인, 그리고 원문 사진 영인에 이르기까지



신발견 「황금사 Altan tobci」 연구서 (초이마, 2011)

지 완벽에 가까운 연구서를 출간하였다. 필자의 이 한국어 역주서는 바로 2011년 연구서 책 후반에 있는 컬러 사진본 사본을 저본으로 하여 번역하고, 초이마 선생의 설명을 중심으로 주석을 단 것이다. 초이마 선생님은 역주자가 몽골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부터 여러 차례 번역을 권유했으나, 역주자는 게으른 품성에다가 능력이 없다는 핑계로 차일 피일 미루다가 10여 년이 흘렀다.

다행인지, 동북아역사재단 ‘한·몽 역사가협의회’에서 17세기 몽문 연대기 번역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원해줌에 따라 초역을 시작하였던 것이 2012년이였다. 그러나 초역을 하면서 수없이 후회를 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몽골인의 정신문화와 그 언어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공부가 부족하다는 것을 실감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미 엮질러진 물이었기 때문에, 한 자 한 자, 한 문장 한 문장씩 읽고 번역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템게투 본’을 저본으로 번역한 크루저의 영역본과 김방한 선생님의 『황금사』 역주 논문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한편으로는 이 책을 역주하면서 몽골제국사에 대한 많은 관심과 연구에 대비되는, 그 이후 몽골의 역사에 대한 오해와 무관심에 마음이 쓰였던 것도 사실이다.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지만, 상대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모든 시기의 역사가 현재 몽골을 만든 중요한 구성요소이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몽골문 역사 자료와 불교 경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자료 발굴을 포함해 역주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런 작업과 연구를 진행하면서 여전히 부족한 몽골어 이해와 국어 실력이 걸림돌이지만,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속담을 위안으로 삼으면서 단지 우리말로 번역하는 데 초점을 두기로 하였다.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만, 독자 여러분의 넓고 따뜻한 이해를 구하면서, 앞으로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2014년 8월 20일

이간재(夷間齋)에서 역주자 삼가 쓰다

사본의 원(原) 소장자 바트멘드(Р. Батмэнд)

나, 바트멘드(Batmend)의 아버지는 렌첸(Rentsen), 그의 아버지는 남질(Namjil), 그의 아버지는 붐부리이(Bömbörii) 타이지이며, 그의 아버지는 ‘송콘(Shonkhon)’이라고 불렸던 다시제벡 [산지] 타이지(Dashzebeg Sanji Taiji)다. 나 자신은 그 이상 선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붐부리이 타이지는 아버지 다시제벡이 데리고 있던 다섯 명의 노복(qamjilaya)을 부릴 수 있는 타이지라는 관직을 물려받은 사람이었다. 붐부리이 타이지에게는 자나 타이지(Zana Taiji)라는 형과 밤필 타이지(Vampil Taiji)라는 동생이 있었다고 한다. 자나 타이지의 아들 몽흐 타이지(Mönkh Taiji)는 자삭트 칸 아이막(Zasagt khan aimag)의 한 호쇼(qoshuu)에서 높은 직책을 맡고 있었으며, 글과 문서 작성 등에 뛰어난 재능을 지니고 있었다고 한다.

우리 집안과 사돈(sadan) 관계인 푸레브(Pürev)라는 분은 고비-알타이 아이막(Gobi-altai aimag)의 델게르 쉘(Delger sum)과 타이시르 쉘(Tayishir sum)의 경계, 즉 옛날의 에르데네 비시렐트(Erdene bishirelt) 자삭트 칸 아이막의 한 호쇼에 살고 있었다. 델게르 쉘의 경계에 있는 호수인 타이감 노르(Tagam nuur)라는 지명에서 유래한 타이감 다창(Taigam datsan)이 있었던 자리에는 그 지방 사람들이 물건을 쌓아두는 창고가 있었는데, 내가 3학년이 다니고 있던 그해 겨울에 그(푸레브)가 우리 집에 들러 나를 데리고 그 창고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아주 많은 불상과 제기들, 책과 경전들이 쌓여 있었는데, 특히 몽골 비칙으로 쓰였으며 1925년도에 발행된 《우넨(Ünen, 眞理報)》 신문이 내게는 흥미롭게 생각되었다. 이것저것을 흥미롭게 보다가 우리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푸레브 아저씨는 아버지·어머니와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로 꽃을 피우다가, 나에게 대해 “책을 꽤 좋아하더군요!”라며 칭찬해주었던 것이 지금도 생각난다.

그런 후에 몇 년이 지나 1959~1960년도에 아이막(도청) 소재지에 있는 중학교 5학년(우리의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일 때, “겨울방학에 집에 들러라!”는 소식을 전해들었다. 나는 아주 기뻐하며 우편 배달하는 차를 타고, 쉘 소재지(군청, sumyn töv)에서는 낙타를 타고 집에 도착했는데, 예의 푸레브 아저씨가 우리 집에 와 계셨다. 그분의 몸은 병환이 꽤 깊어 보였으며 내가 집에 도착한 그 다음날 나를 데리고 쉘 소재지로 가서 창고 안에 있던 책과 경전 등을 보여주며, 잘 보관하라고 부탁하였다. 지금 그때 모습이 잘 생각나지 않는 것을 보면 그 당시에는 별다른 흥미를 갖지 않았던 것 같다. 푸레브 아저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다. 그런 이후에 나는 그 책과 경전에 큰 관심을 두지 않

있고, 아버지께서 잘 보관하고 계셨다.

1962년 겨울, 국가 우수 목민훈장을 받으셨던 우리 외할아버지 산닥긴 잠간(Sandagiin Jamgan)의 병환이 위중하니 “어서 오라!”는 소식을 들었지만, 겨울방학 중에는 학생들을 외출시키지 않아 발이 묶여 있었다. 그 당시 우리 학교에 역사 교사이신 ‘강(Gang)’이라 부르는 락차(Ragchaa)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역사교실을 열기 위해 노력하셨고, 우리들도 그분을 도와드리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락차 선생님은 이 역사교실을 역사문화재나 유물 등으로 가득 채우고 싶다고 우리들에게 자주 말씀하시고는 했다. 그때 나는 갑자기 푸레브 아저씨의 창고에서 보았던 물건들이 생각나서, 그리고 고향 집에 가고 싶은 마음에 “제가 그런 물건들을 구해올 수 있어요! 선생님 제발 저를 집으로 가게 해주세요!”라고 말했다. 선생님께서는 내가 한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여러 차례 확인하고, 곱보(Gombo) 교장선생님께 말씀드려서 보내주었다. 내가 집에서 돌아올 때는 양털 부대로 두 자루 가득히 책과 경전, 불상과 문화재 등을 가져와서 선생님께 드렸는데, 이는 다행히도 개학 날짜에 늦어져버린 내 체면을 세워주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한참 후 우리 집안의 호롤(N. Khorol) 삼촌께서 와 계셨는데, 화가 많이 나신 얼굴로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 나에게, 다른 사람이 잘 보관하라고 부탁한 공덕 쌓는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우둔한 바보 같은 녀석이라며, 왜 그 많은 물건을 학교에 가져다주었냐며 많이 꾸중하셨다. 변명할 요량으로 이유를 말씀드리자 잠시 숨을 돌리시고는 “우리 집안에 전해 내려오는 책과 경전들이다. 네게 잘 보관하라고 (푸레브) 아저씨가 부탁하신 것 아니냐!”며 그 가운데 이러저러한 경전이 있었다는 등등을 이야기하셨다. 후에 들은 바에 따르면, 락차

선생님과 그 물건을 되돌려받는다 준다 하며 잠시 옥신각신하다가 겨우 한두 권의 경전을 되돌려받으셨다고 한다. 그런 후에 락차 선생님은 솜(sum), 넥델(negdel, 협동조합)의 기관장이 되어 학교에서 멀어졌으며, 내가 10학년을 마치고 졸업할 때도 그 역사교실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는 생각이 난다.

1983년 여름 고향에 갔다가 쇼호인 불랑(Shokhoiin bulang)의 샤르 톨고이(Shar tolgoi)라는 곳의 북쪽 비탈에서 여름을 나고 계셨던 호를 삼촌 집에 들렀는데, 어느 날 삼촌이 책과 경전을 보관하다가 꺼내서 읽곤 하던 반닫이 책장을 열어볼 기회가 있었다. 우리 삼촌은 한타이시르 오울(Khantaishir uul) 아이막에서 1925년도에 최초로 학교가 설립되었을 때 입학한 학생 중 한 명이었으며, 몽골 비칙(Mongyol bičig, 고전 몽골 문자)에 아주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였다. 이러저러한 책을 뒤져보고 있는 나를 보고는, “너는 몽골 비칙을 그저 대충대충 읽고 쓰던 그 못난 실력은 아주 잊어버렸느냐?”며 물었다. “네! 시간도 없고 이러저러해서”라는 등 변명을 하고는 지나쳐버렸다. 호를 삼촌께서 그 반닫이 책장에서 붉은색이 도는 갈색 보자기로 둘러싼 한 경전을 꺼내 가지고 오셔서 “몽골의 역사에 관련된 제일 귀중한 경전이다! 한번 읽어보아야 하지 않겠냐?”라며 내게 주셨다.

삼촌께서 돌아가시기 전 해 겨울에 도르노드(Dornod) 아이막에서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있던 아들 체렌폰착(Tserenpuntsag)에게 가서 겨울을 나고, 돌아오는 길에 우리 집에 들러서 내게 머리를 깎게 하시고, 아버지와 말씀을 나누며 며칠 묵으시다가 고향으로 돌아가셨다. 그때도 나에게 건네준 그 경전을 잘 보관하고 있는지 몇 차례나 다시 묻곤 하셨다. 그때부터 삼촌께서 부탁하신 그 붉은색이 도는 갈색 보자기에

싸인 경전(『*Altan tobči*, 黃金史』)을 보관해왔던 것이다. 아쉬운 점 하나는 누구에게서 푸레브 아저씨에게 전해져 내려왔던 것인가를 내가 모른다는 것이다.

이후에 귀중하게 보관해오던 바로 그 경전이 과연 어떤 책일까 알아보고 싶은 생각이 나서, 같은 고향 출신이며 동생뻘인 초이마(Sh. Choimaa) 교수에게 보여주었는데, 『코리양고이 알탄 톱치(*Quriyangyui altan tobči*, 黃金史略)』(=신발견 『황금사』)라고 하는 사료로써, 몽골국에서 발견된 적이 없는 원본 유일본이라고 했다. 따라서 우리 조상이신, 노복 다섯 명을 거느렸던 타이지 직책에 계셨던 분들이 그냥 그렇고 그런 책 한 권을 보관해오셨던 것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에 자랑스러운 마음도 생겼다는 사실을 감추어서 무엇하겠는가!

게다가 나는 이런 귀중한 경전을 더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여, 학자인 초이마 교수를 찾아가 보여주었고, 이에 독자 여러분의 손에 놓일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이후에도 이 귀중한 경전 사료를 잘 보관하여 대를 이어 자손들에게 물려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존경하는 초이마 교수에게, 학문의 불꽃이 더욱더 세차게 타오르기를, 그리고 몽골의 역사와 문화를 빛내는, 마치 히말라야 산맥과 같은 학문적인 업적을 이루기를 기원하는 바다.

박사(Doktor) 붐부리이 가문의
렌첸의 아들 바트멘드 쓰다



몽문연대기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동아시아의 역사 이해, 그중에서도 동북아시아의 역사 이해와 연구 경향을 살펴보면 자국 중심의 이해와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면적이고 독단적인 자국 중심의 역사 이해와 연구는 주변국과 상호인식의 불일치를 불러오고, 더 나아가 역사 충돌로 치닫고 있는 현실을 종종 발견한다. 특히 정치·군사적이나 경제·문화적으로 강대국인 경우 이러한 일방적인 역사 이해를 은연중에 상대방에게 강요하기도 한다.

넓게는 아시아, 좁게는 동아시아라는 지역에는 다양한 역사와 문화가 장기간 존속해왔다. 예를 들면, 한국·중국·일본 삼국과 베트남 등

을 제외하고서라도 티베트·만주·위구르 등 다양한 민족의 역사와 문화가 광범위하게 유지되어 왔다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독립된 국가와 민족을 이루고 있는 역사·문화 공동체인 몽골국이 있다. 몽골은 한때 세계를 지배할 정도로 강력한 힘을 발휘한 적도 있었지만, 몽골제국이 붕괴된 후에는 외부세력의 견제와 내부 분열이라는 악조건하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야만 했다.

이후 16세기 말 몽골 유목민들의 정신세계를 지탱해준 종교가 초원으로 전입되었다. 바로 티베트에서 전래된 불교였다. 물론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지만, 전체 몽골인에게 불교가 확산되면서 초원에는 수많은 사찰이 세워지고 많은 젊은이들이 승려가 되었고, 또 그래야만 했다. 몽골 고원에 불교가 새롭게 전래되고 처음으로 세워진 사원이 바로 아르호린(Khar Khorin, 옛날의 Qara qorum)에 남아 있는 ‘에르데네 조(Erdene zuu)’ 사원이다.

만주[淸]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몽골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중 하나가 티베트어와 몽골어 불경을 인쇄하여 보급함으로써 몽골인의 정치적·정신적 통합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또 다른 하나는 스스로 몽골인의 역사를 저술하는 일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몽골인들이 자신들의 조상을 티베트와 멀리 인도로 연결시키는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 이것은 역사적으로는 전혀 사실이 아니었음에도 17~20세기 초까지 계속되었다. 그 까닭은 바로 중국[漢族]의 역사에 흡수되어 동화되지 않으려는 처절한 노력이었다. 몽골은 만주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서서히 한화(漢化)되어가는 지배층 만주족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만주족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수적으로 우세

한 한족을 더 두려워했다. 따라서 굳이 한족의 중국 문화와 사상을 배우지 않았던 것이고, 인도-티베트-몽골로 이어지는 불교 문화권 형성을 통해 몽골의 독자성을 유지하려 했던 것이다.

그 결과 1911년 청조가 붕괴되자 몽골인들은 바로 몽골의 독립을 주장하였다. 물론 중국은 몽골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았고, 1916년에는 군대를 들여보내 무력으로 몽골의 독립을 취소시키기까지 했다. 이에 몽골은 후방의 러시아를 이용하여 중국을 견제함으로써 1921년 독립을 쟁취하였다. 냉전과 갈등의 세기가 지나가고 이제 21세기에는 상호 동등한 이해를 통한 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자신의 문자로 남긴 기록을 통해 심도 깊은 이해와 상호 교류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 몽골 연구의 역사적 배경

13세기 고려와 몽골 간에는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그 결과 ‘고려양(高麗樣)’·‘몽골풍[蒙古風]’이라고 하는 상대방의 문화에 대한 깊은 관심과 유행이 나타났다. 아울러 『고려사』에는 1295년(충렬왕 21)에 원(元)에서 이망고대(李忙古大)를 고려로 보내 몽골어를 가르쳤다는 기록도 있다. 한편 고려의 인재들도 몽골[元] 조정에서 실시한 과거에 응시하여 그중에 몇몇은 과거에 급제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고려시대와 같이 직접적인 교류는 많지 않았다. 그렇지만 고려시대에 이어 조선시대에도 사역원(司譯院)에서 만주[淸], 중국[漢], 일본[倭]어와 더불어 몽골[蒙]어를 가르쳤으며 1894년 갑오개혁으로 폐지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당시 몽골어 회화 교습에 사용했던 교재

는 우리가 ‘몽학삼서(蒙學三書)’라고 부르는 『몽어노걸대(蒙語老乞大)』·『몽어유해(蒙語類解)』·『첩해몽어(捷解蒙語)』가 남아 있으며, 나머지 대부분의 서적들은 산실된 것으로 보인다.

20세기 초, 몽골은 만주[淸]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배하에서 독립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몽골은 아시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가 되고, 한국은 일제의 더욱 철저한 지배를 받으면서 점차 그 관계가 소원해지게 되었다. 그리고 냉전시대를 지나 1990년 3월 26일 대한민국과 몽골국 간에 정식으로 수교가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에서 근대적인 학문 방법으로 몽골의 언어와 역사를 연구한 것은 20세기 중반부터였다. 즉, 역사 분야에서는 김상기·민영규¹·고병익·이용범 선생 등이 만주와 몽골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였고, 언어 분야에서는 김방한·이기문·김형수 선생 등이 훌륭한 성과를 냈다. 1990년 이후에는 많은 몽골 언어·역사 연구자들이 훌륭한 연구 성과를 주로 한국몽골학회의 잡지인 『몽골학』, 알타이학회의 잡지인 『알타이학보』, 중앙아시아학회의 잡지인 『중앙아시아연구』와 동북아역사재단의 『동북아역사논총』 등 학술지를 중심으로 발표하고 있다.

그중에서 김방한 선생은 『알탄 톱치 *Altan tobči*, 황금사』를 전문적으로 연구하여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고, 지금 이 책의 역주자와는 다른 판본인 ‘템게투 본’을 이용하여 『알탄 톱치 *Altan tobči*, 황금사』의 일부를 역주하였다.²

¹ 閔泳珪(1953. 7), 「Harvard 대학 新刊 Ulān-Bātur本 ALTAN TOBČI에 대하여」, 『延禧春秋』 제2호, 이 글은 『江華學 최후의 풍경: 西餘文存 其一』, 又半, 1994, 273~279쪽에 다시 수록되었다.

17세기 몽문 사료의 중요성

16세기 말 몽골에 불교가 전입되면서 17세기가 되면 불경 인쇄와 더불어 역사 서술과 편찬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이른 시기의 몽골 역사 자료는 몽골제국 초기인 13세기의 것으로, 원래 몽골어로 쓰였을 것으로 보이는 ‘한자전사본 『몽골비사(元朝秘史)』(*Mongyol-un niyuča tobčiyān*)’가 있다. 이 사료는 이미 훌륭한 우리말 역주본이 나와 있다.³ 그리고 이후 15~16세기에 저술된 몽골 역사 자료는 현전하지 않고, 17세기가 되어서야 등장한다. 이 시기에 저술되어 현전하는 몽골문 역사 자료는 다음과 같다.

- ㄱ. 저자미상, 『알탄 톱치, *Altan tobči*, 황금사』(17세기 전반⁴ 립상단진(bLo·bzañ bsTan, jin), 『알탄 톱치, *Altan tobči*』(17세기 후반)
- ㄴ. 사강 세첸(Saγang Sečen), 『에르데니-인 톱치, *Erdeni-yin tobči*, 몽골 원류』
- ㄷ. 밤바(Šamba=bYam-ba), 『‘아사락치’史, *Asaraγči neretü-yin teüke*』
- ㄹ. 저자미상, 『시라 토오지, *Šir-a tuyuji*, 大黃史』

2 김방한 선생이 역주한 판본은 템게투(Temgetü)의 蒙文書社(Mongyol bičig-ün qoriy-a) 초판본(1925)의 영인본(1940)이다. 김방한(1999), 『몽골어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80~156쪽.

3 저자미상, 유원수 역주(2004), 『몽골비사(元朝秘史)』, 사계절.

4 중국이나 일본 학계에서는 보통 『黃金史』 또는 『黃金史綱』이라고 부른다.

□. 저자미상, 『알탄·칸 전, *Erdeni tunumal neretü sudur*』

이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이며, 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사료가 바로 ㄱ. 저자미상, 『알탄 톱치, *Altan tobči*, 황금사』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몽골의 역사와 문화를 보다 깊고 넓게 그리고 균형 있게 알고자 한다면 중국 측의 입장에서 서술한 한문 사료만이 아닌 몽골 문 사료와의 비교연구를 통해 그들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알탄 톱치, *Altan tobči*』는 크게 세 가지 판본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① 저자미상, 『코리양고이 알탄 톱치, *Quriyangyui Altan tobči*, 황금사』

② 룽상단진(bLo·bzañ bsTan, Jin), 『알탄 톱치, *Altan tobči*』⁵

③ 메르겐 게겐(Mergen Gegegen), 『알탄 톱치, *Altan tobči*』⁶

지금까지는 주로 17세기 후반에 서술한 ② 룽상단진의 『알탄 톱치, *Altan tobči*』(울란바토르本)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그 결과 다양한 연구 성과를 거두었다.⁷

⁵ ‘로, 『알탄 톱치』(Lu, *Altan tobči*)’ 또는 ‘*Altan tobči nova*’라고도 한다.

⁶ 梅日更葛根(Mergen gegen) 羅布桑丹畢堅贊(Lubsangdambijalsan), 齊木德道爾吉(Čimeddorj)·孟和寶音(Möngkebuyan) 標音, 格日樂(Gerel) 漢譯(1998), 『黃金史 (*Altan tobči*)』, 海拉爾(Hayilar): 內蒙古文化出版社(Öbür mongyol-un soyul-un keblel-ün qoriy-a).

⁷ ②-1) bLo·bzañ bsTan, Jin (몽골인민공화국 과학아카데미 편)(1937), *Altan Tobči (Degedü·Dooradu)*, 2 vols., Ulayanbayatur. [*Altan Tobči nova*]

②-2) bLo·bzañ bsTan, Jin (Mostaert A. & Cleaves F. W. eds.)(1952), *Altan Tobči : A Brief History of the Mongols*, 1 vol., Camb./Mass.,

이들 판본 중에서 본 역주에 사용할 ① 저자미상, 『코리양고이 알탄 톱치(*Quriyangyui Altan tobči*, 황금사)』에는 다시 세 가지 판본이 있다.

①-1: ‘갈산 고펜예프 Galsan Gomboev本’은 1858년 출간된 러시아어 번역에 이용되었다.

①-2: ‘템게투 Temgetü本’ (蒙文書社, Mongyol bičig-ün qoriy-a)은 Charles R. Bawden(1955)의 역주와 김방한 선생의 부분 역주(1999)에 이용되었다.

①-3: ‘신발견 『황금사』 초이마(Sh. Choimaa)역주/영인본 (2002/2006/2011)

①-3: ‘신발견 『황금사』 초이마(Sh. Choimaa) 역주/영인본(2002/2006/2011)은 몽골 고비-알타이 아이막(道)의 유목민 바트멘드(Батмэнд)가 몽골국립대학교 몽골어대학 원전-알타이학과의 문헌학 교수인 초이마(Ш. Чоймаа)에게 연구를 위해 1997년 기증한 것이다. 이 판본은 지금까지 몽골국에서는 발견된 적이 없는 유일본이며, 수년간의 연구 끝에 해설과 라틴문 전사와 색인을 달아 2002년에 자료의 원본 사진과 함께 출간하였다.⁸

Harvard University Press. (*Ulaγanbayatur*, 1937, 2 vols.의 영인본)

②-3) bLo·bzañ bsTan, Jin(Bira Sh. ed.)(1990), *Altan tobči*, Ulaanbaatar, [*Altan Tobči nova*] (1937, 2 vols, 1952, 1 vol.의 원문 사진 영인본)

②-4) Лувсанданзан(Ш. Чоймаа ed. & tr.)(2006/2011), *Эртний хаадын үндэслэсэн төр ёсны зохиолыг товчлон хураасан ‘алтан товч’ хэмээх оршвой*(고대 카안들의 통치행적을 간략하게 추린 ‘알탄 톱치’라는 책), МУИС/МУИС·Мөнхийн үсэг, Улаанбаатар(현대몽골어 번역과 라틴문 전사, 원문 사진 영인).

본 역주자가 우리말 역주를 위해 저본으로 이용하는 판본이 바로 ①-3: 초이마(Sh. Choimaa) 교수가 몽골어로 역주하고 라틴문 전사와 색인, 그리고 사진 영인본을 실은 『코리양고이 알탄 톱치(*Quriyangγui Altan tobči*, 황금사)』(=‘신발견 『황금사』’, 2011)다.

신발견 ‘알탄톱치(*Altan tobči*)’ 연구의 주요 문제⁸

‘알탄 톱치(*Altan tobči*, 黃金史)’라고 축약해서 부르는 몇몇 종류의 역사 자료 중에는 ‘코리양고이 알탄 톱치(*Quriyangγui Altan tobči*, 黃金史)’, ‘로. 알탄 톱치(*Lu. Altan tobči*)’, ‘메르겐 게겐(*Mergen gegen*)의 알탄 톱치(*Mergen gegen-ü Altan tobči*)’라고 알기 쉽게 줄여서 적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중에서 연대가 가장 오래되었으며, 다음 시기에 몽골의 역사 서술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이 바로 ‘저자 미상(著者未詳)’의 『카안들의 근원을 간략하게 적은 알탄 톱치라는 이름의 경전(*Qad-un ündüsün quriyangγui Altan tobči nere-tü sudur*)』(=‘신발견 『황금사』’)이다.

어느 역사 자료에 대해 말하고자 할 때 무엇보다도 먼저, 저자·저술 연대·인용한 참고문헌 등에 대해 언급해야 한다. 그러나 ‘코리양고이 알탄 톱치’의 저자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적고, 또한 믿을 만한 연구

⁸ 저자미상(2002/2006/2011), Ш. Чоймаа ed. & tr., *Хаадын үндсэн хураангуй алтан товч(Qad-un ündüsün quriyangγui altan tobči) · I*, МУИС/МУИС · Мөнхийн үсэг, Улаанбаатар.

⁹ 이 주요 문제에 대한 설명 부분은 초이마 교수의 서술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 아주 적다. 영국의 몽골 연구자인 보우덴(Charles R. Bawden)은 ‘코리양고이 알탄 톱치’의 저작 연대를 1604~1634년 사이에 저술되었다고 보았다. 내몽골 학자인 류진수오[留金鎖]는 “오르도스(Ordos) 부의 사강 세첸(Sayang Setsen)이 『에르데니-인 톱치(Erdeni-yin tobči, 몽골 원류)』를 지을 때, 일곱 종류의 저술을 인용했다. 그중에 다라마트 사르바 호탁트(Daramat Sarva qutaytu)가 지은 『카안들의 근원 이야기(Qaad-un ündüsün-ü tuyuji)』라는 책이 보인다. 다라마트 사르바 호탁트(사르바 다그첸 호탁트)는 사카파(티베트 불교의 紅帽派)의 람(lama, 승려)으로, 릭텐 카안이 스물여섯 살 때인 1618년에 몽골 땅에 도착했다. 사르바 호탁트가 지은 『카안들의 근원 이야기(Qaad-un ündesün-ü tuyuji)』는 1618~1634년 사이에 쓰였다. “『카안들의 근원 이야기』라는 책이 바로 『카안들의 근원을 간략하게 적은 알탄 톱치라는 이름의 경전(Qad-un ündüsün quriyangyui Altan tobči nere-tü sudur)』일 것이라고 본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경전의 어휘·문체·몽골어문의 특징 등을 반영한 상황을 조금만 살펴보면, 몽골 땅에 몇 년밖에 살지 않은 티베트 학문 전통을 지닌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많은 증거들이 보인다.

연구자 체첸빌리(S. Tsetsenbilig)은 류진수오의 의견을 지지하면서, “샤르바 호탁트는 릭텐 카안이 통치하고 있던 몽골 땅에 오랫동안 살면서 몽골 비칙과 몽골어를 습득하고, 릭텐 카안의 궁전에 보관되어 있던 몽골 고대 역사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카안들의 근원을 간략하게 적은 알탄 톱치라는 이름의 경전』이라는 역사서를 스스로 저술하였으며, 아니면 카안의 명령에 따라 저술한 것으로 본다. 그가 몽골 카안들의 근원을 인도·티베트 통치자들의 근원에서 기원한 것으로 보고 저술한

것은 몽골과 티베트의 종교와 정치를 통합하여 통치하고자 했던 몽골 카안들이 당시에 갖고 있던 생각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해서 몽골의 전통적인 역사 서술에서 벗어난 독특한 역사 서술 방법이 확립된 것이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는 이후에 발표한 다른 논문에서 “『카안들의 근원을 간략하게 적은 알탄 톱치라는 이름의 경전』을 릭텐 카안의 사당을 관장하던 티베트의 사카파 승려들의 스승이었던 샤르바 호탁트 아난다가 1617~1626년 사이에 저술하였다”라고 기존의 의견을 다시 반복하였다.

『코리양고이 알탄 톱치』에 보이는 몽골 카안들의 기원을 인도·티베트에 연결하여 서술하는 것은 저자를 밝혀내는 데 특별한 연관도 없을 뿐더러 페를레(Kh. Perlee) 선생이 지적했듯이 “『코리양고이 알탄 톱치』는 『차간 테우케(*Čayan teüke*, 白史)』의 서술대로 인도·티베트의 통치자들로부터 몽골 카안들의 근원을 연결하여 서술한 것에서 볼 때, 『아르반 보얀투 놉운 차간 테우케(白史)』를 이용한 것은 분명하다”라는 결론을 통해 부정된 결론이다.

어떤 하나의 사료의 저자를 명백하게 밝히려고 할 때, 단지 추정에 근거한 자료를 인용하여 마치 그것이 진실인 양 설명하는 것은 그저 추론일 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실에는 도달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무엇보다도 먼저 해당 사료의 문체, 어휘의 특징, 기본적으로 이용한 자료, 내용에 포함된 역사적 사건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아서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저술연대에 대해서, 초이마 교수는 “1604~1628년 사이에 저술되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해줄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새로 발견된 사본과 상트페테르부르크 동방학연구소 소장 사본을

비교해본 결과에 근거한 것이다. 다른 한편, 『코리양고이 알탄 톱치』를 저술할 때 어떤 자료를 이용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새로 발견된 사본을 살펴보면, 『몽골비사』와 『집사』를 편찬할 때 중요한 사료가 되었던 『알탄 뎀테르(*Altan debter*)』 등을 원용하였으며, 또한 당시까지 전해져 내려오던 구전 자료와 역사 자료, 문학 자료 등을 최대한 원용하였으며, 찰바 공가도르지의 『올란 뎀테르(紅史, 1346)』, 손누발의 『후흐뎀테르(靑史, 1476)』 등을 이용해 인도·티베트 통치자들의 재위 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서술했을 것이다. 또한 위에서 언급했듯이 페를레 선생이 말한 『차간 테우케(白史)』를 이용했다.

『코리양고이 알탄 톱치』의 또 하나의 특징은 몽골의 역사와 역사 인물과 연관된 구전 역사 자료와 설화 등을 역사적인 사건들과 연관하여 서술했으며 구전 문학의 아름다운 문체를 가공하지 않은 채 그대로 이용했으며, 이에 대해서는 1958년에 내몽골 올란차브 아이막의 모방간 호쇼에 있는 합트 하사르의 사당에서 발견한 『칭기스 칸의 알탄 톱치라는 이름의 역사』라는 49장으로 이루어진 대나무 펜으로 쓴 짧은 경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내몽골의 헤식토크 교수는 「『칭기스 칸의 알탄 톱치라는 이름의 역사』의 저술연대에 대하여」라는 연구 논문에서 이 사료를 분석하여, “쿠빌라이 카안의 아들들의 말이 아주 다르구나! 그들의 말대로 하라! 여러분들은……”이라는 유언을 남기고 칭기스 칸이 사망했다고 적은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른 것이며, 이 말은 쿠빌라이가 카안에 등극한 1260년 이후에 기록된 것이며, 처음 저술 편찬한 이는 쿠빌라이 카안의 측근에 있던 관리일 것이라고 보았다.

『코리양고이 알탄 톱치』에는 “…… 쿠빌라이 아들들의 말이 다르구나

나! 그들의 말대로 하라! 여러분들은! 이라는 성지를 내리고, 병[정]해년(丙丁亥年)에 예순일곱 살이 되는 7월 12일에 돌아가셨다”라고 적은 것은 『칭기스 칸의 알탄 톱치라는 이름의 역사』의 기술과 똑같으며, 이후에 저술되는 몽골 역사서들에 전해지게 되었다.

헤식톡토흐 교수가 서술한 대로, 몽케 카안이 사망하자 (막내)동생인 아릭 부케가 카라코룸에서 대회의(yeke quriltay)를 소집하고 카안의 자리에 오르려 하자, 쿠빌라이는 그보다 먼저 불법으로 1260년 (4월)에 개평부에서 스스로 카안의 자리에 올랐다. 이로 말미암아 형제 간에 분열과 대립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성군이신 칭기스 칸이 유언을 남겨 쿠빌라이를 카안으로 임명한 것처럼 꾸민 것은 분명히 쿠빌라이 카안의 시기에 관련된 것이다.

이와 같이 장황하게 서술한 이유는, 『코리양고이 알탄 톱치』는 아주 오래된 고대 역사 설화와 원나라 시대의 서적들에서 시작하여 17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사건과 그와 관련된 사료들, 구전 자료 등을 역사적 사건들이 일어난 연대에 따라 인용하여 쓴 『몽골비사』와 유사한 체제라는 것을 밝히기 위함이었다.

몽골 역사서 중에 차지하는 위치는, 몽골 과학아카데미 원사(院士)인 비라(Sh. Bira) 교수가 서술했듯이, 오늘날까지 몽골 역사 기록 중에서 연대가 불분명한 『차간 테우케』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몽골비사』 다음에 오는 가장 오래된 사료는 『코리양고이 알탄 톱치』이며, 몽골의 고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역사학 서술 전통을 인도와 티베트의 역사 서술에 따른 최초의 작품이다.

“몽골의 중요한 고대 역사 사료인 『카안들의 근원을 간략히 적은 코리양고이 알탄 톱치(Quriyangyui Altan tobči)』”라는 작품은 사건 연대

에 따라 기록한 몽골의 역사 사료다. 이 사료에는 다른 사료에 기록되지 않은 중요한 역사적 사건에 대해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14~16세기 역사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기본 사료가 되는 자료들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후의 역사 자료 서술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17~19세기 몽골의 역사가들은 이 사서를 기본으로 삼아 몽골의 역사를 서술하였다. 예를 들면, 17세기에 저술된 룽상단진의 『알탄 톱치(*Altan tobči*)』, 사강 세첸의 『에르데니-인 톱치(*Erdeni-yin tobči*)』, 잠바 토슬락치의 『아사락치사(史)(*Asarayči neretü-yin tuyuji*)』, 저자불명의 『시라 토오지(*Sir-a tuyuji*, 黃史)』 등과 더불어 또한 18~19세기에 저술된 기타 몽골 역사 사료들도 모두 『코리양고이 알탄 톱치』를 기준으로 삼아 부분적으로 문체와 단어 등을 모방하기에 이르렀다.

룽상단진의 『알탄 톱치』는 『코리양고이 알탄 톱치』를 직접 인용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코리양고이 알탄 톱치』는 비단 몽골 역사·문학·민속학 연구자들에게 중요한 연구 자료가 될 뿐 아니라 언어학 연구자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자료다. 일반적으로 15~17세기 몽골어 연구 자료는 아주 희소한데, 『코리양고이 알탄 톱치』(=‘신발견 『황금사』’)는 이 시기의 몽골 비칙 서사법·정서법부터 어휘론·의미론·문체론·사본 연구 등 동시대의 언어 연구의 근간이 되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일러두기

- 이 역주서는 몽골국(Монгол улс)에서 처음 발견된 저자 미상(著者 未詳)의 ‘신발견 『Altan tobči, 황금사』’(고비-알타이 本)의 완역이다.
- 번역에 사용한 저본은 몽골국 울란바토르(Улаанбаатар)에서 2011년 ‘17세기 몽골 역사자료 원전들’ 중 제1권으로 출간된 초이마(Ш. Чоймаа) 교수의 연구서 241~295쪽에 있는 컬러 사진 사본을 이용하였다.
- 학술 연구서에는 반드시 필요한 몽골문의 라틴문 전사(轉寫)와 원문 영인(影印)은 동북아역사재단의 방침에 따라 신지 않았다. 추후 기회가 되면 라틴문 전사와 원문 영인을 붙이겠다.
- 몽골어 표기, 특히 모음과 장모음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랐다.
a: 아, e: 에, i: 이, o: 오, u: 우, ö: 우, ü: 우
예) Batu: 바토, Möngke: 몽케, qatun: 카톤, Qubilai: 코빌라이 등
aya: 아아 ege: 에에
예) qayan: 카안, bayatur: 바아토르, Sübegedei: 수베에데이 등
- 고전 몽골문(위구르식 문자)와 현대 몽골어(끼릴 문자)의 전사는 각각의 원칙에 따랐다.
예) 에르데니 조(사원): 고전 몽골문의 전사 → erdeni zuu
현대 몽골어의 전사 → erdene zuu
- 번역은 직역을 위주로 했으나, 의미가 통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 ‘꺾쇠괄호 []’ 안에 필요한 문장이나 단어를 넣었다.
- 찾아보기는 원문 번역에 한정하였다.
- 본문 내용 중에 1a~83a로 표기된 부분은 사본의 쪽수다.



차례

머리말 · 4

신발견 『황금사』의 내력 · 9

해제 · 14

일러두기 · 27

번역 및 역주 · 29

동북아역사재단

참고문헌 · 154

역주자 후기 · 191

찾아보기 · 195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번역
및
역주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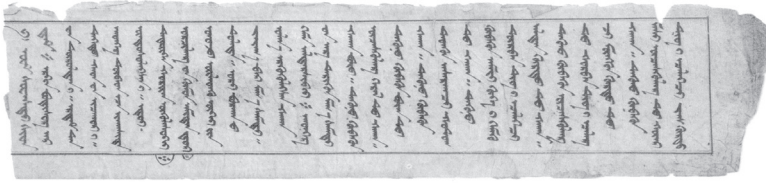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신발견 『황금사』 사본 1a

1a 오음 소와스티 시드담(oom suwasti siddam),¹

존귀(尊貴)하신 보살(bodisüg[=bodistv-a], 菩薩)님들과² 현명하고 고귀한 칸들(qad)의 근원이 인도(enedkeg)와 티베트(töbed)로부터 비롯된 것을 이리저리한 사적(事蹟)을 모아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승[現世]의 중생들에게, 그 이치에 맞춰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존자(ori, 尊者) 부처님(burqan)의 명운(命運)으로 마카 사마디(maq-a samadi)³는 올라나 이르구굴렉센 카안(olan-a ergügülegsen[=ergügülügsen] qayan, 衆敬王)이라고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이분이 인도 최초의 왕이신 마카 사마디 카안이고 그 아들은 우제스 쿨렝 게렐투 카안(üjesküleng gereltü qayan, 妙光王),⁵ 그의 아들은 보안토 카안(buyantu qayan, 善王),⁶ 그의 아들은 테드쿤 아사락치 코톡토

1 oom suwasti siddam : Skt, om svasti siddham, ‘모든 중생이 평안하기를!’

2 Skt, bodhisattva.

3 Skt, mahāsammata. 대평등왕(大平等王) 또는 대삼말다왕(大三末多王).

4 또는 공경왕(共敬王).

5 Skt, prabhacāru, 또는 광묘(光妙).

6 Skt, kalyāna, 또는 선제(善帝).

카안(tedkün asarayçi qutuγtu qayan, [頂生]慈護王),⁷ 그의 아들 나마익 쿠케이(namayi kökei[kökü], 自乳王)는 네 주(四洲)를 다스리는 알탄 쿠르두투 카안(altan kürdütü qayan, 金輪聖王)이고, 그의 아들 우제스쿨렝투(üjeskülengtü, 妙帝)는 세 주(三洲)를 다스리는 몽군 쿠르두투 카안(mönggün kürdütü qayan, 銀輪聖王), 그의 아들 마시 우제스쿨렝투(masi üjeskülengtü, 近妙)는 두 주(二洲)를 다스리는 제스 쿠르두투 2a 카안(jes kürdütü qayan, 銅輪聖王), 그의 아들 사인 우제스쿨렝투(sayin üjeskülengtü, 善妙)는 한 주(一洲)를 다스리는 테무르 쿠르두투 카안(temür kürdütü qayan, 鐵輪聖王)이다. 그의 아들은 테구스 우제스쿨렝투 카안(tegüs üjeskülengtü qayan, 嚴妙)이다. 그들 다섯 명은 자그라와 르티[차크라바르틴] 카안(zagrawarti[čakrawartin] qayan, 轉輪聖王)이라고 널리 알려졌다.

테구스 우제스쿨렝투 카안의 아들은 탈빅치 카안(talbiyçi qayan, 舍帝)이다. 그 아들은 탈빈 바릭치 카안(talbin bariyçi qayan, 舍提王)이며, 그 아들은 샤후니 카안(šagüni qayan, 舍固尼), 그 아들은 구시 카안(güsi qayan, 香草王), 그의 아들은 예케 구시 카안(yeke güsi qayan, 大香草王), 그 아들은 사인 우제치 카안(sayin üjegçi qayan, 善見王)이다.

마하 사마디 카안의 황금 가문(altan uray, 黃金家門)에서 분파한 게르 게 카안(gerge qayan, 甘蔗王)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은 사인 투룰투 카안(sayin törültü qayan, 善生王)이며 그 카안에서 다시 분파한 카안들의 마지막이 아르슬란 오고치토 카안(ars[a]lan oγučitu qayan, 師子頰王)이

⁷ Skt. uposadha.

며, 그 아들은 아리곤 이데게투 카안(ariyun idgetü qayan, 淨飯王),⁸ 차간 이데게투 카안(čayan idegetü qayan, 白飯王),⁹ 탕속 이데게투 카안(tangsuy idegetü qayan, 穀飯王),¹⁰ 라시안 이데 2b 게투 카안(rasiyan idegetü qayan, 甘露飯王)¹¹ 등이었다.

아리곤 이데게투 카안의 아들은 보르칸 박시(burqan bayši, 부처님)와 우제스쿨렝투 난디(üjeskülengtü nandi, 妙難陀)¹² 둘이 있었다. 차간 이데게투 카안의 아들은 나소나 테굴테르 일라곡치(nasun-a tegülder ilayuyçi, 勝實達)와 테구스 사인(tegüs sayin, 賢善)¹³ 둘이 있었다. 탕속 이데게투 카안의 아들은 나소나 테굴테르 예케 네레투(nasun-a tegülder yeke neretü, 大名)와¹⁴ 울루 투리дук치(ülü türidügçi, 不滅) 둘이 있었다. 라시안 이데게투 카안의 아들은 디와다드(diwadad, 提婆達多)와¹⁵ 아난다(ananda, 阿難陀)¹⁶ 둘이 있었다. 시게무니(sigemüni, 釋迦牟尼)의 아들은 라콜리(raquli, 羅候羅)이다. 라콜리가 토인(toyin, 道人=승려)이 되었기 때문에 아리곤 이데게투 카안의 혈통이 끊어졌다고들 한

⁸ Skt. śuddhodana.

⁹ Skt. śuklodana.

¹⁰ Skt. drñōdana.

¹¹ Skt. amritōdana.

¹² Skt. nānta.

¹³ Skt. bhadirika.

¹⁴ Skt. mahanamen.

¹⁵ Skt. devadatta.

¹⁶ Skt. ānanda.

다. 그러나 다른 많은 경전 등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근거를 서술하였다.

부처님(burqan, 佛陀)이 열반(nirwan, 涅槃)에¹⁷ 드시고 천여 년도 더 지난 다음에, 마하 사마디 카안의 황금 가문에서 동방의 눈 덮인 산[雪山] 기슭(즉, 티베트)에서 번창한 것은 다음의 이야기와 같다. 인도의 마가다(magada)국의¹⁸ 코살라 왕(k'osala qayan)의 아들인 사르바(sarba, 샤흐바, 白軍王)라는 이름을 가진 카안에게 다섯 명의 아들이 있었다. 막내아들은 날 때부터 머리카락이 3a 푸른빛을 띠었고, 손과 발은 편평하며 눈[꺼풀]은 아래에서 위로 깜빡이는 등 마치 새와 같았다. 부모는 서로 말하기를, 이 아이는 앞서 태어난 아이들과 같지 않다고 하며, 구리 상자에 넣어서 강가(g'angg'a, 갠지스 강)에 버렸다.

네팔(balbu)과 티베트(töbed) 두 나라의 경계에서 소를 치는 한 티베트 노인이 강가에서 이 상자를 발견하고는 열어보니 아름답고 잘생긴 한 아이가 들어 있었다. 노인이 “너는 어떤 아이냐?”라고 묻자, 아이는 대답을 하지 않고 하늘을 향해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이 아이는 하늘의 아들이다. 이 아이를 내 아이로 삼겠다!”고 집으로 데려와 키웠다. 열여섯 살이 되어서, 땅이 높고 좋은 곳을 찾아 눈 덮인 삼보 산(sambu ayula) 사방 산등성이를 보고 여기서 살자고 오다가 티베트 사람을 3b 만났는데, 그가 “어디서 오는 사람이냐?”고 물었다. 그는 위[하늘]를 가리켰다. “이 아이는 하늘에서 신명을 받았구나! 우리 티베트 나라에는

17 Skt. nirvānah.

18 Skt. magadha.

왕이 없다.”고 말하며 목마를 태워서 데려왔다.

티베트 최초의 쿠주군 산달리토 카안(küjügün sandalitu qayan, 顓座王)이 바로 그다. 그의 아들은 에르킨 돌로간 쿠문 산달리토 [카안] (erkin douyan kümün sandalitu [qayan], 人座王), 그의 아들은 키야 자르보 시바곤 산달리토 카안(kiy-a jarbu sibayun sandalitu qayan, 鳥座王), 그의 아들은 아이톨가 아르바이 산달리토 카안(ayitulγ-a arbai sandalitu qayan, 麥座王)이다. 그의 아들은 구리 쿨룩 갈 볼로르 산달리토 카안(güri kültüg γal bolur sandalitu qayan, 水晶座王)이다. 그의 아들은 군 소빈 모린 산달리토 카안(gün söbin[=sobin] morin sandalitu qayan, 馬座)이다. 그의 아들은 달라이 소빈 알탄 산달리토 카안(dalai söbin [=sobin] altan sandalitu qayan, 金座王)이다.¹⁹ 그의 큰아들은 보로초(boruču), 다음 둘째는 시바고치(sibayučı), 막내는 부룬[부르테] 치노아(börün[=börte] činu-a)다. 그러다가 그들은 서로 다투게 되면서, 부르테 치노아는 북쪽으로 텡기스 바다(tenggis dalai)를 건너 이역(jad-un γajar, 異域)에 이르러, 결혼하지 않은 고아 마랄(quu-a[=γou-a] maral)이라는 4a 이름의 처자를 얻어 이역 땅에 거주하게 되면서 몽골(mongγol) 씨족(omuytan)을 이루었다.

몽골족의 시조가 바로 그다. 그의 아들은 바타이 차칸(batai čaqan)이고, 그의 아들은 타만찬(tamančan[=tamača])이고, 그의 아들은 코리찰 메르겐(qoričal[=qoričar] mergen)이고, 그의 아들은 오가잡 보고를

¹⁹ 이들 일곱 명을 천좌칠왕(天座七王)이라고 한다.

(uyajam buyurul)이고, 그의 아들은 살리 칼차고(sali qalčayū)이고, 그의 아들은 예케 니둔(yeke nidün)이고, 그의 아들은 셈 소치(sem soči)이고, 그의 아들은 카라축(qaračüg[=qaračuy], 카라초)이고, 그의 아들은 부지르기데이 메르겐(böjirgidei[=borjigidai] mergen)이고, 그의 아들은 토르갈진 바얀(toryaljin bayan)인데, 그에게는 보록친 고아(boruyčïn you-a)라는 아내가 있었다. 그에게는 도와 소코르(duua soqur)와 도보 메르겐(dobu mergen)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다. 보롤다이 콜라비(boruldai qulabi)라는 젊은 하인과 안장에 쓸린 상처가 있는 말(dayir)과 회색 말(boru)이 있었다. 도와 소코르는 이마 한가운데 하나의 눈이 있었다. 삼일 동안 이동하는 거리(γurban negüri γajar)의²⁰ 먼 곳을 볼 수 있었다. 안장에 쓸린 상처가 있는 말과 회색 말이 있었다.

도와 소코르는 아우인 도보 메르겐을 데리고 4b 보르칸 칼둔(burqan qaldun)이라는 산 위에 올라가 있을 때, 두이렝(düireng) 산의 북쪽 숲에서 텡켈릭 강(tengkelig γoruqan)을 향하여 내려오는 한 무리의 유목민을 도와 소코르가 보고, 아우인 도보 메르겐에게 말했다. 텡켈릭 강으로 오는 유목민 무리의 마차 앞자리에 한 처자(ökin)가 앉아 있다. 저 여인의 아름다운 자색(姿色)은 여기서도 볼 수 있다. “네가 가서 보라!”고 도보 메르겐 아우에게 말했다. 아우가 가서 보니 마차의 앞자리에 다 큰 처자가 있었다. 도보 메르겐은 그 처자에게 “당신들은 뭐하는 사람들인가?”라고 물었다. 그 처자는 “코리 투메드(qori tümed)의 코릴다이 메르겐(γorildai[=qorildai] mergen)과 바르고진 고아(baryujin you-a)

²⁰ 1네구리(negüri)는 대략 10여 리(里) 정도다.

의 여식(ay-a)으로,²¹ 아릭 오손(ariy usun)이라는 곳에서 태어난 알롱 고아(alung you-a)라는 이름의 처자입니다.”라고 말했다. 도보 메르겐은 형 도와 소코르에게 가서 “정말로 위명(威名)이 있는 알롱 고아라는 이름의 처자로 아직 정혼을 5a 하지 않았다(süi belge ügei)!”고 말하자, 도와 소코르가 코릴다이 메르겐에게 딸을 달라고 청혼하여 데리고 와서, 도보 메르겐에게 주었다는 내력이 이러하다.

도보 메르겐은 그녀를 아내로 취하여 벡테르(begter)와 베구네테이(begünetei)라는 이름의 두 아들을 낳았다. 그러다가 도보 메르겐이 죽었다. 죽은 뒤 알롱 고아는 남편 없이 살며 보코 카타기(buqu qatagi), 보코치 살치(buquči salči), 보돈초르(bodunčur)라는 이름을 가진 세 아들을 낳았다. 벡테르와 베구네테이가 서로 이야기했다. “우리 어머니는 홀로 살면서 세 아들을 또 낳았다. 우리는 형제(esen[=aqa] degü[=degüü])나 친족(üy-e qay-a)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누구의 [아들이며],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말하는 것을 어머니 알롱 고아가 알게 되어, “너희 두 아들이 나를 의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하고는 두 아들에게 각각 화살대(mösüi[=mösü])를 하나씩 주었다. 각각 하나의 화살대를 쉽게 부러트렸다. 다음에는 다섯 개씩 주었다. 그러나 부러트리지 5b 못했다.

알롱 고아가 말했다. “너희들 다섯 사람의 힘도 이와 같다. 킴킴한 한밤중에 누르스름한 아이가 들어올 때 우리 게르(ger)에 빛이 들어왔

²¹ 한 부족장의 아내를 높여 부르는 말.

다. 내 배를 쓰다듬으며 나갈 때, 이마에 점이 있는 누렁개가 되어서 재 빠르게 오른쪽 널문(egüde)으로 자기 혀와 입을 훑으면서 나갔다. 그것을 생각해보면, 하늘에서 내려주신 운명을 타고난 아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아마도 훗날 검은 머리를 한 사람들의 주인이 될 징조가 아닐까 생각한다. 아무튼 너희 둘의 동무가 되었으면 한다!”.

형제 다섯이서 재산(ömči)을 나누어 제 몫을 서로 가질 때, 형들은 바로 그 보돈초르 막내를 차별해서,

목숨이나 연명하라고

입이 검은 누렁개를,

발에 흠뻑이나 묻히지 말라고

등 가운데 안장에 쓸린 상처가 있는

꼬리 짧은 서라(saryul[=siryal]) 말을 주었다.

보돈초르는 “죽든지 살든지, 내 운명에 맡기자!”라고 말하고는 6a 오논 강(onun mören)을 거슬러 올라갔다. 늑대(činu-a)가 암사슴(maral)을 바위 동굴에 몰아넣은 것을 보고, 그것을 겨누어 활을 쏘아 죽여서 그 고기로 양식을 삼으며 살고 있다가, 오논 강이 시작되는 곳에 풀로 ‘움막(ömbüle[=embüle])’을 짓고 살고 있을 때, 매가 멧닭²²을 잡는 것을 보고는 말총으로 멧을 만들어 매를 잡아, 그것을 길들여 풀어서 사냥하곤 하였다. 매가 잡은 고니와 재두루미(qung čeng), 기러기

²² 라틴학명 *Lyrurus tetrix*.

(yalayun)들을 찾으러 이리저리 헤매며 돌아다니다가, 오논 강으로 매 사냥을 갈 때, 오논 강으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이동해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아이락(ösüg[=esüg] umdayan, 馬乳酒)을 얻어마시며 살았다. 누가 누구인지 서로 이름을 묻지 않고 살고 있었다.

그 후에, 형 보코 카타기가 오논 강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못난 한 동생이 갔다. 죽었냐 살았냐?”며 찾아 6b 왔다. 그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여기에 혹시 두 살배기 서라말({saryul}[=siryal] day-a) 한 필을 가진 아이를 보았는가?”라고 물었다. 그 사람들이 “여기에 네가 찾고 있는 아이와 똑같은 아이가 있다. 두 살배기 서라말 한 필을 몰고, 회색 매(boruyčün qarčayai) 한 마리를 데리고 와서는 이곳에서 날마다 아이 락을 마시며 살고 있다. 너는 쓸데없이 이리저리 찾아다니지 마라! 여기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라!”하고 말했다.

그렇게 기다리다가 한낮이 되었을 때쯤, 구름도 없는데 비가 조금씩 내렸다. 그 사람들은 “아이가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 때 보돈초르가 왔다. 그가 잡은 새의 깃털은 바람이 불자, 오논 강 쪽으로 [새의 깃털이] 바람에 날리는 눈처럼 흩날리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형제 둘이서 되돌아올 때, 보돈초르가 말했다. “내가 풀로 지은 움막이 가는 도중에 있다. 매로 사냥한 7a 새고기도 남아 있으니 같이 가서 먹자!” 형이 말에서 내리면서, “같이 데리고 다니는 이 새는 뭐하는 거냐?”고 물어보자, 보돈초르가

“혼자 살고 있을 때

기러기, 오리들을 갖고 놀면
공을 세우는 동무를 얻고,
고니와 재두루미를 갖고 놀면
운이 좋은 동무를 얻는다!”고 농담을 했다.

형은 “너는 이승에서 사람들을 가지려 한다면 얻지 못할 것이다. 떡
고 마실 것을 구하면 그 정도나!”라며 오두막에 들어서다가 문지방
(bosuyan)에 걸려 넘어졌다가는 간신히 일어서려는데, 보돈초르가 말
하기를,

“목구멍에 복이 없으면
이빨에 걸리고,
상석(qoyimur-a, 上席)에 앉을 복이 없으면
문지방에 걸려 넘어진다!”라며 하늘에 기도를 드렸다.

형은 “네 이 바보 같은 놈. 네가 이런 말을 할 주제나 되냐!”고 말하
고는, 형과 동생 둘이서 되돌아 7b 갔다. 얼마 안 가서 보돈초르가 말
하기를,

“텔(degel[=debel], 옷)에는 옷깃이 있어야,
사람에게는 지도자[형]가 있어야 좋다!”라고 했다.

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시 보돈초르가 말을 해도, 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또다시 보돈초르가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형이,

“너 방금 뭐라고 말했나?”고 물어보자, 동생이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나쁘지도 좋지도, 크지도 작지도 않은 적당한 정도입니다. 우리 둘이 쳐서 점령해버립시다!”라고 했다. 형은 “하여튼 형제들과 상의해보자!”며, 의논하여 그 사람들을 복속시켰다. 그렇지만 또 지난번처럼 [보돈초르를] 차별하여, 그 사람들을 나누어주지 않았다.

보돈초르는 배 속에 아이를 가진[임신한] 여자를 잡았다. 그 임신한 여자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 자다고드(jadayud, 異域) 여자에게서 태어난 주레데이(jüredei)라고 불렀다. 보돈초르도 또한 [자기] 아이를 얻었는데, 그가 잡아온 여자가 낳은 아이였기 때문에 바가리다이(bayaridai)라고 8a 불렀다. 평민(qaračus)이 되었다. 보돈초르는 또 아이를 얻었다. 바림 시기레투 캅치 쿨룩(barim sigiretü qabči külüg)이라고 불렀다. [그는] 보르지긴(borügin[=borjigin]) 씨족이 되었다. 벡테르(begter)의 후손들은 베수드(besüd) 씨족이 되었다. 베국테이(begügtei)의 후손들은 방고드(bangyud) 씨족이 되었다. 카타기(qatagi)의 후손들은 카타긴(qatagin) 씨족이 되었다. 보코치 살치(buquči salči)의 후손들은 살치고드(salčiγud) 씨족이 되었다. 보돈초르 복다 캅치 쿨룩(bodunčur boyda qabči külüg)의 후손 이외 부족의 백성(ayımay-un ulus)들을 모두 평민으로 삼은 까닭이 이와 같다.

보돈초르의 아들은 캅치 쿨룩(qabči külüg), 그의 아들은 마카 토단(maq-a tudan), 그의 아들은 카치 쿨룩(qači külüg), 그의 아들은 사이도(카이도, sayidu[=qayidu]), 그의 아들은 바이송코르 독신(bayisongqur doysin), 그의 아들은 툰비나이 세첸(tubinnai[=tunbinai] sečen), 그의 아들은 카불 카안(qabul qayan)이다. 그의 아들은 바르담 바아트르

(bardam bayatur), 그의 아들은 이수케이 바야토르(yisükii[=yisükei] bayatur)다. [이수케이가] 네쿤 타이시(nekün tayisi)와 다리타이 오초곤(온치긴, daritai očuyun) 두 아우를 데리고 사냥을 나갔을 8b 때, “흰 토끼(činday-a)가 있는가?” 하고 포위망을 좁혔다. 그러고 보니 한 부인이 오줌을 눈 흔적이 있었다. 거기서 마차가 지나간 길을 따라가면서 이수케이가 동생에게, “그 여자에게서 좋은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라고 말하고 마차가 지나간 길을 따라가는데, 메르키드(merkid) 부의 남자 칠레두(čiledü)가 우겔렌 에케(ögelen eke)를 울코노드(olqunud) 부에서 데리고 돌아오고 있었는데, 그를 쫓으면서 이수케이는 두 아우에게 말했다. “이들을 사로잡자!”며 다가오는 것을 알아채고 우겔렌 에케가 남편에게, 칠레두에게 말했다. “당신 알고 있지요? 방금 전 세 사람들은 성질도 아주 나빠요! 당신은 [빨리] 도망쳐요!”라고 말하고는 입고 있던 저고리를 벗어주었는데, 그 형제 셋이서 그들에게 쳐들어왔다. 칠레두는 알아듣고 재빨리 귀가 작은(quba) 말을 채찍질하여 일곱 언덕(doluyan yorbi)과 골짜기를 넘어 멀리 도망쳤다. 사내인 이수케이도 쫓아갔지만 잡을 수 없었다. 우겔렌 에케를 이수케이가 빼앗아 데리고 왔다. 빼앗아 데리고 집으로 9a 돌아올 때 우겔렌 카톤(ögelen qatun)이 울며 가는데, 다리타이 오초곤[온치긴]이 말하기를,

“세 강을 넘고

세 언덕과 골짜기를 넘었습니다.

찾아도 발자국이 없고

보아도 흔적이 없고

소리쳐 울어도 듣지 못합니다.”라고 했다. 그 말을 우겔렌 에케가 듣

고는 말없이 갔다. 우겔렌 에케를 얻은 경위는 이리하다.

우겔렌 에케에게서, 타타르(tatar) 부의 테무진(temüjin) 코리-보카(qori buq-a)를 포로로 잡아왔을 때, 한 사내아이(niyun[=nuyun] köbegün)가 태어났다. 그래서 그에게 테무진(temüjin)이라는 이름을 주었다. 쇠로 만든 포대기(ölügei)의 끈을 옆으로 한번 밀었다 해서 선물로 황금 옥새(qasbuu-a altan tamay-a)가 운명에 따라 이르게 된 것이다. [우겔렌 에케에게서] 카사르(qasar), 카초고(qačuyu), 오초고(očuyu) 등 네 명의 아이들이 태어났다.

이수케이는 자기 아들 테무진을 데리고, 외가 친척들(nayaču-nar)인 올코노드(olqunud) 부에게서 아내 될 사람을 찾으러 갈 때, 9b 쿵기라드(qonggirad) 부의 데이 세첸(dei sečen)이 동코르(dongqur)와 첩치르(čegčir) 두 산 가운데 있는 초르고(čoryu) 강에서 말떼에게 물을 먹이고 있을 때, 이수케이에게 데이 세첸이 인사를 하고 문기를, “키요드(kiyud) 씨(yasutu)의 보르지긴(borjigin) 가문(omuytan)의 사돈(quda) 자제분(köbegün)이시여! 당신들은 어디로 가시오?”라고 하자, 이수케이가 대답하기를 “아들 하나, 테무진을 올코노드에 가서 아내를 찾아주러 [테릴사위로 주기 위해] 갑니다.”라고 하자, 데이 세첸이 말하기를, “지난 밤에 한 쌍의 하얀 송골매(čayan songqur[=songqur])가 있어 내가 손아귀로 잡는 꿈을 꾸었소이다! 바로 그 꿈은 키요드 씨 보르지긴 가문인 당신들의 상징(sülde)이래오. 우리 집으로 가지지요! 부르테(börte)라는 이름을 가진 아홉 살 난 딸이 있습니다. 드리지요! 예로부터 우리 지방의 풍습에는

[불이] 고운 계집아이를
 높은 마차(qasay tergen)에 앉혀서
 검은 낙타(qara[=qar-a] buyu-ra[=buur-a])가 이끌고
 모든 사람들의 군주의 10a 카툰(qatun, 皇后)으로 삼았답니다.
 자색(姿色)이 아름다운 계집아이를
 회색 이마에 별 있는 낙타(qaljan buyur-a[=buur-a])가 끄는 수레의
 높은 의자 위에 앉히고
 못 사람의 군주로 삼았습니다.” 이수케이 바야토르는 그의 게르로
 가서 목었다. 그 딸을 보니,
 ‘눈에는 불이 있고
 얼굴에는 빛이 있구나!
 우리 집 머느리(beri)가 될 수 있는 여자아이구나!’라고 생각했다.

데이 세첸이 “당신의 아들을 [데릴]사위로 맡기고 가십시오!”라고 말
 했다. 이수케이 바야토르가 자신의 한 아들을, 데이 세첸에게 한 쌍의
 말과 함께 주고, 테무진을 두고 오려고 할 때, “우리 아이는 개를 무서
 워합니다. 잘 보살펴주시겠습니까?”라고 말하고, 돌아오는 길에서 타
 타르 사람들(tatar ulus)과 만나게 되어, 그들이 잔치를 베풀고 있는 것
 을 보고, ‘이들은 위험한 사람들이다. 어찌 피해서 도망갈 것인가!’ 하고
 생각하며 [말에서] 내렸다. 그들은 먹을 음식에 독(qour-a)을 섞어서 주
 었다. [이수케이는] 당황해하면서 집으로 돌아왔다.

‘무서운 10b 타타르 사람들을 만났다.
 맛있는 음식에

독을 섞어서 주었다!’

라며 겨우 숨을 헐떡일 때, 멩칼릭(mengqalig[=mengkelig])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면서 말했다. “콩기라드의 데이 세첸에게 내 아들 테무진을 혼자 맡겨두고 왔다. 빨리 가서 데리고 오너라!” 달려가서 곧장 데리고 왔는데, 도착하기 바로 전에 주군(主君) 이수케이가 돌아가셨다.

‘충명하게 태어난 오진(uujin, 婦人, [우겔룬]) 어머니(eke)

현명하게 태어난 아들들을

자라는 산부추(manggir, 葱)²³로 항상 양육하여

나라의 군주로 만들었다.

엄하게 태어난 오진[우겔룬] 어머니

천명으로 태어난 아들들을

작은 물고기(jiram-a jiyasun)를 잡아서 양육하여

천명을 받은 카안의 자리에 앉혔다.

위엄을 갖추고 태어나신 오진 어머니

오이풀(södün)²⁴과 양지꽃(gičigen-e)²⁵ 뿌리를 캐서

배짱(담력) 있는 아들들을 길렀네.

군세게 태어난 오진 어머니

느릅나무(qayilasun) 꼬챙이를 쥐고

23 라틴학명 *Allium senescens*.

24 라틴학명 *Sanguisorba officinalis*.

25 라틴학명 *Potentilla*.

산마늘(qaliyarsun)²⁶과 산부추(manggirsun)를 캐서 11a

카안이 될 아들들을 길렀다.

어머니가 길러주신 은혜로

훌륭한 남자가 되었네! 우리는

어머니 같은 오논(onun) 강변에서

잔챙이(eremdüg jemdüg)²⁷ 갈겨니(suyusun, 鮠魚)를

둘이서 그물로 몰아 잡아서

은혜로운 어머니께 대접해드렸다.

오논 강 골짜기마다 샘물이 솟고

샘마다 물고기가 있다고 했네!

같이 노력해서 활을 쏘자! 하고, 높은 곳에 올라가 앉았다. 테무진과 카사르는 둘이 함께 우겔룬 어머니에게 말을 했다. “언제나 그물로 잡은 물고기를 벵테르가 빼앗아버렸어요! 오늘은 카사르가 뼈 화살촉(yoduli, 고두리살)으로 잡은 종달새(boljimar)를 빼앗아갔구요. 벵테르와 벨구테이 둘을 죽이자!”라고, 우겔룬 에케는 “어이! 내 아들들아! 옛날에 알란 어머니(alan eke, [알롱 고아])의 다섯 아들처럼 어찌 그렇게 말하느냐? 너희들에게,

‘그림자 말고는 다른 동무도 없고

꼬리 말고는 다른 채찍도 없다’라고 했다.”

26 라틴학명 *Allium victorialis*.

27 현대 몽골어에서는 ‘기형(畸形)’이라는 뜻이다.

그 말씀에 테무진과 카사르는 널문을 열어젖히고 나가버렸다. 나가서 11b 여덟 마리의 서라말(siry-a)을 벡테르가 지키고 있을 때, 테무진은 앞에서 카사르는 뒤에서 벡테르를 포위하며 ‘없애 버리자!’라며 다가가는데 벡테르가 말했다. “너희들은 나를 죽으려면 죽여라! 그러나 내 동생 벨구테이는 제발 죽이지 마라! 너희들에게 꽤 쓸 만한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했다. 벡테르를 죽이고 테무진과 카사르 둘이 우겔룬 에케의 옆으로 오자, 우겔룬 에케가 말했다. “내 아들들아! 너희들은

바위에 달려드는

매(qasuy salbar)처럼,

제 태(qarbisun, 胎)를 깨무는

검등개(qara [=qar-a] noqai)처럼,

눈보라 치는 날 달려드는

젓빛 이리(borte[=börte] činu-a)처럼,

제 새끼(botuyan[=botuyun])의 뒹꿈치 힘줄을 깨무는

수낙타(buyur-a[=buur-a])처럼,

저물면 달려드는

털북숭이 개(baruy)처럼,

잡을 수 없는

호랑이(baras[=bars])처럼. 내 아들아! 무슨 일을 저질렀냐?”라고 묻고 있을 때, 집으로 갑자기 타이초고드(tayičuγud)가 습격해왔다. “너희들과 어미까지 다섯 명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테무진을 이리로 내보내라!”고 12a 타이초고드가 말하자, 테무진은 그 말을 듣고는 오논 강변의 깊은 숲(tung[=tüng]) 속으로 살며시 들어가서 숨었다. 타이초고드

가 알고, 들어간 구멍(sübe)을 지키고 있었다. 숲 속에서 사흘을 지내고 나올 때, 뱃대끈(olung)을 졸라매고 가슴걸이(kömlüdüрге)를 했는데도 말안장(emegel)이 미끄러져 떨어졌다. 그래서 군주는 생각했다. ‘뱃대끈은 그렇다고 해두자! 가슴걸이와 안장은 왜 미끄러져 떨어진 것일까? 나의 하늘이 무언가 알려준 게 아닐까?’ 생각하고, 되돌아가서 [다시] 사흘을 지냈다. 사흘 동안 지내다가 나올 때, 길 위에 단단한 흰 돌이 한 무더기 쌓여 있는 것을 보고, ‘나의 반려자인(anai[=qani]) 아버지 같은 하늘이 무언가 알려주신 게 아닐까?’ 생각하고, 되돌아가서 다시 사흘을 지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이 야흐레를 지냈다. “그렇게 해서 죽든지 살든지 나의 아버지 같은 하늘에게 [내 운명을] 맡기자!”고 말하며 나오니, 타이초고드가 입구를 지키고 12b 있었다.

테무진을 잡아서 [그들이 사는] 집으로 데리고 가서 쇠사슬 차꼬(ginji bayu)를 채워 감시했다. 이집 저집으로 옮겨가면서 가두어두고 있을 때 토르간 시라(toryan sira[=sir-a])의 두 아들인 칠라곤(čilayun)과 침바이(čimbai)가 테무진을 붙잡히 여겼다. 타이초고드는 여름의 첫 달(jun-u terigün sara[=sar-a], 陰曆 4월) 15일 길일(吉日)에 큰 잔치를 하게 되어, 테무진을 가벼운 한 사람으로 하여금 지키게 해두었다. 테무진이 그 사람을 쇠사슬로 때리자 그 사람은 일어나서 소리쳐 불렀다. 소리를 듣고 타이초고드가 소란스럽게 사방으로 찾아다녔다. 테무진은 물에 들어가서 누웠다. 물에 들어가서 눕는 것을 토르간 시라가 보았다. “바로 조금 전의 아이구나! 누워 있는 것이 좋다. 나는 숲을 뒤흔들겠다.

어린 사람은 머리털을 다듬어라.

선한 사람은 수염을 쓰다듬어라!”라고 말했다. 타이초고드는 흠어져 돌아갔다. 킴킴한 밤이 된 뒤에 13a 말 젓(ösüg[=esüg], 마유주)을 젓는 소리로 생명의 은인인 토르간 시라의 집에 들어갔다. 토르간 시라가 말했다. “어이! 테무진! 네 어머니에게 가거라! 여기에는 왜 왔느냐?” 토르간 시라의 아들 칠라곤과 침바이 두 사람이 말했다.

“숨어 들어온 종달새(boljumur)를 덤불숲은 품어주는 것입니다.

쫓겨 도망치는 아이를

곧바로 구해주지 않는다면 우리들에게

양심이라고는 무엇이 있겠습니까?”라고 말하고는 도끼로 쇠사슬을 부수어버리고 테무진을 풀어놓았다. 양털(ungyasu)을 실은 마차에 카다칸(qadayan)이라는 자기 딸과 테무진을 함께 [양털을 실은 마차에] 숨겨놓았다. 타이초고드는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서 “쇠사슬 차꼬를 찬 아이가 어디 갔느냐?”고 물으며 집집마다 뒤졌다. [테무진의] 생명을 구해 준 토르간 시라의 집에 이르렀다. 토르간 시라의 집을 뒤지고 나서, 양털을 실은 마차를 뒤지려 할 때, 토르간 시라의 형(ay-a)이 떨떠름하게 말했다. “이렇게 찌는 여름 더위(jun-u yang)에 13b 산 사람을 양털을 실은 마차에 숨겨두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하자 모두 다 흠어졌다.

그 후에 토르간 시라가, “어이! 테무진! 하마터면 우리 집의 대가 끈 길 뻘했다. 너 때문에!” 하고 말했다. 그래도 하얀 주둥이의 고라말 암컷(ama čayan qulayča)을 테무진에게 줄 때, 걸쳐진 등자(iskülbür) 하나를 풀고 주었다. 두 어미의 젖을 먹는 새끼양(quray-a)을 잡아서, 고기를 익

혀서 양식을 만들어주고, “네 어머니에게 급히 가라!”고 말했다.

그래서 테무진은 급히 가서 우겔룬 에케에게 돌아와서 원래 바람대로 살고 있었는데, 타이초고드가 흔적을 뒤밟아와서 여덟 마리의 서라말을 빼앗아서 가져갔다. 군주는 그 뒤에서, 벨게테이가 타르바간(tarbayan)을 사냥할 때 타고 다니던, 꼬리가 벗겨진 공골말(qongyur)을 타고 쫓았다.

밟힌 풀을 따라서 쫓아가니

나코 바얀(naqu bayan)의 아들 쿨룩 보고르치(külüg boyurči)가 14a

마유주 저장용 가죽부대(namay-a kökür)를 가지고

인기척도 없는 황량한 곳에서 말 젖을 짜고 있을 때,

군주와 맞닥뜨렸다.

보고르치가 물었다. “키요드 씨의 보르지긴 가문 사람인 당신은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군주는 “내 여덟 마리의 서라말을 타이초고드가 가져간 흔적을 따라서 왔다. 나는!”하고 말했다. 나코 바얀의 아들 쿨룩 보고르치는 빠른 열은 노란 점박이말(čoqur morin)에 군주를 태우고 많은 말떼 속에 가서, 자기는 열은 회색빛이 도는 서라말(oruy saryul [=siryul])을 타고 군주와 함께 찾아서 타이초고드에 이르렀다. 이때 여덟 마리의 서라말을 많은 사람이 둘러싸고 잠들어 있는 것을 보았다. 군주는 보고르치에게 말했다. “보고르치! 너는 말을 붙잡고 있어라. 내가 들어가마!” 보고르치가

“복된 좋은 날엔 따랐다.

당신이 싸우는(bulq-a) 날에

빠져나간다면 여기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라고 말했다. 군주는 14b 보고르치의 말이 옳다고 여겨서, 둘이 같이 들어가서 여덟 마리의 서라말을 몰고 나왔다. 여덟 마리의 서라말을 데리고 오는데, 라코 바얀(laqu bayan)²⁸이 돌아오는 길 위에 있었다.

앞에서는 웃고

뒤돌아서서는 울며

“내 아들이! 너는 가는 것을 멈추지 마라!”고 말하며, 두 어미의 젖을 먹는 새끼양(tel[=telege] eketü quray-a)을 잡아서, 양식으로 하라고 주어보냈다. 군주는 여덟 마리의 서라말을 우겔룬 [에케] 어머니에게 데리고 왔다. 돌아온 뒤에 칸의 높은 자리에 올랐다. [이분이] 하늘에서 천명을 받고 태어나신 테무진(temüjin) 칭기스 카안(činggis qayan)이다. 부처님이 열반(nirvana)에 드신 후 3250여 년(yurban mingyan qoyar jayun tabin ilegü [=ilegüü] jil)이 지난 뒤, 열두 명의 나쁜 칸들이²⁹ 태어나서 중생을 괴롭히고 있을 때, 그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부처님에게 예견

²⁸ 앞에서는 나코 바얀(naqu bayan)으로 두 차례 나옴.

²⁹ 몽골 사료에서 열두 명의 ‘나쁜 칸’들은, 타이초고드 부의 키릴룩, 지루켄 부의 사차 베키, 고르반 메르기드 부의 톡타가 베키, 케레이드 부의 웅 칸, 자지라드 부의 자모카, 카를리고드 부의 아르슬란 카안, 오이라드 부의 코토키 베키, 코리 투메드 부의 부두쿠이 타르쿰, 오이고드 부의 이토고드, 나이만 부의 타양 칸, 타타르 부의 메구진 세굴투, 지로고간 주르치드 부의 창춘(章宗) 카안을 가리킨다.

(biwanggirid, 豫見)이 주어져서, 칭기스 카안이 태어났다고 한다. 15a

오색(tabun öngge, 五色)³⁰ 사이(dörben qari, 四夷)의³¹ 백성을 비롯하여 이 세상(čambutib [=zambutiib])의 361종족(γurban jayun jiran nigen omuytan)과 720언어(doluyan jayun qorin keleten ulus)를 사용하는 [많은] 나라 백성에게서 공납(alba γubčiyur)을 받아,

손은 땅을

발은 흙을

편안하게 해주고, 전륜성왕(čagrawardi qayan, 轉輪聖王)처럼 알려지셨다. 천명을 받으신 칭기스 카안은 검은 뱀띠 해(qar-a moyai jil, 壬巳)에³² 태어나셨다. 마흔다섯 살 때인 붉은 호랑이띠 [해](bing barsa [=bars] [jil], 丙寅)에, 오논 강 상류에 ‘아홉 깃대에 올린 흰 독[麤]’(yisün költü čayan tuy)를 세우고 카안의 위대한 자리에 올랐다.

카사르(qasar) 군주가 피해서 도망가는 것을 수베에테이 바야토르(sübegedei bayatur)로 하여금 쫓게 하고 있을 때, 나라의 군주는 칙령(勅令)을 내리시고 다음날(manayar) 이른 아침에 말하기를,

³⁰ 대몽골국 시기에 몽골의 통치하에 있던 주요한 나라들을 가리킨다. 푸른 몽골, 붉은 중국, 검은 티베트(탕고드), 하얀 솔롱고스(고려), 노란 사르타골(오이고르).

³¹ 대몽골국 시기에 몽골의 지배를 받았던 아시아의 작은 왕국들이나 먼 나라를 가리킨다.

³² 원래 60갑자(甲子)에 이런 해(壬巳年)는 없다.

“거세마(ayta)의 대가리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나오는 것 같고,
 이마(manglai)의 달 모양,
 모자의 금강(očir [=wčir], 金剛) 정자(頂子)가 된,
 갈대로 엮은 광주리(čig)처럼 잘 짜여지고,
 돌처럼 강한,
 나를 따르는 위대한 동무들이여!
 대나무(qulusun, 竹)처럼 15b [빈틈없이] 늘어선
 성처럼 둘러싼,
 나의 부하 군사들이여! 들어라! 너희들은.
 평상시에 갈 때는 두 살배기 송아지(idem biruyu [=birayu])처럼 가라!
 적극적으로 공격할 때는
 사냥매(idelkü sibayun, 익더귀)처럼 돌격하라!
 놀며 즐기며 갈 때는
 어린 망아지처럼 가라!
 이리저리 싸울 때에는
 난추니처럼 덤비면서 가라! 너희들!
 앉았다 쉬었다 갈 때는
 연약한 두 살배기 송아지처럼 가라!
 활을 쏘며 공격할 때는
 송골매처럼 공격해라!
 벋들과 사귀며 웃으면서 지낼 때는
 느린 두 살배기 송아지처럼 가라!
 외적과 활을 쏘며 공격할 때는

갈지계처럼 덮쳐 공격해라!
끓주린 호랑이처럼,
배고픈 독수리처럼 덮쳐 공격해라!
밝은 날에는 맹수 수컷처럼 살피며 가라!
검검한 밤에는 검은 까마귀처럼 굳세게 16a 가라!
카톤인 여인이 시기하는 것처럼
질투하면서 가라! 너희들은!”이라고 하셨다. 수베에데이 바아토르가
아뢰기를,

“할 수 있는 한 찾아봅시다.

할 수 있는 한 일단 가봅시다.

나의 군주시여!

하늘이 복을 주시겠지요!

못난 소신(小臣)에게도

운이 있겠지요!”라 하고 찾으며 쫓아가서, 카사르 군주에게 수베에

데이 바아토르가 고하기를,

“젓을 물린 어미에게서 떨어져서

푸른 철갑옷을 걸치고

적대적인 사람의

동무가 되는가? 너는!

사랑하는 어머니에게서 떨어져서

검은 철갑옷을 걸치고

이방인의

동무가 되는가? 너는!
친척에게서 떨어지면
적대적인 사람의 먹이가 되는 것이다.
친족에게서 떨어지면
모든 몽골인의 먹이가 되는 것이다.
많은 친족에게서 떨어져나가면
고아의 먹이가 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16b 분열하면
떨어져나간 사람의 먹이가 된다.
형제끼리 함께 가면,
[형제의] 모습을 보면서 죽으면

서로 뼈를 거둘 수 있다! 너는 이리 오거라!” 하였다. 카사르 군주는,
“카안이신 나의 형님께서는, 이 카사르가 쉬운 일과 어려운 일에 모든
힘을 바친 것을 잊고, 저를 평민처럼 여겨 못한 이 몸을 버리셨습니
다!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수베에테이 바이토르가 말하
기를,

“이동할 때 이용할 수레가 있어도
푸른 밝은 빛이 있는 것을 얻을 수 있지만,
젖을 물린 어머니와 친척은 얻을 수 없지요!
세상의 모든 금과 은을 얻는다 해도
이름을 지어주고 키워주신 자당(慈堂)과
사랑하는 동생과 형들을 다시 얻지는 못합니다!
수많은 피부색의 백성들을 얻는다고 해도

태어나 같이 자란 친인척들은 다시 얻지 못한다고 합니다!”라고 하였다. 17a

이 말을 카사르 군주는 옳다고 여겼다. 제 어머니의 땃줄을 언급하자, 이렇게 가버리면 어찌나! 되돌아가야겠다고 왔다.

타이초고드 사람인 베리 부케(beri böke)는 나쁜 생각을 하여, 자기 집안에 구멍을 파고 그 위에 용단을 덮고는,

“일족으로 태어난 우리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한몸입니다.

서로 사이 나쁘게만

지낼 수야 있습니까?”라고 말하며 주군을 자기 집에 초대할 때, 우렐렌 에케는,

“헤치는 적이 적다고,

독 있는 뱀이 가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민지 말고 조심하라!”고 말했다. 성군께서 명령을 내리시길,

‘활썌씨 좋은 카사르(qabutu qasar), 너는 화살통을 지켜라!

힘센 벨구테이(böke belgetei) 너는 심판이 되어라!’라고,

‘카초고(qačuyu) 너는 말(馬)을 지켜라!’

‘지혜로운 은치긴(o[t]čigin) 너는 내 옆에 앉아라!’라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말씀했다. 군주는 집에 들어가서 용단 가운데 앉으려고 17b 할 때, 은치긴은 군주의 몸을 잡아끌면서,

“머리고기를 먹는다면 귀부터

방석을 깎다면

귀통이에 앉는다고 한다!”며, 바닥 깔개 가장자리에 앉혔다. 이때 한 여인이 절뚝거리며 와서 왼쪽 등자를 몰래 끊어가는 것을 벨구테이가 보고, 그 여자의 다리를 세계 내리쳤다. 그들 중에서 부리 부케는 벨구테이의 어깨를 후려쳤다. 이렇게 상황이 험악해졌을 때, 카사르는 화살을 세고 있었다. 벨구테이가 아이락(airay) 가죽 부대로 치고, 코르친의 톡타코의 새끼를 뱀 적 없는 암말에 군주를 왼손으로 잡아서 태웠다. 불임인 흰 말의 도움으로 나갈 수 있게 되어, 톡타코에게 면역권(免役權)을 주었다. 이로부터 그들은 다르카드(darqad)라는 씨족이 되었다. 그리고 ‘뵘히 보면서도 등자를 끊게 했다!’고 카초코를 18a 질책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벨구테이를 잡아서 넘어뜨리지 못하고 선 채로 마차에 묶어 놓았다. [탐에] 사람들이 잔 뒤에 마차를 등에 짊어진 채로 돌아왔다.

성군(boyda ejen)께서는 “타이초고드와 다툼 때 벨구테이는 나를 개의치 않는 듯이 왼손으로 잡아서 말에 태웠다.”고 꾸짖었다. 그러자 카사르와 벨구테이 둘은 “이는 군주의 까닭 없는 통치 명령이시다.

카사르의 활숨씨, 벨구테이의 강한 힘으로

오색 사이의

많은 나라를 우리 통치하에 들였다!”라고 서로 말하는 것을, 군주가 아시고 “이들의 기고만장한 성질을 다스리자!”고 말하며, 보잘것없는 노인이 되어서, 기다란 노란 각궁(urtayčün sir-a numu, 長角弓)을³³ 가

져와서 ‘활 팝니다!’라고 찾아다니며 지나갔다. 그러자 카사르와 벨구테이 둘은 “보지도 못한 이 노인은 어디서 18b 온 사람이냐?”고 물었다. 그 노인이 말하기를 “나는 가난한 사람ियो. 활이나 팔고 있소이다!”고 했다. 여기서 그들 둘은 “당신의 이 활을 사라는 것이냐?”고 모욕했다. 그러자 그 노인이 말하기를 “나빠 보이겠지만, 활시위나 당겨보고서 말하십시오!”라고 했다. 그래서 벨구테이가 [활을] 받아서 시위를 당겨봤지만 도저히 당길 수 없었다. 그 노인은 시위를 당겨서 카사르에게 주었다. 카사르도 당길 수가 없었다. 그랬더니 그 노인은 이마에 줄무늬가 있는 푸른빛이 감도는 노새(köke qaljan luusa[=layusa])를 탄 백발 노인으로 변해, 기다란 노란 각궁 시위에 황금 화살(altan toyuna)을 메긴 후, 바위를 겨누어 관통하도록 쏘고는, “성군의 활숨씨 좋은 카사르(qabutu qasar)와 힘센 벨구테이(böke belgetei)라는 동생이 너희 둘이구나!”.

“큰소리치기까지

입을 꼭 다물고 있으랬다!”며 꾸짖고 갔다. 그래서 두 아우는 두려워하며 19a “이는 필시 군주의 화신(sülde)일 게다.”라고 서로 말했다. 이후에 그들은 그런 말을 하는 것을 그만두었다.

앵구드(enggüd)의 오란 칭쿠이(uran čengküi)는 서른하나의 부락(otuy)을 이끌고, “해가 떨어진 후에는 이방이 된다!”라고 말하며 떠나갔다. 군주와 카사르 둘이는 쫓아가서 잡았다. 그때 군주의 훌륭한 흰

33 물소뿔(水牛角)을 활고자에까지 붙인 활.

색 사인 사무친(sayin čayan samučin, 馬)을 카사르가 타고, 그의 아들
 툽통가 바야토르(toytungya bayatur)를 데리고 선두에 서서, 훌륭한 [흰
 색] 사인 사무친이 피곤한 절따말처럼 [몸 색깔이] 붉게 변할 때까지 분망
 (奔忙)하게 뛰어다니며 진압하고 잡아왔다. 그래서 카사르는 볼볼룬
 (bolbulun, 불바라)이라는 여자를 상(sang)으로 얻었다.

그 뒤 오란 칭쿠이는 코빌간(qubilyan, 化身) 세첸 카안(sečen qayan)
 에게 유리로 만든 탐(sil subury-a)을 선물했는데, 그는 알탄(altan)이라
 는 자기 딸을 주었다. 그리고 알탄 고르골다이(altan γuryul dai, 피꼬리)
 라는 이름의 딸을 솔롱고드(solungγud) 부의 나란 카안(naran qayan)에
 게 주었다. 성군에게 보리야드(buriyad)의 오로 시구시(oru sigüsi)가 대
 바이칼(yeke bayiyal) 19b 에서 난추니(način)를 잡아서 [군주에게] 선물
 했다. 그래서 오로 시구시에게 보리야드를 통치하도록 했다. 그런 후에
 군주는 난추니를 데리고 올코이(olqui) 강에서 올라(ula) 강으로 갈 때,
 주르치드(jurčid, 女直)의 왕촌 카안(wangčün qayan)이³⁴ 도망가서는 다
 시 오지 않았다. 군주는 돌아가서 군사를 이끌고 싸우러왔다. 올라 강
 에는 얇은 여울(olum)이 없었다. 그래서 카사르의 손자(ači) 카도 시리
 (qadu-siri[=qadusira])와 갈자고(γaljayu) 칭 타이지(čing tayiji)는 이만
 필의 말 재갈 고리(čayarig)를 서로 연결시켜 소리를 지르며 성을 점령
 하고 “만 마리의 제비(qariyačai), 천 마리의 고양이(mayuru[=miyui])를
 공물(alba)로 바쳐라!”라고 말하여 그것을 받았다. 그리고 제비 [꼬리]에
 마포(kiyabung)를 묶어 달았다. 고양이에게는 숨(köbeng)을 매달아 묶

34 금(金)나라 장종(章宗).

어서 불을 붙였다. 제비는 제 등지로 돌아가고 고양이는 건물 [지붕] 위로 올라갔다. 고양이와 제비들이 붙인 불로 20a [성을] 태웠다. “괴상한(jig) 것인가? 간계(bači)인가?”라고 왕촌 카안이 말을 했다. 성군께서는 왕촌 카안의 딸 잘라카이 카톤(jalaqai qatun, 公主)을³⁵ 얻었다. 그러나 그 카톤[공주]은 돌아오는 도중에 죽었다고 한다.

성군께서 해가 뜨는 동쪽 솔롱가(solungya) 나라로 출정하여 나아갈 때, 우네젠(ünegen) [강]이 범람하여 군주 자신과 대군이 [강을 건너지 못하고] 이쪽에서 머무르고 있었다. 그래서 사신을 보냈다. 성군께서는 “조세를 바치라고 왔느니라!”고 솔롱고드(solungyud)의 [보카 차간] 카안 [왕](qayan)에게 말했다. 군주의 그 말씀에 솔롱고드의 보카 차간 카안은 자신의 콜란(qulan)이라는 이름의 딸을 중궁(jüngken, 中宮)으로 바치고, 호피(baras [=bars])를 두른 게르와 더불어 보카, 솔롱가 두 부락의 백성들을 혼수(inji, 婚需)와 함께 배(ongyuča)로 실어가지고 왔다. 그래서 성군께서는 솔롱고드의 보카 차간을 비롯하여 고관(noyad) 대신(sayid)들 모두에게 강 건너로 크게 소리쳐 20b 말씀했다. “너희들이 내게 공납(alba, 貢納)을 바치게 되면, 이쪽으로 그쪽으로 교류하자!”라고 명령을 내리심에 따라 그 명대로 되었다.

그 뒤 성군과 콜란 카톤 둘이서 베개를 같이 하려 할 때, 보고르치가 아뢰었다.

³⁵ 금나라 위소왕(衛紹王)의 딸 기국공주(岐國公主).

“밖에서 두 분이 베개를 같이 하신다면
규칙이 없어질 것입니다.
자그마한 게르에서 같은 베개를 하신다면
질서가 없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보살피면

어떠신지요?”라고 모든 대신들이 상주했다. 그러나 그러한 말에 따
르지 않고 베개를 같이 했다. 그때 솔롱가 나라에서 삼 년을 머물러 계
셨다. 아르가손 코르치(aryasun qorči)에게³⁶ “[나를 대신하여 잠시] 나라
를 다스리라!”고 [통치하는 자리에] 앉혔다. 집에서는 ‘성군께서는 무엇
때문에 [오래] 머무르는가?’라고 아르가손 코르치를 절따말(jegerde) 세
필에 태워 보냈는데, [아르가손 코르치는] 한 달이 걸려 갈 곳을 사흘 만
에 이르러 21a 우리 군주께서는 “안녕하십니까?”라고 물었다. “안녕하
시다!”고 신하들이 말했다. 그 신하들은 “황후들과 왕자들, 모든 백성
이 다 안녕하냐?”고 물었다. 보로[아르가손] 코르치(boru qorči)가,

“여러분의 카툰들, 왕자들 평안하십니다.
당신의 모든 백성의 성정(性情)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여인네들과 자식들도 모두 평안합니다.
당신의 이렇게 위대한 백성들의 성정을 알지 못했습니다.
열린 입에 나무껍질과 물고기 껍질을 얻어넣었습니다.
당신의 모든 백성의 성정을 알지 못했습니다.
마른입에 물과 눈을 얻어마셨습니다.

³⁶ 활을 가진 시위병(侍衛兵). 전통사(箭筒士).

당신들 몽골인의 기질을 몰랐습니다.”라고 상주하니, 군주는 이해하지 못하고 “다시 말하라!”고 했다.

아르가손 코르치가 다른 말로,

“나뭇가지(sala[=salay-a] modun)에 발톱이 사나운 새(salbar sibayun)가 알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 나뭇가지에 의지해서 살다가

사나운 매에게 꼬리를 물려 21b 보금자리가 부서졌다고 합니다.

갈대(qulusu) 있는 호수에 고니(qung γalayun)가 알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 갈대에 의지하며 살다가

못된 개구리매(qulatu) 새에게 보금자리가 부서져 알과 새끼가 잡아 먹혔다고 합니다.

나의 성군이시여! 하명하시라!”고 상주(上奏)하니, 군주가 “코르치가 한 말을 알아들었는가? 너희들은!”이라고 했다. 관인들은 “알아들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군주는 친히 알아들으시고 말씀하셨다.

“나뭇가지라 함은 나의 모든 동무들이다.

발톱이 사나운 새라 함은 나의 몸이다.

사나운 매라 함은 솔롱고드의 인민이다.

꼬리[알과 새끼]라 함은 나의 카톤과 왕자들이다.

보금자리라 함은 평화로운 나의 나라다.

갈대 있는 호수라 함은 나의 모든 위대한 백성이다.

고니라 함은 나 자신이다.

개구리매 22a 새라 함은 솔롱고드의 백성이다.
알과 새끼라 함은 나의 카톤과 왕자들이다.
둥지라 함은 평화로운 나의 나라다!”라 하시고, 황금 고삐(altan jiluyā=[jiluyū])를 잡았다. 성군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의 부르테겔진(börtegeljin) 카톤은
어릴 적에 만났었다.
[그녀의] 얼굴을 보는 것은 어려웠다.
집에 들어가면
우리 집은 좁을 것이다.

안사람과 상의하지 않았다. 모르는 사람 앞에서 얼굴이 붉어지며 화
를 낸다면, 부끄러워하고 무서워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내 아홉 명의
장수(örlügüd, 將帥)들 중 한 사람이 가서, 말을 전하고 오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잘라이르(jalayir) 부의 모칼리(muqali)는 군주의 명으로 가서 도착하
여, 부르테겔진 카톤에게 인사를 드리고 앉았다. 거기서 카톤께서는 이
렇게 말씀하셨다. “나의 군주께서는 안녕하십니까? 너는 왜 왔느냐?” 군
주께서는 안녕하십니다. “군주의 22b 명령을 알려드리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바로 세우신 정치대로 행하지 않았습시다.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셨습니다.
원로대신들의 충언에 따르지 않으셨습니다.

어리고 모자란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호피 집의 색정에 빠져
성군께서는 콜란 카톤과 동침하셨습니다.”라고 말하자, 부르테겔진
카톤은,

“나의 주군의 힘이니라!

통치하에 있는 모든 몽골의 희망이니라!

나의 성군의 힘이니라!

이들 모두의 바람이니라!

에르치스(erčin[=erčis], 이르티시) 강변에는

야생 노새(qulan čikitei)가 많다고 한다.

엄지손가락이 부르틀 때까지 활을 쏘는 것을

나의 군주는 아시리라.

아주 큰 나라에는 계집아이와 여인이 많다고 한다.

찾아서 취할 것을

나의 군주는 친히 아시리라.

갈대가 있는 호수에는 고니가 많다고 한다.

손가락이 부르틀 때까지 활을 쏘는 23a 것을

나의 군주는 아시리라.

세상의 큰 나라에는 계집아이와 여인이 많다고 한다.

나의 군주는 찾아서 취할 것을 스스로 아시리라.

명궁(名弓)은 강변에 있는 오리 두 마리를

한꺼번에 쏜다고 한다.

남자가 원한다면

자매 두 사람을 함께 얻는다고 한다.

길들이지 않은 말(emlig[=emnig] morin) 위에

안장을 얹으라 했나?

여인 옆에

[다시] 여인을 얻지 않는 것은 잘못인가?

넘치는 것은 나쁘고

부족한 것은 좋은가?

델(degel[debel])을 겹쳐 입으면 춥지 않다고 한다.

세 겹의 끈(degesün)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얇은 것보다 두꺼운 것이

하나보다 둘이 좋다고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 모칼리가 카톤의

말씀을 카안에게 와서 아뢰었다.

좋은 말씀을 듣고

지체하지 않고 도착하여

카안과 카톤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즐겁게 23b 마시며 즐겼다.

거기서 아르가손 코르치는 독한 술(arajan[shimiin arkhi])에 취해서,
황금으로 만든 호금(altan qor, 胡琴)을 들고 다른 곳에 유숙했다고, 성
군께서는 보고르치·모칼리 둘을 ‘오라!’고 요구하셨다. 아르가손 코르
치를

“소리 없이 불러서

말하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고 보냈다. 보고르치·모칼리 둘이 가서, “아르가손 코르치! 너는 독한 술에 취해서, 황금으로 만든 호금을 들고 다른 곳에서 유숙했다고,

소리 없이 불러서

꾸짖지 말고 죽이라!”고 보낸 것이라고 하자, 아르가손 코르치가

“죽이는 사람의

말은 듣는다고 한다.

죽을 사람은

말한다고 한다.”라고 말하자 그 두 관리는 그를 죽이지 않고,

천명을 받은 [사람의] 술을

겨드랑이 밑에,

권력 있는 사람의 술(erketü-yin sarqud)을

그의 가슴팍에 들리고

데리고 오니, 24a 군주는 주무시고 계셨다. 보고르치와 모칼리가 밖에서

“당신의 빛나는 큰 궁궐(ordu)에

빛이 들고 있습니다.

집에 있는 딸과 아들들을 깨웠으면,

죄지은 사람과 별받을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아침햇살같이 명령을 내리셔서 선포했으면,

당신의 위대한 옥궁(qas yeke ordu)에 빛이 들고 있습니다.

문(qayalyan)에서 자고 있는 딸과 아들들을 깨웠으면,
당신의, 고통받고 아파하고 있는 자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옥처럼 빛나는 명령을 내렸으면.”이라고 아뢰자, 군주께서는 일어나
셨다. 아르가손 코르치를 앞에 데리고 들어갔다. 군주는 아무 말씀이
없었다. 보고르치가 아뢰기를, “아르가손 코르치가

‘죽이는 사람의 말을 [듣고,
죽을 사람은 말을 한다.’라고 해서 데리고 왔습니다.”라고 하자, 카
안께서는 말을 하라고 24b 세 번이나 꾸짖으셨다. 그러자 아르가손 코
르치가 스스로

“[개똥]지빠귀(dalan keletü čayčaqa)가 지저귀며 노래할 때
수리부엉이(jayalmai[jayalai])가 공격해오면 술을 곳을 찾지 못한다고
합니다.

천명을 받고 태어나신 군주께서 꾸짖으며 살피시면

깍소리도 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열 살 때부터 지금까지

당신의 황금으로 만든 호금(胡琴)을 지켰습니다.

당신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무뢰하고 나쁜 성격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독한 술(arajan)에 실수를 저지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독한 술을 잘 못한다고 해서

당신의 황금으로 만든 호금을 들고

분에 넘치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스무 살 때부터 지금까지

당신의 버드나무 호금을 수호했습니다.

깊이 있는 당신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경박한 나쁜 성격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아주 독한 술(qorujan)에 실수를 저지른 것은 사실입니다. 25a

그러나 독한 술에 실수를 저질렀다고 해서

당신의 버드나무 호금을 들고

주제넘은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군주께서 무거운 벌을 내리신다면

손바닥 크기의 땅에 눕겠습니다!

용서하신다면 힘을 보태겠습니다.

성스러운 대지를 달리는 짐승들 중에

야생 노새(qulan)보다 빠른 것은 없다고 합니다.

쿠쿠이 칸[잔] 남쪽에서 나는 새 중에

푸른 갈지계보다 더 빠른 새는 없다고 합니다.

그것들처럼 빠르지 않다면, 제가

할 수 있는 한 힘껏 늘인 가죽처럼

붉은 버들처럼 죽을 힘을 다해 힘을 보태겠습니다!”라고 아뢰자,

“좋은 말재주 덕분에 살아남은 나의 아르가손이여!

재치있게 말해준 덕분에 살아남은 나의 코르치여!”라고 말씀하시어
죽이지 않고 말씀을 널리 알리시고 산회시켰다.

성군이 키타드 국(kitad ulus, 중국)을 정복하시고, 알탄 카안(altan qayan, 금 황제)의 제위를 빼앗은 것을 탕고드(tangyud)의 25b 시도로고

카안(siduryu qayan)이³⁷ 듣고 두려워하여, 바얀 사르타고르(bayan sartayur)의 아들 도르동(dordung)을 ‘당신의 오른손이 되어 공물을 바치겠습니다’라고 하여 사신으로 보냈다. 그 사신이 군주에게 상언하고 돌아올 때, ‘성군께서는 하늘의 아들(tengri-yin [=tngri-yin] köbegün)이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의 황후보다] 우리 황후가 훌륭하시다. 그분의 빛으로 밤에 등불이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돌아갔다. 성군께서는 타이초고드의 야보가(yabuγ-a)의 처 몽굴룬 고아(mong γol-un [=mönggöl-ün] γou-a)를 데리고 살려고 했다. 도르동의 말을 야보가가 듣고 군주에게 말하기를 ‘제 처 몽굴룬 고아보다 키타드의 장기나니 세첸 노미다이의 딸인, 탕고드의 시도르고 카안의 구르벨진 고아(gürbeljin γou-a)라는 이름의 카톤의 빛 때문에 밤에 등불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녀를 얻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26a 상언했다. 카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후 “사르타굴 국(sartayul ulus)으로 나는 원정길을 떠난다. 출정하라!”고 시도르고 카안에 사신을 보냈다. [시도르고 카안에] 그 사신에게

“세상 모두를 정복하지 않았으면서
 ‘카안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무슨 까닭이냐?
 카안이란 사람에게 동지가 왜 필요한가!”라고 말하고는 따르지 않았다. 그 말을 듣고 군주는,

³⁷ 서하(西夏)의 군주 이안진(李安金, 襄宗, 재위 1206~1211)을 가리킴.

“황금 같은 목숨이 다할 때까지
너를 가만히 놓아두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사르타골의 술탄 카안
(sultan qayan)을 죽이고 그 나라를 정복하고 [말 등에서] 내렸다. 그 원
정에 콜란 카톤을 데리고 출정했다고 한다. 그 후에

나코이 울코(naqui ulqu)에서 대회맹을 열어
아버지 이수케이 바야토르의 영혼을 모신 깃발을 성스러운 곳에 모시고
아홉 깃대에 올린 흰 독(tuy, 纛)을 가져다 꽂고 26b
대연회를 열고 있을 때
지고하신 아버지 코르모스타 텡리(qurmusta tengri [=tngri])께서
성군께

이전의 공덕의 힘으로
보옥(寶玉) 술잔에 신성한 술을 가득 하사하셨다.
두려워하듯이, 성군께서
받들어 마시고 있을 때 말씀을 하셨다.

“네 명의 아우들은
형에게는 열이라면,
동생들에게는 넷이라고 합니다.

아~! 우리의 주군이시여, 많이 드시고 가여운 저희들에게도 조금만
하사해주시길! 대명천지에 굽어 살피주십시오!”라고 아뢰자, 성군께서
는 네 명의 동생들에게 말씀을 하셨다. “일찍이 내가 태어날 때 오른손
에 용궁의 옥새가 부처님의 명에 의해 주어졌다! 이번에는 코르모스타
텡리께서 보옥 술잔에 신성한 술을 가득 하사하셨다. 천명을 받은 군주
는 내가 아닌가 하고 27a 생각한다! 마시겠다면 자 어서! 여기 있다.”

라며 하사하셨다. 동생 넷은 받아서 마셨으나 입에는 들어가도 목구멍으로는 내려가지 않았다. 그래서 동생 네 명은 군주께, “천명을 받으신 군주께 천명을 받지 못한 저희들은 당치도 않게 대들었습니다. 당신이 다스리는 마을의 공납을 관리하는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군주께서 드시지요!”라고 절을 하며 말씀을 올렸다. 군주께서 받아서 드셨다. 그 신성한 감로주에 성군께서는 조금 취하셔서 말씀하시기를, “일찍이 내가 태어날 때 오른손에 용궁의 옥새가 부처님의 명에 의해 주어졌다! 이번에는 코르모스타 탱리께서 보옥 술잔에 신성한 술을 가득 하사하셨다. 천명을 받은 군주는 [바로] 나다! 하고는, 탕고드 백성을 정복하겠다!”라고 명령을 내리셨다.

시도르고 카안의 검은 콧등을 한 황색 쿠벨렉(köbeleg)이라는 이름의 개는 예언자(yiruči[=iruči])라고 27b 하며 성주가 아홉 깃대에 올린 흰 독(yisün köl-tü čayan tuy)을 바르게 쫓고 세 차례 출진하여 머물렀다. 그 개가 ‘안녕, 평화, 행복’이라고 짚으면 적이 없었고, 울부짚으면 적이 있었다. 그 개는 군주의 출정을 알고 세 차례나 마구 울부짚어댔다. ‘내 개는 늙어서 그의 예지력이 없어졌다’며 의심 없이 지냈다. 그 뒤 보병(yabaγan čerig)을 개띠 해(noqai jil)에 보내고, 돼지띠 해(yaqai jil)에 성군께서는 유수이 카톤(yusui [=yüsüi] qatun)을 데리고 출정하여 군사들을 지휘하며 친히 출정하셨다. 성군께서는 모나 산의 봉우리(mon-a qosiyun)를³⁸ 보고

³⁸ 네이멍구자치구 바얀노르 맹(盟) 오라드 기(旗)에 있는 산. 그 남쪽에 황하가 흐른다고 한다.

“난세에는 피난지가 될 만한,
 태평한 시절에는 살 곳이 될 만한,
 회백색 반점이 있는 사슴(öle[=ölü] qaljan buyu)은 살 만한,
 노인이 늙을 때까지 살 만한 [곳이구나!]” 이라고 28a 말씀했다. 나무
 위에 앉은 기분 나쁜 소식을 전하는 올빼미(uɣuli)를 보고, 군주는 카사
 르에게 ‘쏘아라!’라고 말씀하셨다. 카사르는 쏘았다. 올빼미는 날아 도
 망가고, 그 사이로 까치(siyajayai [šayajayai])가 날아들어서 날개에 정통
 으로 맞았다. 군주는 쏘지 못하게 하고 칼을 들어올렸다. 군주께 바르
 고오다이(baryuudai) 부의 우물룩 노얀(örlüg noyan)이 아뢰기를

“좋은 일에는 원인이 있고
 나쁜 일에는 결과가 따른다고 합니다! 군주께서 알아서 하시기 바랍
 니다.”라고 했다. 군주는 인정하시고 말씀하셨다. 그 후 노복(boyul)인
 마부(köteči[=kötüči) 메친(mečin)이 “당신 동생인 카사르는 술을 마시
 다가 콜란 카톤의 손목을 잡았습니다.”라고 군주께 말했다. “카사르
 에게서 독수리(qačir tas)의 깃털을 가지고 오너라.” 하고 노복 메친을
 보냈다.

“만백성의 군주인 카안이라 할지라도,
 독수리의 깃털을 구하는 것은 내가 잘한다!”라고 말하고는, 독수리
 깃털을 주었다. 그윽음이 묻었다고 가지고 가지 않았다. 28b 검은 대
 머리 독수리(qar-a qaljan)를 죽여서 가지고 오라고 노복 메친을 다시
 보냈다. 검은 대머리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을 보고, “새가 빙빙 맴돌고
 있는데 어디를 쏘면 좋은가?”라고 노복 메친에게 물었다. 노복 메친은

말하기를

“검은 곳과 노란 곳의 사이를 쓰라고 말했다.

그 콧등을 맞춰 잡아서 바쳤다.

카안이신 분에게 도리에 맞는

독수리의 털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이것은 아니다. 검은 대머리 독수리다. 피가 묻었다!”고 하며 가지고 가지 않았다. 그래서 군주는 노하셔서 “전에는 일곱 콩코탄(qongqutan)들과 죽이 맞아 다녔다. 그 뒤에는 기분 나쁜 소식을 전하는 올빼미를 죽이라고 했는데, 좋은 소식을 전하는 까치를 죽였다. 지금은 또 독수리의 깃털을 주지 않았다!”고 네 사람에게 지키게 하고 짐승[코벨소]이나 먹는 먹이를 주고, 울타리가 처진 우물에 묶어 29a 두었다.

강카이 카안(qangyai qayan) [산]에서 큰 사냥(yeke aba)을 할 때 “젓빛 푸른 늑대(börte činu-a)와 열은 노란색 사슴(quu-a maral)이 들어올 거다. 그것을 죽이지 말라! 청회색[의] 말(köke boru mori)을 탄 곱슬머리의 사내(bujigir üsütü qar-a kümün)가 들어올 거다. 그 사람을 사로잡아라!”고 말씀했다. 젓빛 푸른 늑대와 열은 노란색의 사슴이 들어왔어도 죽이지 않고 내보냈다. 청회색 말을 탄 사람을 잡아서 “너는 누구의 사람이나?”고 물었다. 그는 말하지 않았다. 군주에게 데리고 갔다. 군주께서 물었다. 대답하기를 “몽골의 성군께서 군사를 이끌고 출정했다고 하여, 시도르고 카안이 저를 첩후(qarayul)로 보냈다.”고 하였다.

“빠른 말에 따라잡히지 않는

쿠세발라드(kösebalad)의 청회색 말(köke boru mori)입니다. 지쳐서 따라잡혔습니다.

네 발굽은 다 달아버렸습니다.

사내에게는 지지 않는

뭉든지 이빨로 찢는 ‘보동(bodung, 멧돼지)’이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검은 머리 사람에게 졌습니다. 29b

제 검은 머리도 다했습니다.”

성군께서 물었다. “너의 군주는 화신이라고 들었다! 진실을 말하라!”
보동이 말하기를, “아침에는 독이 있는 노란 반점이 있는 뱀이 되는데 그때는 잡을 수 없다. 낮에는 갈색 반점이 있는 호랑이가 되는데 그때는 잡을 수 없다. 저녁에는 아름다운 노란 늑은이가 되어서 [구르벨진 고아(gürbeljin you-a)] 카톤과 더불어 즐기고 있다. 그 때에야 그를 잡을 수 있다!”고 했다. 그렇게 그 사람의 말을 다 듣고 나서 성군께서는 탕고드 나라의 국경에 다다랐을 때, 시도르고 카안의 나찰(rags-a, 羅緝)을 선조로 하는 노파가 몽골의 병사를 맞이하러 나와서 병사와 편마(종마)를 한꺼번에 살해했다. 군주에게 수베에데이 바야토르가 상주하기를, “이 노파는 나의 군사와 편마를 한꺼번에 죽였습니다. 활을 잘 쏘는 카사르를 감옥(jasay, yal-a)에서 꺼내주세요!”라고 30a 했다. 군주는 동의하시고, 자신의 나는 듯이 빠른 고라말에 태워서 데리고 와서 [화살로] 쏘게 했다. 카사르의 몸은 감옥에 있으면서 고생했기 때문에 [노파의] 무릎 뼈 바로 아래(keče)를 쏘았다. 그 노파는 옆 갈비뼈 쪽으로 넘어지며 죽을 때,

“카사르의 남자 자손은 [끊임없는 전쟁의] 상처를 입어라!

여자 자손은 남편에게 버림받아라!”라고 저주하며 죽었다. 시도르고 카안이 뱀이 되었을 때, 군주는 봉황(garudi)이 되었다. 호랑이가 되었을 때, 군주께서는 사자(arsalan [=arслан])가 되었다. 젊은이가 되었을 때 군주는 노인(ebügen)이 되어서 잡았다. 시도르고 카안이 군주께 말하기를

“나를 죽이지 마시오!

셋별(čolman [=čolmun], 金星)을 잡아 적을 없애겠소.

혜성(mečid)을 잡아서 천재기근(jud turqan)을 없애겠소.

저를 죽인다면 당신 목숨에 좋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는다면 당신 자손에게 나쁩니다!”라고 했다. 그 말에 따르지 30b 않고, [화살로] 쏘고 [칼로] 잘라도 베어지지 않았다. 시도르고 카안은

“내 몸은 너희들이 자르고 쏘아도 베어지지 않는다. 내 신발 바닥에 세 번 접어서 감은 무늬 있는 두 띠(qosilan [=qosilang], [帶])가 있다. 그것으로 목을 졸라서 죽여라!”라고 말했다. 그 두 띠를 들고 목을 졸라서 죽이려 할 때, “나를 지금 목 졸라 죽인다면 뒤에 너의 자손도 나와 같이 목이 졸려서 죽어라! 나의 구르벨진 고아 카톤을 검은 손톱부터 살살이 살피라!”라고 말하며 죽었다. 성군께서는 구르벨진 고아 카톤을 얻었다. 구르벨진 고아 카톤의 미모는 군주를 비롯한 온 백성이 경탄할 만했다.

구르벨진 고아 카톤은 “지금 나의 미모는 너희 군사들이 일으킨 먼지 때문에 가려졌다. 전에는 지금보다 더 고왔다. 이제 물로 씻는다면 더욱 고와질 31a 것이다.” 이 말에 성군은 “물에 씻어라!”고 하시며 보냈다. 카톤은 물가에 날아다니는 푸른 종달새(boljimur)를 잡아서 꼬리에 글을 써서 ‘나는 이 물에서 죽습니다. 내 몸을 강 아래에서 찾지 마시고 강의 상류에서 찾으시오!’라고 하며 아버지에게 보냈다. 딸의 말대로 와서는 강 상류에서 찾아서 데리고 와서 묻으려고 할 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가족부대로 흠을 뿌리고 묻었다. 그 무덤을 테무르 울코(temür ulqu, 작은 언덕)라 하고, 그 강을 카톤의 강(qatun-u youl, 黃河)이라 한다.

그 탕고드 나라를 정복하고 시도르고 카안을 죽이고, 투르메게이(türmegei, 두르메게이) 성을 쳐부수고 구르벨진 고아 카톤을 데리고, 그 원정길에 로오반(luuban) 산(六盤山)에서 피서하실 때, 투르메게이 성에서 성군께서 열이 심하게 나서, 그의 황금 같은 생명이 위독할 때, 말씀하셨다.

“준마(駿馬) 같은 네 명의 동생들이여! 31b
 사향(麝香) 같은 네 명의 아들들이!
 전심전력을 바친 아홉 명의 장군들이!
 이들을 비롯한 위대한 백성들이! 모두 들어라! 너희들은.
 가족 등자(橙子)가 늘어질 때까지
 쇠등자가 다 닳을 때까지 밟아서
 위대한 백성들을 고생해서 모으고

다 모을 때에도,
 이와 같은 고통을 겪지는 않았다. 나는!
 새끼 뱀 적 없는 흰 말을 타고
 새끼염소 가죽외투를 접어
 나의 이 위대한 백성을 고생하여 모으고
 다 모을 때에도,
 이와 같은 고통을 겪지 않았다. 나는!
 전생(前生)의 응보(應報)인가!” 성군께서는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리
 셧다.

“카톤들 중에서는 부르투겔진이 죽고
 신하들 중에서 보고르치와 모칼리가 죽으라고 말하라! 너희들은!”이
 라고 하자, 길루게데이 바이아토르(gilügedei bayatur)가 아뢰기를,
 “보옥 같은 당신의 정통(正統)은 짧아질 것입니다.
 카톤이신 당신의 부르투겔진은 죽을 것입니다.
 카사르와 벨게테이 둘은 32a [떨어제] 각각 한 무리가 될 것입니다.
 함께 모은 당신의 많은 백성은
 어디론가 흩어질 것입니다. 나의 군주시여! 어떡하나요?
 위대한 당신의 정통은 짧아질 것입니다.
 오래전에 만난 당신의 부르투겔진 카톤은 죽으리라.
 우게데이 톨로이 당신의 두 아들은 고아가 되리라.
 경쟁하며 모은 많은 백성은
 다른 사람과 한 무리가 되어 흩어지리라.
 산 같은 당신의 정통은 짧아질 것입니다.

운명처럼 만난 당신의 부르투겔진 카톤은 죽으리라.
당신의 오초고(qočuyu[=očuyu]), 카치고(qačiyu) 둘은 고생할 것이
니다!

수없이 모은 당신의 백성은 산과 숲으로 흩어지리라.
캉카이 칸[산]을 끼고 유목하리라.
당신의 카톤과 아들들이 떼를 지어 울면서 오리라.
그들에게 한 가지 좋은 가르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주군이시여! 어떡하나요?
옹쿠이(öngküi) 고개 남쪽으로 이동하렵니다.
당신의 딸과 아들들이 떼를 지어 울면서 오리라.
그들에게 한 가지 좋은 가르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주군이시여! 32b 어떡하나요?
어린 몸을 짓밟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만약 짓밟는다면 우리들이 열반의 땅에서 들어간다는 것이 정말인
가요?

건강한 몸을 해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만약 해친다면 우리들이 극락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홀로 남은 당신의 부르투겔진 카톤과
고아가 되어버린 당신의 우게데이 톨로이 두 아들에게
들판에서 물을
산속에서 길을
알려 주십시오!”라고 했다. 칭기스 카안은 말씀하셨다.

“카톤과 신하들은 죽지 마라!

홀로 남은 나의 부르투겔진 카톤과
고아가 되어버린 나의 우게데이 톨로이 두 아들에게
들판에서 물을
산속에서 길을
알려주라!”고 말씀하셨다.
“옥석(玉石)에는 껍질이 없다.
강철에는 나이테가 없다.
가련하게 태어난 몸에 장생(長生)은 없다.
오히려 실망하지 말고 살면서
마음을 강하게 먹어라! 너희들! 33a

백 가지 일을 성공하면 일의 최상이다!
정직한 말에 이른 자의 마음은 강하다.
바라는 것을 적게 하고 많은 이들과 어울리면서
진실로 변하여 돌아가는 것은 너희들의 몸이 아닌가!
장차 훌륭한 정치를 시행하라! 너희들은!

어린 코빌라이(qubilai kegüken)의 말은 다르다.

그의 말대로 행하라. 너희들은!”이라 하시고 붉은 돼지띠 해(bing
yaqai jil, 丙[丁]亥年)에 예순일곱의 나이로 7월 12일에 승하하셨다.³⁹

마차를 준마들로 끌고
군주의 황금 유해를
마차에 실어올려

³⁹ 대몽골국(Yeke Mongyol Ulus)의 초대 대간(太祖, 재위 1206~1227).

모시고 돌아갈 때, 수니드(sönid) 부의 길루게테이 바야토르가 칭송하기를

“날아가는 갈지계의 날개처럼 떠나가십니까? 나의 군주인 당신은!
소리 나는 마차의 짐이 되셨습니까? 나의 군주인 당신은!
공격하는 매의 날개처럼 떠나가십니까? 나의 군주인 당신은!
[먼 길을] 돌아가는 33b 마차의 짐이 되셨습니까? 나의 군주인 당신은!

소리 내어 우는 새의 날개가 되어 떠나십니까? 나의 군주인 당신은!
삐걱거리는 마차의 짐이 되셨습니까? 나의 군주인 당신은!”이라고 하며 오는데, 모나(mona) 산기슭(kögübür)에 도착했을 때,

검은 수컷 낙타는 갈비뼈 깊이만큼 [진흙에] 빠지고
마차는 바퀴 축까지 빠져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을 때,
오색의 준마들도 끌어내지 못하고

온 백성이 고생하고 있을 때, 수니드의 길루게테이 바야토르가 앞드려,

“푸른 영원한 하늘(köke möngke tengri)의 천명을 받아 태어나신
위대한 성군이시여!
온 백성을 버리고 떠나가셨나이다. 당신은! 높은 곳으로.
안정하게 세우신 당신의 정치.
처음으로 세우신 당신의 나라,
[당신으로 인해] 태어난 당신의 카톤들과 왕자들,

태어나신 칸 같은 당신의 땅과 물[고향]이 저기 있나이다.
 신성하게 세우신 당신의 정치,
 공납을 받아 건설하신 당신의 나라,
 사랑스런 당신의 카툰과 왕자들! 34a
 당신의 황금 궁정이 저기에 있나이다.
 아름답게 세우신 당신의 정치,
 [깊은 인연으로] 만난 당신의 카툰과 왕자들,
 예전에 모은 당신의 수많은 백성들,
 당신의 친인척들이 저기 있나이다.
 더욱 늘어나는 당신의 백성들,
 [몸을] 씻은 당신의 물과 눈(雪),
 수많은 당신의 몽골 백성들,
 당신이 태어난 오논 강의 델리군 볼도가(deligün bolduy-a)가 저기
 있나이다.
 조류(棗騮)색 중마(keger ajıryan) 갈기(kökül)로 엮은 당신의 영기(靈
 旗, tuy süilde)
 당신의 북과 나팔과 호각,
 당신의 만백성들,
 케를룬(kerlün) 강의 쿠데에 아랄(ködege arlan [= aral])에서 칸에 오르
 신 당신의 땅이 저기 있나이다.
 이룩하기 전에 만난 당신의 부르투겔진 카툰,
 보르카토 칸(burqatu qan) 산의 땅과 물,
 보고르치 모칼리, 당신의 사랑스런 두 동무,
 당신의 온전하고 위대한 정도(政道)가 저기 있나이다.

화신으로 만나게 된 당신의 콜란 카톤,
 당신의 호금과 피리와 노랫소리, 34b
 당신의 대국(大國) 전체,
 코톡토 칸(qutuγ-tu qan) 산, 고향이 저기 있나이다.
 카라고나 칸(qarayun-a qan) 산이 따듯하다고,
 타국 탕고드의 백성이 많다고,
 카톤 구르벨진이 아름답다고,
 [사랑하네] 옛 몽골 백성을 버리시렵니까? 나의 군주시여!
 사랑스런 당신의 목숨이 다한다면,
 보옥 같은 당신의 유해를 모시고 돌아갈 것입니다.
 당신의 카톤 부르투겔진에게 보일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백성에게 돌려보낼 것입니다.
 모든 백성의 영원한 흰색 게르를 가지고
 칸 같은 그 위대한 땅에 고이 모시겠습니다!”라고 고향자, 군주는 어
 여뻬 여기셨다.

마차는 소리를 내며 움직였다.
 검은 수컷 낙타(qara[=qar-a] buγura[buur-a])가 힘차게 나아갔다.
 모든 백성은 환호했다.
 칸 같은 위대한 대지인 그리로 보내졌다.
 모든 이의 영원한 기쁨이 거기에서 시작되어
 칸과 재상들의 지주가 되었고,
 모든 인민의 숭배대상이 되어 35a
 영원히 움직이지 않는 팔백실(naiman čayan ger, 八白室)이 되었다.

군주께서 [탕고드 원정길에] 이리로 지나실 때, 우쫘대며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 마차의 바퀴가 진흙에 빠진 것이다. 온 나라[탕고드]에 거짓 선전포고를 하고, 입으시던 웃옷, 궁정 천막, 한 쪽 발싸개(oyimasun)를 거기에 묻었다. 그분[칭기스 카안]의 진짜 유해를 어떤 사람은 보르칸 칼둔(burqan qalduna[=qaldun]) 산에 묻었다고 한다. 어떤 사람은 알타이 칸(altai qan) 산의 북쪽, 켄테이 칸(kentei qan) 산의 남쪽에 있는 예케 우텍(yeke öteg)이라는 땅에 묻었다고도 한다.

그 뒤, 3년이 지나서 소피 해에 우게데이 카안(ögidei[=ögedei] qayan)이⁴⁰ 43세로 케룰렌의 쿠데에 아랄(kerülen-ü ködege arlan [aral-a])에서 대위(yeke oru)에 올랐다. 재위 13년이 되어 소피 해에 55세로 우테구 콜란(ötögü qulan)에서 돌아가셨다. 우게데이 카안은 양피다.

쿨룩 카안(külüg qayan)⁴¹ 6년이 지나서 말피 해에 우르멕투(örmügetü)에서 42세로 35b 칸위에 올랐다. 다음해 양피 해에 43세로 삼시기[셈시케](samsigi)에서 돌아가셨다. 쿨룩 카안은 소피다.

그 뒤 5년이 지나서 몽케 카안(möngke qayan)이⁴² 45세로 돼지피 해에 켈루렌의 쿠데에 아랄에서 4월 초3일에 칸위에 올랐다. 9년이 지나서 54세로 양피 해에 칭장부(čing jangkü)라는 요새에서 돌아가셨다. 몽

⁴⁰ 대몽골국의 제2대 대칸(太宗, 재위 1229~1241).

⁴¹ 대몽골국의 제3대 대칸 구육(Güyük, 定宗, 재위 1246~1248). 주 50의 카이산[武宗]의 칭호와 같고 사본에도 분명히 쿨룩(Külüg)으로 쓰여 있지만, 후시 구육(Güyük)을 잘못 썼을 가능성도 있다.

⁴² 대몽골국의 제4대 대칸(憲宗, 재위 1251~1259).

케 카안은 토끼띠다.

6년이 지나 원승이띠 해에 소토 세첸 카안(sutu sečen qayan)이⁴³ 45세로 상도(sangdu[=šangdu], 上都)에서 칸위에 올랐다. 35년이 지나서 말띠 해 정월⁴⁴ 22일에 81세로 다이도(dayidu, 大都)에서 돌아가셨다. 세첸 카안은 뱀띠다.

그 뒤 말띠 해에 울제이투 카안(öljeyitü qayan)이⁴⁵ 30세로 4월 36a 10일 시기르 호수(sigir naγur)에서 대칸위(yeke qan oru)에 올랐다. 14년이 지나서 44세로 양띠 해 정월 초8일에 다이도에서 돌아가셨다. 울제이투 카안은 소띠다.

그 뒤 같은 해인 양띠 해에 쿨룩 카안(külüg qayan)이⁴⁶ 27세로 대칸위에 올랐다. 5년이 되어서 돼지띠 해 다이도에서 돌아가셨다. 쿨룩 카안은 뱀띠다.

그 뒤 같은 돼지띠 해에 보안토 카안(buyantu qayan)이⁴⁷ 37세로 칸위에 올랐다. 10년이 되어서 원승이띠 해에 47세로 다이도에서 돌아가셨다. 보안토 카안은 돼지띠다.

그 뒤 같은 해에 게겐 카안(gegen qayan)이⁴⁸ 원승이띠 해에 18세로

43 대몽골국의 제5대 대칸 코빌라이(Qubilai, 世祖, 재위 1260~1294).

44 qubi sar-a 몽골 전통 역법(曆法)에 따르면 봄의 첫달, 즉 정월(čayan sar-a)을 이렇게 불렀다.

45 대몽골국의 제6대 대칸 울제이투 테무르(Öljeyitü Temür, 成宗, 재위 1294~1307).

46 대몽골국의 제7대 대칸 카이산(Qaishan, 武宗, 재위 1307~1311).

47 대몽골국의 제8대 대칸 아요르바르와다(Ayurbarwada, 仁宗, 재위 1311~1320).

48 대몽골국의 제9대 대칸 시데발라(Shidebala, 英宗, 재위 1320~1323).

다이도에서 칸위에 올랐다. 4년이 **36b** 지나서 21세인 돼지띠 해에 상도 남쪽 모린오 엡치군(morin-u ebčigün)이라는⁴⁹ 곳에서 돌아가셨다. 계젠 카안은 쥐띠다.

그 뒤 이순 테무르 카안(yisün temür qaγan)이⁵⁰ 돼지띠 해에 30세로 쿠데에 아랄에서 칸위에 올랐다. 6년이 되어서 36세로 용띠 해 8월 6일에 상도에서 돌아가셨다. 이순 테무르 카안은 뱀띠다.

그 뒤 같은 해에 자야가토 카안(jayayatu qaγan)이⁵¹ 35세로 용띠 해 8월 12일에 칸위에 올랐는데, 다음 해 뱀띠 해에 코톡토 카안(qutuγtu qaγan)이⁵² 서쪽에서 명성을 쌓고 와서, 정월 19일 30세에 보새(yeke qasbuwa tamay-a, 寶璽)를 지닌 알테무르 칭상(altemür čingsang)을 살해하려고 적대적인 **37a** 이들을 맞이하도록 보내고, 코톡토 카안이 체첸투 호수(čečegtü nayur)에서 4월 초3일에 칸위에 올랐다. 같은 해 8월 초6일에 승천하셨다.

그 뒤 같은 달 10일에 자야가토 카안(jayayatu qaγan)이 [다시] 칸위에 올랐다.⁵³ 5년이 되어서 노란 원숭이띠 해에 35세로 다이도에서 돌아가셨다.

같은 원숭이띠 해에 이르체말 카안(irčemal[=rinčenbal] qaγan)이⁵⁴ 10월 초5일에 대위에 올랐다. 같은 원숭이띠 해 같은 달 25일에 다이도

49 '말의 업준이'. 업준이는 가슴살을 가리킨다.

50 대몽골국의 제10대 대칸 (泰定帝[晉宗], 재위 1323~1328).

51 대몽골국의 제11, 13대 대칸 퉁 테무르(Tuy Temür, 文宗, 재위 1328~1329, 1329~1332).

52 대몽골국의 제12대 대칸 코실라(Qoshila, 明宗, 재위 1329).

53 주 48을 참조.

54 대몽골국의 제14대 대칸 이린첸발(rinčenbal, 寧宗, 재위 1332).

에서 돌아가셨다.

그 뒤 같은 원숭이띠 해에 다이도에서 오카가토 카안(uqayatu qayan) 이⁵⁵ 대위에 올랐다.

주르치드(jürčid) 노인(ebügen)의 조요(juyu)라는 이름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집 위에 무지개(solungy-a)가 떴다. 이 징후를 라간(layan)과 이바고(ibayu) 두 현자가 알고 “이 아이는 우리 카안에게 좋다면 이익이 될 것이요, 나쁘다면 해가 될 것입니다. **37b** 이를 어렸을 때 죽이십시오!”라고 카안에게 말했다. 카안은 이 두 사람 말에 따르지 않고, 그 아이를 죽이지 않았다. 라간과 이바고 둘이는 “아! 이 아이를 죽이지 않으셨다. 나중에 이 아이를 높은 자리에 앉히지 마십시오!”라고 말했다. 그 아이가 성장한 뒤, 동쪽의 지방(jegün muji)을 다스렸다. 서쪽의 지방(barayun muji)은 오이고드의 톡타가(toytay-a)와 카라창(qaračang)이 다스렸다. 그 뒤 주계(jüge)와 보카(buq-a) 형제는 둘이서 톡타가와 카라창 둘을 카안에게 비방하고, “이 두 관리는 당신의 창고를 관리할 때 크고 좋은 것은 자기가 갖고 작고 나쁜 것은 카안에게 가지고 와서 바쳤다.”고 상주했다. 이 말에 카안은 바로 주계에게 ‘톡타가와 카라창을 잡아오라!’고 보내셨다.

주계는 출발했으나 **38a**도착하지 않고서 도중에 돌아와서, ‘오지 않았다!’고 카안에게 보고했다. 다시 보내셨다. ‘오지 않았다!’는 앞의 말

⁵⁵ 대몽골국의 제15대 대칸 토고간[토곤] 테무르(Toγuγan Temür, 順帝, 재위 1333~1370).

을 다시 했다. 카안은 노하서서 툽타가와 카라창 둘을 관리에서 파직시켰다. 남은 대국을 주계와 보카 두 사람으로 다스리도록 하였다. 그 뒤 주계와 보카 둘이는 조세와 재보를 모으러 갔다. 3년이 지나도록 돌아 오지 않았다. 카안은 “주계의 발은 대단히 무거워졌다. 주계가 돌아오면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문지기에게 말했다. 그 뒤 카안은 꿈을 꾸었다. “많은 군사가 적이 되어 와서 나의 성을 포위했다. 이 적이 무서워서 성내에서 이곳저곳으로 돌아다녔는데, 빠져나갈 틈을 찾지 못했다. 그러다가 서북쪽으로 갈 때, 한 틈이 보였다. 이 틈으로, 칸위를 버리고 또 모든 38b 백성을 버리고 나가버렸다.” 이런 꿈을 꾸었다. “내 이 꿈이 좋은가! 나쁜가?” 하고 중국(kitad)의 계겐 센친(gegen senčin)에게 해몽시켰다. 센친은 카안의 꿈을 풀이하여 “카안께서 칸위를 잃을 징조다!”라고 풀이했다.

그 뒤 몽골의 툽타가 칭상(toytay-a čingsan)은 좋은 뜻으로 잘 풀이했다고 말한다. 그 꿈의 징조에 따라 서북에 가서 보니 틈이 있었다. “내 꿈이 옳았다!”고 무서워했다. 그 뒤에 주계와 보카 둘이서 2만의 큰 마차에 재보를 실어 가져왔다. 많은 수레에 재화를 실었다. 3천의 큰 수레에는 갑옷을 입은 병사를 싣고 왔다.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문지기에게 많은 보화(erdeni ed tawar)를 주고 들어와서, 병사들을 밖으로 나오게 하여 카안의 궁전을 포위하자, 카안은 [이것을] 아시고 39a 40만의 몽골인을 버리고, 전에 본 틈으로 카톤들과 왕자들을 데리고, 소수의 11만의 몽골인을 데리고 나갔다. 그 나가는 통로에 활 잘 쏘는 카사르의 후손 도코 바야토르(duqu bayatur)의 아들인 토물코 바야토르(tomulqu bayatur)가 아들인 카치 쿨룩(qači külüg)을 내보내고,

예순 명의 기수(旗手) 동료들을 데리고 와서,

“이름을 더럽히느니
뼈를 꺾는다고 한다!”고 말하고, 뒤를 쫓는 중국 군대를 맞아 서로
싸워 죽었다.

카안의 자손에게
카사르의 후손이 한 가지 도움을 주었다고 말하는 것이 이 일이다.

그 고북구(moltuyčin-u sübe, 古北口)로 나가서 호성(baras[=bars] qota, 虎城)을 쌓고 살았다. 중국 군대는 여우성(kirsa qota, 狐城)을 쌓고 주둔했다. 거기에 오카가토 카안(uqayatu qayan)의 아들 빌릭투(biligtü)가 주술(jada, 呪術)을 써서 대풍우를 오게 하여 중국의 군사들과 편마를 다할 때까지 죽었다. 여기서 39b 남은 군사들이 돌아갈 때, 몽골의 군사들이 쫓아서 장성(kerem, 長城)에 이르기까지 죽었다고 한다. 여기서 흩어져서 도망치는 군사들은 “가지고 있던 백 개의 화살을 태우고, 화로(jayuqan) 곁에 누워서 죽었다!”고 한다.

“중국인은 산등성이(kir-a)로 나갔다.
여우의 꼬리가 관의 술(jalay-a)이 되었다”고 하는 게 바로 그거다.

오카가토 카안은 자신의 도시를 이렇게 칭송하였다.⁵⁶

⁵⁶ 여기서부터 ‘토곤테무르 카안의 슬픈 노래’라는 시(詩)가 시작된다.

온갖 종류의 보석들로
곧고 아름답게 지은
나의 다이도(dayidu, 大都)!
옛날 카안들이 사셨던
나의 하영지(jusalang, 夏營地) 상도(sangdu[=šangdu], 上都)의 누런
들판!

갖가지 [보석으로] 쌓은
나의 팔각(八角) 백탑(白塔)!
평화로운 통치로 고귀한 종교를
온 세상에 널리 퍼뜨린 사랑하는 나의 이름!
서늘하고 아름다운 나의 케이붕(keyibüng, 開平府) 상도!
조심스러웠던 붉은 토끼띠 해(ulayan taulai jil, 丁卯年)에 잃었다!
사랑하는 나의 도성을.
고요한 아침에 언덕에 오르면
내음도 향기로운 얽은 나의 안개!
조심하지 못하여 잃었구나!
사랑하는 다이도를!
오카가토 카안 이전에
라간과 이바고라는 두 사람이 있었지!
알고, 깨달았으면서도
놓아 보내주었지.
사랑하는 40a 다이도를!
현명하지 못한 신하들은
모두가 [보물]창고만 바라보고 서로 감시하지 않았다.

울면서 뒤쳐졌구나! 나는.
 목지에서 뒤쳐진 어린 두 살배기 송아지(birayun)와 같았다. 나는!
 40만 몽골 백성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했던 나의 기쁨.
 사방을 에워싼 거대한 도성을
 안정시키고 앉은 나의 황금 보좌(寶座)!
 티베트와 인도에서
 옮겨쓴
 보배로운 나의 종교.
 훌륭한 통치로
 평화롭게 지내다가 잃었구나!
 사랑하는 나의 다이도를!
 겨울 한철을 보냈던
 따뜻한 나의 도성.
 여름 한철을 지냈던
 나의 케이봉 상도!
 유랑자처럼
 도망쳐왔구나! 나는.
 이 땅에.
 여섯 종류의 동물
 이야기와 같이 되었구나! 나는.
 다음 생에는. **40b**
 성군들께서 세우셨다!
 대나무 궁전을.

화신이신 세첸 카안께서
 여름 한철을 지내셨네! [케이봉과 상도에서]
 케이봉 상도를
 녀 놓고 빼앗겼네,
 중국에게!
 탐욕스런 불명예를
 오카가토 카안이 뒤집어썼다.
 모두가 함께 세웠다.
 보옥 같은 다이도를!
 제멋대로 하영하기도 했다. [다이도에서]
 사랑하는 다이도를
 모두 빼앗겼네!
 중국에게.
 배반의 불명예를
 오카가토 카안에게 덮어씌웠다.
 다양한 모든 것으로 세웠네.
 보석 같은 다이도를!
 돌아와 여름 한철을 보냈다. [케이봉과 상도에서]
 케이봉과 상도를
 잘못해서 빼앗겼다.
 중국에게!
 제멋대로라는 불명예를
 오카가토 카안에게 덮어씌웠다.
 카안 군주[칭기스 카안]께서

이룩하신 위대한 명예를,
 현묘한 세첸 카안이 세운
 사랑스런 다이도를,
 모든 백성이 공경하는 중심인
 보석 같은 도성(都城)이 41a
 모두 부서졌다.
 중국 백성에게,
 애처로운 다이도를!
 신성한 하늘의 아들이신
 칭기스 카안의 황금 가문을!
 모든 부처님의 화신인 세첸
 카안의 황금 궁전을!
 모든 보살들의
 화신인 오키가토 카안이
 신성한 하늘의 명운으로 잃었다.
 사랑하는 다이도를!
 카안 군주가 물려주신
 옥새인 황금 인장을
 소매에 감추어 가지고 나왔다.
 모든 적들 한가운데서
 서로 찌르며 내보냈다.
 보카 테무르 칭상(丞相)께서, 적들 속에서!
 칸 군주의 황금 가문에
 칸위(汗位)가 계속되기를,

만대에!
 소홀히 여겨 잃었다.
 사랑하는 다이도를!
 궁궐(宮闕)에서 나올 때,
 보귀(寶貴)한 경전들은 놓아두었다.
 그 당시에
 현명하신 보살들께서 변별하시라!
 나중에
 돌아다니다가 와서 안정되어라.
 칭기스 카안의 황금 가문에게!

그 뒤 41b 29세에, [재위] 4년이 되어서 개띠 해에 잉창부(ing čangbu, 應昌府)라는 이름의 성에서 승천했다. 코빌라이 세첸 카안이 다이도에서 살기 시작하면서 이제 오키가토 카안에 이르기까지 100년에 5년 6개월을 더 살다가 성을 잃었다고 한다. 그 정권을 잃었을 때, 오키가토 카안의 쿡기라드(qonggirad) 부[출신]의 카톤은 석 달째 몸이 무거웠다. 그 카톤은 통(butung) 속에 들어가서 뒤쳐졌다. 그 통을 한인(漢人)은 강(γang)이라 부른다. 몽골인은 보통(butung)이라고 한다. 그 카톤을 중국의 주 홍우(jüü qung üü, 朱洪武)⁵⁷ 황제가 데리고 제위에 올랐다. 그 카톤이 생각하기를, ‘일곱 달이 되어서 출생한다면 적의 자식이라고 죽일 것이고, 열 달이 되어 출생한다면 자기 아들이라고 나쁘게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우리 아버지 같은 하늘이 42a 어어

⁵⁷ 명(明) 태조(太祖) 주원장(朱元璋, 재위 1368~1398).

빼 여기서서 석 달을 더 채워, 열 달이 되도록 자애를 베푸시라!’고 기도하며 지냈다. 하늘이 어여뻐 여기서서 열세 달이 되어, 남자아이가 출생했다.

콩두[콩우, 洪武] 황제의 중국인 비도 한 남자아이를 출산했다. 콩두 황제의 꿈에 용 두 마리가 싸우는 것을 보니, 오른쪽 용을 왼쪽 용이 이기고 있는 꿈을 꾸었다. “내 이 꿈이 길한가? 흉한가?” 하고 점쟁이에게 풀이하라고 말했다. 그 점쟁이는 “두 용이 아닙니다. 당신의 두 아들입니다. 오른쪽 용은 중국인 비의 아들입니다. 왼쪽 용은 몽골인 비의 아들입니다. 당신의 뒤를 이어 제위에 오를 운명입니다!” 점쟁이의 이 말은 콩두 황제에게는 다 같은 자식이지만, 어머니는 적의 비였다. “이 비에게서 태어난 내 아이가 42b 제위에 오른다면 좋지 않다!”고 말하며, 황궁에서 나가게 하여, 장성 밖에 쿠게 코타(köke qota)를 지어 주고, 거기서 살게 했다. 그 뒤에 콩두 황제가 제위에 오르고, 31년이 되어 승천했다. 그의 아들 자코야 카안(jaqy-a qayan)이⁵⁸ 제위에 오르고 4년이 지난 뒤, 콩기라드 카톤의 아들인 용로 카안(yunglo qayan, 永樂帝)이⁵⁹ 자신의 적은 친구들과 남쪽의 6천 명의 몽골 백성, 물가의 3만의 여진인을 데리고, 검은 장성의 중국 백성들을 거느리고 군사를 준비하고 와서, 중국의 콩두 황제의 아들 자코야 황제를 잡아서, 목에 은제 낙인을 찍고는 쫓아버렸다. 그리고 오카가토 카안의 아들 용로 카안이 황제에 즉위했다. 올바른 카안(yosutu qayan)의 못난 아들이 즉위했다고 [그에

58 명 혜제(惠帝, 建文帝, 재위 1399~1403).

59 명 성조(成祖, 재위 1403~1424). 이름은 주체(朱棣).

계 용로[永樂] 43a 대명(大明)이라는 이름을 현상했다고 한다.

힘을 보냈다고 하여 고향의 6천 명 우지에드 백성들에게 3백의 다이도(dayidu, 특허권)를⁶⁰ 사여했다. 여진(jurčid[=jürčid], 女直) 사람들에게는 6백의 다이도를 사여했다고 한다. 용로 황제는 22년이 지나 승하했다. 공시 황제(qungsi qayan, 洪熙帝)는⁶¹ 1년 재위했다. 산다 황제(šanda qayan, 宣德帝)는⁶² 10년 재위했다. 징통 황제(jingtung qayan, 正統帝)는⁶³ 14년 재위했다. 징타이 황제(jingtai qayan, 景泰帝)는⁶⁴ 15년 재위했다. 칭코아 황제(čingqu-a qayan, 成化帝)는⁶⁵ 23년 재위했다. 코닝치 황제(quningči qayan, 弘治帝)는⁶⁶ 18년 재위했다. 징데 황제(jingde qayan, 正德帝)는⁶⁷ 16년 재위했다. 자딩 황제(jading qayan, 嘉靖帝)는⁶⁸ 46년 재위했다. 룡친 황제(ungčün [=lungčün] qayan, 隆慶帝)는⁶⁹ 6년 재

⁶⁰ 대간이 특허권을 하사한 칙령. 이 특허권을 받으면 변경에서 무역을 할 수 있으며, 은사품(恩賜品)도 받을 수 있다. ta-tu, tai-tu, dayidu 등으로 쓰기도 한다. Henry Serruys, 1967, *The Tribute System and Diplomatic Missions (1400-1600)*, Bruxelles, Institut Belge des Hautes Etudes Chinoises, p. 22.

⁶¹ 명 인종(仁宗, 재위 1425).

⁶² 명 선종(宣宗, 재위 1426~1435).

⁶³ 명 영종(英宗, 재위 1436~1449, 復辟 天順帝 1457~1464).

⁶⁴ 명 경종(景宗, 재위 1450~1456).

⁶⁵ 명 헌종(憲宗, 재위 1465~1487).

⁶⁶ 명 효종(孝宗, 재위 1488~1505).

⁶⁷ 명 무종(武宗, 재위 1506~1521).

⁶⁸ 명 세종(世宗, 재위 1522~1566).

위했다. 완리 황제(wa[n]li qayan, 萬曆帝)은⁷⁰ 48년 재위했다. 타이손 황제(tisun[=tayisun] qayan, 泰昌帝)은⁷¹ 1개월 재위했다. [뒤를 이어] 대명의 주(čuu, 朱) 툰치 황제(tinči qayan, 天啓帝)가⁷² 즉위했다. [명나라는] 콩두 43b 황제부터 툰치 황제까지 257년 동안 존속했다.⁷³

토고간 테무르 카안(toγuyan temür qayan)의 아들 빌릭투 카안(biligtü qayan)은⁷⁴ 동년 개띠 해에 응창(ing čing [=ing čang])이라는 도성에서 대위에 올랐다. 9년이 지나서 말띠 해에 승천했다. 같은 해에 오스칼 카안(usqal qayan)이⁷⁵ 대위에 올랐다. 11년이 지나서 용띠 해에 승천했다. 그 후 같은 해 조릭토 카안(joriγtu qayan)이⁷⁶ 대위에 올랐다. 4년이 되어 양띠 해에 승천하였다.

그 뒤 개띠 해에 엘벡 [니굴섹치] 카안(elbeg qayan)이⁷⁷ 대위에 올랐

69 명 목종(穆宗, 재위 1567~1572).

70 명 신종(神宗, 재위 1573~1619).

71 명 광종(光宗, 재위 1620).

72 명 희종(熹宗, 재위 1621~1627).

73 명 의종(毅宗, 재위 1628~1644). 승정제(崇禎帝)를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책 『Altan tobči, 黃金史』가 1620년대 후반에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74 토고간 테무르 카간과 기황후(奇皇后) 사이에서 난 큰아들. 이름은 아요시리다라(Ayushiridara)로 북원(北元)의 소종(昭宗, 재위 1371~1378).

75 빌릭투 카간(北元 昭宗)의 동생인 투구스 테무르 카안(재위 1379~1388).

76 투구스 테무르 카안의 아들 앙케조릭투 카안(1389~1392).

77 앙케 조릭투의 동생(재위 1393~1399). 1399년 오이라트 부의 수장 우케치 카스카(Ügeči qasq-a)에게 정권을 잃었다.

다. 엘벡 카안은 사양해서 죽인 토끼의 피가 눈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눈과 같이 흰색을 하고,

피처럼 빨간 뺨을 가진

예쁜 여자가 있느냐?”고 말했다. 오이라드의 코오카이 타요(quuqai tayu)가 말하기를 44a “이와 같이 예쁜 여자가 있습니다.”라고 했다.

“그것이 누구냐?”고 물었다. [코오카이 타요가] “볼 수 없습니다. 보자고 하신다면 말씀드리지요! 당신의 아들 카르고축 두구렝(qaryučuy dügüreng) 테무르 쿡 타이지(temür qung tayiji)의 [처] 울제이투 고투(öljeyitü you-a) 쿡 비기지(qung bigijii)인 당신의 며느리는 이처럼 곱습니다!”라고 했다. 엘벡 니굴투 카안(elbeg nigültü qayan)은 자기 며느리의 자색에 빠져서, 오이라드의 코오카이 타요에게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보여준 자,

멀리 있는 것을 가져온 자,

바람을 만족시켜 주는 자,

나의 타요여! 어서 가라!”고 말했다. 카안의 명령으로 가서 비기지에 게 말하기를, “너의 자색을 카안이 보자!”고 나를 보내셨다고 했다. 비기지는 분노해서

“하늘과 땅을 합하자는 것입니까?

높으신 카안께서 자신의 며느리를 보시자는 것입니까? 당신의 아들 두구렝 테무르 쿡 타이지(dügüreng temür qun[g] tayiji)가 죽었습니까?”라고 말했다. 그 말을 카안은 듣지 않고, 자기 아들을 죽이고 자신의 며

느리를 얻었다. 44b 그런 다음에, 코오카이 타요가 다르칸(darqan) [칭 회]를 청하러 왔다. 카안이 없어서 집[궁궐] 앞에서 기다리는데, 콩 비기지가 사신을 보내서 “잠시 동안만 카안을 기다려라! 혼자서 집으로 오라!”고 말함에 타요가 와서 들어간 뒤, 비기지는 [술]잔을 들고

“내 비천한 나쁜 몸을 좋게 만드셨다.

내 보잘것없는 몸을 크게 만드셨다.

비기지라는 내 이름을 타이코(taiqu, 太后)로 만들어 주었다! 너는!” 이라고 말하며, 주둥이가 하나이고 몸통은 둘인 가죽 통에, 하나에는 독한 술(araja, [마유주])을, [그리고 또 다른] 하나에는 물을 부어서, 자기는 물을 마시고 타요에게는 독한 술을 마시게 하여 취해서 넘어지게 했다. 타이지의 원수를 갚고자 베갯머리 밑에 있는 천을 잡아당기고, 담요 위에 타요를 넘어뜨리고는, 자신의 얼굴을 활퀴고 머리털을 잡아당기며, 카안에게 사신을 보냈다.

카안이 들으시고 올 때, 타요는 일어나서 달아났다. 카안이 쫓아가서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오히려] 카안의 새끼손가락(sigičei [=sigejei] quruγun)에 화살이 탁하고 45a 맞았다. 카안은 타요를 죽여 [그의] 등가 죽을 키식텐(kisigten [=kesigten]) 부의 장킨 타이보라는 사람으로 [하여금] 띠처럼 벗겨서 가지고 와서 비기지에게 주었다. 카안의 피와 타요의 기름을 섞어서 끓고는, 비기지가 말하기를 “자기 아들을 죽인 카안의 피, 상(償) 때문에 자기 군주의 목숨에 해를 끼친 타요의 기름을 섞었다. 이것이 여자가 갚은 복수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곧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라고 했다. 비기지가 속인 것을 카안은 아셨지만, 자기의 잘

못을 깨닫고 비기지에게 벌을 주지 않고, 타요의 아들 발라모 칭상(balamu čingsang)[과] 우게치 카스카(ügeči qasq-a) 둘에게 4만(dörben tümen)의 백성을 관리시켰다. 카안이 즉위하고 6년이 지난 뒤, 뱀띠 해에 엘벡 카안을 오이라드의 발라모 칭상[과] 우게치 카스카가 살해하여 돌아가셨다. 발라모 칭상[과] 우게치 카스카 둘은 최초로 4만 오이라드를 이끌고 [몽골]의 적이 되었다. 45b 몽골의 한 정권을 오이라드에게 빼앗겼다고 하는 것이다.

그 뒤 토고간 카안(toɣuγan qaγan)이⁷⁸ 대위에 올랐다. 4년이 지나서 말띠 해에 승천했다. 그 뒤 울로이 테무르 카안(ului temür qaγan)이⁷⁹ 대위에 올랐다. 13년이 지나서 호랑이띠 해에 승천했다. 그 뒤 다음해인 토끼띠 해에 델벡 카안(delbey[=delbeg] qaγan)이⁸⁰ 대위에 올랐다. 5년이 지나서 양띠 해에 승천했다. 그 뒤 같은 해인 양띠 해에 오이라드의 카안(oyirad-i-yin [=oyirad-un] qaγan)이⁸¹ 대위에 올랐다. 11년째 해가 되어서 뱀띠 해에 승천했다. 그 뒤 같은 뱀띠 해에 아다이 카안(adai qaγan)이⁸² 대위에 올랐다. 그 뒤 아다이 카안은 일전의 복수로 몽골인을 이끌고 오이라드에 출정했다. 그 군대의 선봉장으로 옹니고드(ongniγud) 부의 차가나 투멘 예세쿠이(čaγan-a tümen eseküi)에게 나

78 엘벡 카안의 아들 군 테무르(재위 1400~1402).

79 엘벡 카안의 둘째 아들 울제이 테무르(재위 1408~1411).

80 울제이 테무르 카안의 아들(재위 1411~1415).

81 오이라다이 카안(재위 1415~1425).

82 사료에 따라 카사르의 7대손(?), 온치긴의 후예라고도 하며 또는 엘벡 카안의 넷째 아들이라고도 한다(재위 1426~1439?).

가라고 말씀했다. 카안은 말씀했다.

“어린 말은 46a 빠르지만

늙은 말은 멀리 [뛰지 않는가?]”라고 시구시테이 바야토르 옹(sigüsitei bayatur ong)을 내보냈다. [여기 대해서] 오이라드의 고일린치 바야토르 (yuyilinči bayatur)가 나왔다. 그 둘은 예전에는 안다(anda, 의형제)였다. “몽골[과] 오이라드 둘이서 서로 싸운다면, 우리들도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고일린치 바야토르가 말하기를, “나의 활숨씨에는 투구를 써도 [쓰나 마나] 소용이 없다.”고 했다. 시구시테이 바야토르가 말하기를, “나의 칼숨씨에는 갑옷을 입어도 [입으나 마나] 소용이 없다!”고 했다. 그 뒤 서로 싸울 때, 몽골의 시구시테이 바야토르는 세 겹의 갑옷을 입고 배에는 쇠가래(kürje, 鉞)를 차고, 이마에 흰 점이 있는 황마(qongyur qaljan morin)를 탔고, 고를라드(yorlad) 올코이 메르겐(olqui mergen)에게 이마에 점이 있는 갈색 말(küren qaljan morin)을 타게 하고, 시구시테이 바야토르는 결전을 벌이러 [선봉에] 나갔다. 오이라드 고일린치 바야토르는 두 겹의 투구를 쓰고, 이마에 흰 점이 있는 푸른 말(köke qaljan mori)을 타고 선봉에 나갔다. 보로 노카인 조(boru noqai-yin jo)라는 46b 땅에서 싸웠다. 고일린치 바야토르는 시구시테이 바야토르의 앞 안궁(鞍弓)부터 두 겹의 갑옷을 뚫은 뒤 쇠가래를 지나 뒤 안궁까지 [화살이] 뚫어 닿도록 쏘았다. 그래서 올코이 메르겐은 고일린치 [바야토르]의 말 어깨날개 뼈[上腕骨]를 쏘아 부러뜨렸다. 그래서 시구시테이는,

“나의 황색 말의

주둥이가 알아서 하라!

내 흰 칼의

날이 알아서 하라!”고 말하며

“정사(政事)에는 친족을 고려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던가!”라고 말하며, 여덟 면[으로 된] 겹 투구[를 쓴] 머리를 내리쳤다. 이 상황에 오이라드를 습격하여 타요의 아들 발라모 칭상을 죽이고, [그의] 처를 우리 카안이 취하였다.

그 아들 토곤[타이시]을 아룩타이 타이시(aruytai tayisi)⁸³ 집에서 양을 치게 했다. 오이라드의 한 정권을 몽골이 빼앗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아다이 카안은, 그 뒤에 서로 회맹을 열었다. 토곤 47a 타이시가 양을 치고 있을 때, 회맹에서 돌아오는 사람을 만났다. 그 집회에서 돌아오는 두 사람에게, “집회에서 어떤 것이 토의되었느냐?”라고 토곤 타이시가 물었다. 그 사람은 말하기를, “네가 없어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비웃었다.

그 사람이 간 뒤에 토곤이 모자를 들고,

“너희들의 말이 아니라

하늘의 명령일 것이다!”라고 말하며 하늘에 절했다. 아룩타이 타이

⁸³ 아소드(Asud) 부의 고관. 어릴 때 오이라드 부의 바톨라 칭상에게 사로잡혀, 광주리(aryγ)를 등에 메고 마른 소똥(aryal)을 주으러 다녔기 때문에 ‘아룩타이(aruytai, 광주리를 가진 이)’라는 이름을 얻었다고 한다. 1402년 엘벡 카안 통치하에서 타이시가 되었고, 같은 해 오이라드 부의 우게치 카스카를 죽이고, 울제이 테무르를 카안으로 올려 큰 권력을 휘둘렀다. 1425년에는 아다이를 카안으로 올렸고, 1434년에 토고간 타이시에게 목숨을 잃었다.

시는 그의 처에게, “이 토곤 타이시는 좋은 사람의 자손이다. 그의 면전에서 머리를 빗고, 몸을 굽는 것을 보이지 마라!”고 말했다. 그 말에 토곤은 밖으로 나가서,

“너희들의 말이 아니라
하늘의 명령일 것이다!”라고 말하며 하늘에 절했다.

그 뒤에 오노이 아가(onui aya)가 토곤 타이시의 머리를 빗겨주고 있을 때, 아룩타이 타이시의 동생이 말하기를, 이 사람 토곤 타이시는 좋은 사람의 후손이라고 했다.

“머리를 빗지 말고, 47b
목숨을 끊어라!
아니면 쫓아버려라!”라고 말했다. 오노이 아가는 이 말을 금하려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다. 동생은 다시 말했다.

“이 말을 금한다면,
[나중에] 자기 머리를 꾸짖지 말라!”고 했다. 그 말에

“몽골 아이들은 모여서 슬프게 운다.
말때는 큰 소리로 모은다.

개는 [늑대처럼] 울며 짖는다.” 이런 나쁜 징조를 토곤 타이시는 깨닫고, 하늘에 절을 했다. 그 뒤에 토곤의 어머니는 아다이 카안에게, “저를 어여뻐 여기시어 카톤으로 삼으셨지요. 당신은! 제 아들 토곤에게

어찌 종살이를 시키겠습니까? 당신은! 죽어버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버려두십시오!”라고 말했다. 카톤의 그 말에 카안은 시인하고, 토곤 타이시를 실라마친(silamačín), 사일라모친(sayilamučín)이라는 이름의 두 사자와 함께 바로 그 땅에 보내주었다.

토곤 타이시가 돌아간 뒤에, 48a 오이라드, 우겔레드, 바가토드, 코이드의 두르벤 투멘(4萬)이 회맹을 열고, 토곤 타이시에게, “몽골의 카안과 타이시를 비롯하여 많은 백성들의 성질은 어떠합니까?”라고 물었다. 토곤 타이시가 말하기를, “몽골의 아룩타이 타이시는 이제 늙어서 모든 일을 소홀히 여긴다.

그의 회살 통은 바뀌어도

그의 생각은 변하지 않는다.

정사를 다스리는 대신을 밖에 머무르게 한다.

전쟁에서 탈 수 있는 빠른 말을 이 집에서 저 집으로 갈 때 탄다.

조금밖에 모르는 사람에게 정사를 다스리게 한다.

어린 말을 타고 전쟁에 나간다.

지나다니는 사람에게 정사를 다스리게 한다.

작은 가죽 통에 술(sarqud)을 담는다.

수컷이 없는 암낙타,

수컷이 없는 암소,

수컷이 없는 암말,

수컷이 없는 암양과 같다.

이 말을 믿지 못하겠다면

[그를] 우게치 카스카가 되게 하라.”고 했다. 몽골의 사신 실라마친과 사일라모친(sayi[la]mučin) 둘을 간계로 속이고, 좋은 말, 검은 담비(bulay-a, 貂), 스라소니(silügüsü)와 많은 재화를 48b 토곤 타이시가 아다이 카안에게 보내고, [아다이 카안] 나라의 경계까지 이동해오도록 했다. 카안은 그것을 보고, “토곤 타이시를 자기 땅에 보내준 은혜가 이것이다. 실라마친과 사일라모친 둘은, 오이라드를 의심하지 않고 있다. 멀리서 토곤 타이시가 힘들게 당신의 공물을 보냈다. 하루만 묵을 수 있을까요?”라고 아뢰었다. 카안은 승인하시고, “이방 사람을 존경하자”고 말하고 [카안은] 묵었다. 토곤 타이시의 뒤에서 4만의 오이라드 군대가 와서 몽골을 습격하고, 그곳에서 아다이 카안을 토곤 타이시가 잡았다. 그래서 아다이 카안이,

“네 어머니를 카툰으로 삼았다.

너를 죽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토곤 타이시가,

“내 어머니에게는 남편이 없었는가?

내게는 아버지가 없었는가?”라고 말하고, 카안을 죽이려 할 때 카안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실라마친과 사일라모친 두 사람의 말을 믿고, 화살 한 대를 되돌려 쓰지도 못하고 죽게 되었구나!” 49a 라고 했다. 아다이 카안은 대위에 올라 14년이 지난 뒤, 말띠 해에 오이라드의 토곤 타이시의 손에 죽었다. 몽골의 한 정권을 오이라드에게 빼앗긴 것이 이것이라고 한다.

그 뒤 같은 말띠 해에 타이송 카안(tayisung qayan)이⁸⁴ 대위에 올랐다. 칸위에 오른 뒤에 타이송 카안과 아브기르친 지농(abgirčin jinong)

둘이서 밍간의 카라(mingyan-u qara)에서 오이라드와 만나게 되었다. 오이라드가 밍간의 카라에 먼저 도착했다. 카안은 지농과 더불어 오이라드의 에센 타이시(esen tayisi),⁸⁵ 압도라 세첸(abdur-a sečen), 사툴라(satula), 케테이(ketei), 바이톨라(bayitula), 알락 테무르(alay temür), 카탄 테무르(qatan temür), 아바보르기 다이둥(ab[a]burgi dayidung), 토곤 쿠메치(toyun kümeči), 로브시(lubsi) 등을 비롯하여 1천 명이 쉬지 않고 밤을 새워, 손에 풍석(jida[=jad], 風石)을 들고, 이들 타이시들이 찬바람을 일으키며 왔다. 몽골의 사람과 말들을 매우 추위에 떨게 했다.

카안과 지농은 회맹을 갖고, 오이라드와 상의하자고 말했다. 카안의 회맹에서 오오칸(uuqan)의 사탁친 세첸(satayčın sečen)은 늦게 와서 물었다. “오이라드에서 49b 온 타이시들에는 누가 있었느냐?” 일일이 알려주었다. 사탁친 세첸은, “하늘이 주신 기회가 이것이다. 이들을 죽이고 모든 병사를 공격하자!”고 말했다. 카안과 지농 두 사람은 [사탁친 세첸을] 저지시키고,

“안정시킨다고 말하는 사람을

⁸⁴ 아다이 카안의 큰아들로 이름은 툽타 보카(재위 1439~1452).

⁸⁵ 에센(1407~1454)은 오이라드와 몽골을 통합하여 1453년에 스스로 북원의 카안에 올랐으며, 자신의 타이시 칭호를 둘째 아들에게 물려주었다. 1449년(正統 14)에는 명을 공격하여 친정(親征)을 하러온 황제(英宗)를 사로잡기도 했다. 이를 역사에서는 ‘토목보(土木堡)의 변(變)’이라고 한다. 그는 1454년 오이라드 부의 내부 분열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

우회적으로 질책하는 자로구나!”라며 꾸짖고는
“그대로 두자고 하는 사람을
끝까지 질책하는구나!”라고 말했다. 사탁친 세첸은 분노해서, 자신
의 백마의 머리를 두들기며

“끝장을 보자면 끝내자!
언고자 한다면 다 언자!”고 말하고 갔다. 카르고축 타이지(qaryučuy
tayji)는 사탁친 세첸의 말을 시인했다. 타이송 카안은 또 저지하며,

“죽는다면 다 같이 죽자!
산다면 다 같이 살자!”고 말씀했다. 오이라드의 회맹에 참석했던 사
람들이 돌아갔다. 돌아간 다음에, 타이송 카안에게, 예전에 콜란 카라
가(qulan qaray-a)라는 말 갑옷을 잡고 일어나서, 아브기르친 지농에게
투항한 알락초고드의 차간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카안이 데려오라
고 말했다. 지농은 돌려주지 않았다. 50a 이낙 차간이 비꼬면서 [서로
를 이간질하느니 말을 했다.

“야생 황양(黃羊)이 언제 발정(發情)하는가?
수컷 노루의 뿔은 언제 떨어지느냐?”라고 카안에게 지농이 물었다
고 합니다. 카안은 분노해서

“발정 난 야생 황양은 우둔하다.
묻는 아브기르친 지농은 우둔하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듣고, “나의
우둔함을 알지 못한 것이 아니다!”라고 화를 냈다. 그런 후에, 이낙 차

간을 빼앗아왔다. 아브기르친 지농은, “너를 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이라고 맹세하고는 나중에 배신하고 오이라드로 갔을 때, 카르고축 타이지가,

“친족을 막은 사람은 흥하지 않는다고 한다.

자궁[동포]을 보호하는 사람은 흥한다고 한다.

모르는 사람을 막으면 흥하지 않는다고 한다.

동포를 막으면 흥한다고 한다.

위대한 칸이 된 몸이

비천한 사람이 되기가,

우두머리가 된 몸이

꼬리 끝이 되기는 어렵다!”고 해도, 아무도 동의하지 않았다. 아브기르친 지농은 오르도스 부의 겐텐(genden)과 [용시예부 부의] 테무르(temür)라는 두 사람을 50b 오이라드에게 사신으로 보내어 말하기를, “나는 형 타이송 카안에게서 [떨어져서] 홀로 되었다. 두르벤 투멘 오이라드 사람들과 하나가 되었다. 카르고축 타이지는 겨우 한 기(旗)가 아닌가! 사탁친 세첸과 [카르고축 타이지] 둘을 죽이자!”고 했다. 오이라드는 따르지 않고, 압도라 세첸은 주먹을 쥐고 앉아서, “저 어린애가 무엇을 알겠느냐?”라고 했다. 오이라드의 타이시들과 관인들이, “지농이 화해하자고 한다면, 지농 당신이 카안이 되시고, 그리고 그 지농 칭호를 나에게 주시오! 우리말에 따르면, 평화롭게 합병합시다!”라고 말했다. 그 사자가 돌아가서, 지농에게 타이시들과 관인들의 말을 일일이 전했다. 지농은 시인하고, 형인 타이송 카안에게서 이반하여 떠나버렸다. 그래서 지농은 오이라드와 함께 군사를 합해서 자기 형을 향해 출

정했다. 군사들이 불을 피울 때, 지논이, “내 형 카안은 겁쟁이다. 병사 한 사람당 51a 열 개의 불을 피워라!”고 명령하고 불을 붙였다. 그래서 타이송 카안의 초병이 지논과 오이라드의 군사를 보고, 카안에게 말을 전했다. 타이송 카안은 그래서 “내가 직접 보겠다!”고 가서 보고 말하기를, “이러한 불이라면 곧 하늘의 별이 땅으로 떨어진 것과 같다! 어떻게 싸울 수 있겠느냐?”고 하며, 적은 수의 동료들을 데리고 케롤렌 [강]으로 도망갔다.

예전에 첩텐의 딸 알타이 카톤(altai qatun)이 타라친(taračin)의 칼차가이(qalčayai)와 모종의 관계가 있다고 해서 칼차가이를 죽이고, 그 카톤의 귀와 코를 베어버리고, 카톤의 친가인 고를라드 부의 첩텐에게 갈 때, 사르타골 지방의 쿠축(küčüg)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피를 내어 은술을 [묵은 끈을] 베어버렸다. 술이 없어진 것을 카안이 알고, 보낼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말씀했다. 그래서 쿠축은 제가 가겠다고 카안에게 51b 아뢰었다. 카안이 타고 있던 짐은 말에서 내리고는, [쿠축을] 태워 보냈다. 쿠축은 은술을 가지고 지논에게 돌아가서 [카안을] 배반했다. 카안이 첩텐에게 가서, 이미 둘러보낸 카톤의 집에 내렸다. 첩텐이 말했다.

카라고나 산의 북쪽은 예전에는 따뜻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왜 추워졌습니까?

카톤의 품은 전에는 차가웠다고 합니다.

지금은 왜 따뜻해졌습니까?

알타이 칸 [산]의 북쪽은 예전에는 더웠다고 합니다.

지금은 왜 추워졌습니까?

내 딸 알타가나(altayan-a)의 품은 전에는 추웠다고 합니다.

지금은 왜 따뜻해졌습니까?

풀이 없다고 [버리고]

이동한 목지에 숙영할 리가 있겠습니까?

인물[美貌]이 없다고

버리신 여자를 [다시] 취할 리가 있겠습니까!”

타이송 카안에게는 아들 셋이 있었다. 장남 몽켈레이 타이시(möngkelei tayiji)는 스스로 죽었다고 한다. 카안에게는 일리(ili), 달리(dali) 두 아들과, 고를라드의 악볼로드(aybolud), 박볼로드(baybolud) 두 친구가 있었다. 다섯 사람을 잡아서, 52a 오르친(orčin)의 차키르(čakir)라는 곳에서, 원숭이띠 해에 타이송 카안은 고를라드의 첩텐의 손에 죽었다. 칸 위에 오르코 15년이 되었다.

악볼로드, 박볼로드 두 사람의 형 멘두 우를룩(mendü örlüg)은 다른 사람 집에서 묵고 있었다. 콜라카니(qulaqani), 카라카니(qaraqani)라는 이름의 말 두 마리가 예지력이 있었는데, [어느 날] 땅을 파헤치고 있었다. 말이 한숨을 쉬는 것을 보고, 멘두 우를룩이, “해로운 일이 있을 때는 이러한 징조가 있다!”고 말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카안에게 달려갔다. 도착하기 전에 [첩텐이] 카안을, [멘두 우를룩의] 두 동생과 함께 죽였다. 멘두 우를룩은 카안의 머리 밑에 한 동생을 베개처럼 베개 하여 묻고, 발아래에는 다른 동생 한 명을 베개처럼 베개 하여 묻어주었다. 그 뒤에 멘두 우를룩을 비롯하여 몇 명의 친구들이 첩텐을 습격하여 그 원

수를 갠았다. 그 뒤에, 오이라드는 서로 모여서 말을 주고받기를,

“자기 친척을 52b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우리 친척을 생각할 것인가?

자기 나라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우리나라를 생각할 것인가?

자기 이름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우리의 이름을 생각할 것인가?

자기의 불에 물을 부었다.

우리 불에는 기름을 부었다.

이는 누구에게 좋은 지농인가?”라고, 죽이기 위해서 계략을 써서 오이라드의 대신과 관인들이 지농에게 말하기를, “지농 [당신이] 카안이 되면, 우리의 에센 타이시에게 당신의 지농 칭호를 하사해주시자고 의논했던 우리들의 말이 사실이 아닙니까? 지농에게 카안의 칭호를 바치겠습니다. 우리들은!” 지농의 칭호는 에센 타이시에게 하사해주시라고 잔치를 열고 지농을 초대했다.

오이라드는 집 속에 깊은 구멍을 파고, 그 위에 융전(絨氈)을 덮고 지농을 비롯하여 33명의 모자에 깃털을 꽂은 자(örbelgeten, 하급 귀족), 44명의 깃털을 가진 자들(odwatan [= otuyatan], 귀족), 61명의 깃발을 가진 자(kigiratan, 군 지휘관)들을 한 문으로 들여보내고, 두 문으로 53a 내보내서 구멍이 메워질 때까지 죽였다고

“귀족들의 죽음은 회맹에서,

개의 죽음은 입이 작은 큰 통(yang) 속에서!”라는 속담이 여기서 나왔다고 한다. 그래서 카르고족 타이지는 그의 친구 나가초에게 말하기를, “전에 집에 들어간 지농을 비롯한 대소 관인들은 무엇을 하느냐?”고 [사람을] 보냈다. 나가초는 보고 와서 “지농을 비롯하여 모두를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집의 벽에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고 말했다. 그래서 카르고족 타이지는

“눅자고 하여 왔으니

눅자!

죽자고 하여 왔으니

죽자!”고 말하고, 단 한 명의 친구인 나가초를 데리고 암벽에 숨었다. 암벽 협로의 한 길로 두 겹의 갑옷을 입고 차례로 올 때, 나가초가 두 겹의 갑옷을 뚫어 쏘았다. 그 사람은 뒤에 있는 동료들을 붙잡고 53b 굴러떨어졌다. 다시 세 겹의 갑옷을 입고 창을 들고 올 때, 나가초가 말했다. “나는 할 수 없다. 네가 쏘아라!”라고, 카르고족 타이지가 황양뿔로 만든 각두전(oyunun jiryu, 角頭箭)으로 세 겹의 갑옷을 뚫어버리자 협곡에서 소리가 났다. 그는 또 뒤에 있는 한 사람을 잡고 굴러떨어졌다.

나가초는, “살아서 나간다 할지라도 걸어나가지 못할 것이다. 저 오이라드(qoyirad[=oyirad])의 말을 흠치자!”고 말하고 다가갔다. 에센 타이시는 바람이 불자 민소매 외투로 불을 가리고 앉아 있을 때, 둘러싸고 자고 있던 사람을 넘어 들어와서, 에센 타이시 옆에 묶어 놓은 불임의 담황색(eremeg šaryuyčin) 암말과 빠른 검은 갈기의 황갈색(qurdun

qula) 수말의 고삐를 풀 때, 툽툽(tüg tüg)하는 소리가 나서 나가보아도 아무도 없었다. 말고삐를 풀어서 그중 한 마리 말은 타고, 다른 한 마리는 끌고 갈 때, 또 툽툽하고 소리가 났다. 쳐다보아도 아무도 없었다. [그 소리는 바로] 제 54a 심장이 두려움에 뛰는 소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때 군영의 사람들이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다. 대답하기를, “너는 정말로 빈틈없는 사람이구나! [우리는] 몽골의 카르고축 타이지와 나가 초라는 두 사람이다. 그들을 잡아라!”라고 말하고, 군영을 뛰어넘어 들어가서 카르고축 타이지 옆에 가서 불렀으나 소리가 나지 않았다. [카르고축은] 도망쳤다. 그때 뒤에서 부르자 왔다. [나가초가] 왜 도망갔느냐고 하자, [카르고축은] “너를 오이라드가 잡으면 내가 어디 있는지 가르쳐줄까봐 도망쳤다!”고 말하고, 흠쳐온 [두 마리] 말을 타고 코도고도(qoduyudu)의 콜로손(qulusun)이라는 곳에서 나무 속껍질로 노끈을 엮어 말을 묶고 있을 때, 여우가 다니는 길을 밟으며 기는 사람을 보고 도망쳐서, 먹을 것도 없이 안장도 없는 말을 타고 갈 때, 카르고축이 꽃사슴(siu buyu)을 쏘아서 잡았다. 늑골로 안장을 만들고, 54b 고기는 양식으로 삼아, 토그목(tomuy[=toymuy])의 부자에게 찾아갔다. 그 부자의 동생은, “이 사람은 눈에 불이 있는 사람입니다. 친구로 삼지 마시고 죽이십시오!”라고 말했다.

“누구의 사람도

누구와도 친구가 되지 않겠다!”고 말하고 죽이지 않았다. 그 뒤에, 나가초가 카르고축 타이지에게 말했다. “혼자 다니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들은! 내가 오이라드에 가서 당신의 카톤을 데리고 와보겠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자기가 고관인 것을] 알리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절

대로 믿지 마시오. 많은 짐승을 죽이지 마시오!”라고. 이 말을 하고, 나가초는 에센 타이시에게, “카르고축을 내가 죽였다!”라고 말하며 머리털을 증거로 가지고 갔다. 후에 부자는 자기 딸을 카르고축에게 주었다. 사냥을 할 때, 20마리의 영양이 도망쳐나가는 것을 카르고축이 죽이고 두 마리는 내보냈다. 나머지는 모두 죽였다. 또 그 사냥에서 그 부자의 동생은 시기해서 잘못했다고 죽였다. 나가초가 55a 도착한 뒤에, 에센 타이시에게 어머니인 아가는, “나가초가 오면 죽이겠는가? 너는!”이라고 말했다. [에센 타이시는] “나가초가 오면, 그를 보면, 그의 살은 먹고 피는 마시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의 어머니는, “[그가] 카르고축을 죽인다면, [너도] 죽일 것인가?”고 말했다. “그렇다면 죽이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자, 어머니는 나가초를 에센 타이시에게 상봉시켰다. 은총을 받은 사람이 살아서 나갔다.

그 뒤 에센 타이시는 토그목(tomuy[=toymuy])에 출정할 때, 그 군대에 나가초를 에센이 데리고 출전했다. 나가초는 두 마리 말을 타고 군대의 전열 밖으로 나갔다. 거기서 오이라드는 토그목을 공격했다. 오이라드의 선봉대를 나가초가 따라가서 한 무리의 말떼를 포획해서, 에센 타이시에게 주었다. 은쟁반과 담비 외투 둘을 감추었다가 어머니에게 드렸다. “은쟁반을 내게 주지 않았다!”고 에센 타이시가 55b 분노했다. 어머니는 말했다. “어머니를 시기하는가? 그는 카르고축을 죽여서 [당신의] 불임의 담황색(širyučin) 말을 가져와서 주었다!” 말떼를 포획해 빼앗는 것을 보고, 에센 타이시는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술개(eliy-e)다!”라고 말했다. 나가초의 ‘술개’라는 별명은 여기서 비롯된 것이다. 엘리에[술개] 나가초는 그곳에 있었다. 에센 타이시의 딸인 카르

고축 타이지의 처 비기지(bigiji)가 임신했다. 오이라드의 우부이 코지기 르(übüi qojigir)가 [그녀를] 얻었다. 몽골의 정사를 오이라드가 찬탈한 뒤, 에센 타이시는 시구시테이 노얀을 초대했다. 그에게 시구시테이 노얀은 30명의 동료와 함께 갔다. 10명의 친구와 같이 궁전에 들어갔다. 에센 타이시가 사람을 보내서, 시구시테이에게서 고일린치를 자른 강철 검을 가지고 오라고 했다. 시구시테이는 [그의] 나쁜 생각을 알고, 칼집에 든 칼로 사람의 머리를 치려고 할 때, 올로가이 메르겐(oluyai mergen)이 잡아서 치지 못했다. 시구시테이는 칼을 건넸다. 그 사람은 칼을 받아들고, “고일린치를 56a 죽인 칼이 이것인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시구시테이가 말하기를,

“물건은 맞는데, 주인은 아니다”라고 했다. 시구시테이 옹을 비롯하여, 올로가이 메르겐 등 10명의 친구를 죽였다고 한다. 오이라드의 사람이 새를 잡아서 이것은 무슨 새냐고 물을 때, 발가벗은 아이가 와서, “입은 크고, 손바닥은 넓고, 어깨는 끝이 가늘고 꼬리는 짧은 이러한 새는 곰의 우리에 넣어버립니다. 이 새는 독수리(tas)의 새끼로 카치르[독수리] 데르비드(derbid)라는 것입니다!”라고 말하자, 그 사람은 가서 에센 타이시에게 말했다. “이 새를 우리는 모릅니다. 몽골의 한 작은 아이가 알고 있습니다!” 에센 타이시는 말하기를, “이 아이는 의심스럽다. 데리고 오라! 시구시테이 바야토르의 아들을 찾았으나 잡지 못했다. 이것은 고아의 자손이다.

여자아이면

머리를 빗겨줘라.

남자아이면 목숨을 끊어라!” 56b 라고 하며 사자를 보냈다. 사자를 보고 솔롱고드의 상쿨다리의 처 카락친 타이보진(qarayčïn tayibujin)은 볼리나이에게 움직이지 말라고 하며 술으로 덮고, 그 위에 마른 소똥(aryal, 乾糞)을 뿌렸다. 착각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주었다. 한 사람은 [말에서] 내려서 죽이자고 발가벗겨 목에 올라미를 씌웠다. 친구가 말하기를, 그날의 어린아이는

“토끼의 현명함(jotai)이 있고

눈에는 불이 있었다. 이 아이가 아니다. 죽이지 말라!”고 하여 놓아 주었다. 그 사자가 돌아간 뒤 카락친 타이보진은 아들에게 교훈을 가르쳐주었다.

“너를 도망시켜주겠다. 너는 내가 많이 때리든 적게 때리든 [자기가] 오이라드라고 해라. 네 아버지 어머니, 고향이나 부족은 어려서 잃었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고 해라!”고 말했다. 그 뒤에, 오이라드의 일라조 바얀(ilaju bayan)에게 주었다. ‘제 부모도 모르지만, 너는 우리 오이라드의 자손이다!’라고 불쌍하게 생각해서 데리고 갔다. 카락친 [타이보진]은 자기 남편에게 말했다. “[그는] 우리들 귀인의 57a 자손이다. 데리고 몽골의 땅으로 가자!”. 상쿨다리는 그곳은 멀다고 따르지 않았다. “너는 여기 있어라. 내가 아이를 데리고 가겠다!”라고 말하고, 장남인 마르가스(maryas)를 보내서, 볼리나이를 훔쳐와서는, 우네발라드 옹에게, 즉 [그의] 동생에게 보내주었다. 우네발라드 옹은 말하기를, “내 형! 당신이 없을 때 제가 불법으로 통치했습니다. 옹은 법에 따라 우리 형님 이신 당신이 통치하십시오!”라며, 검은 깃발을 갖게 해드렸다. 몽골의

나라를 찬탈한 뒤, 토곤 타이시는 큰 뜻을 품고, 군주의 나이만 차간 게르(naiman čayan ger, 八白室)에 절하고, 칸위를 갖겠다고 하며 와서 칸이 되었다. 토곤 타이시는 군주의 은총에 취해서,

“네가 성스러운 군주라면,

나는 성스러운 카톤의 자손이다!”라고 큰소리치며, 군주의 게르[naiman čayan ger]를 내리쳤다. 그곳에서 되돌아나갈 때, 토곤 타이시의 코와 입에서 피가 흐르자, 말의 갈기를 끌어안으며 57b ‘이것이 무엇이야?’고 보는데, 성군의 화살 통에 가득 꽂힌 독수리 깃털을 붙인 화살에 피가 떨어져 흐르는 것을 모두가 보았다. 토곤 [타이시]이,

“사내인 성군께서 사내인 것을 [스스로] 알게 했다.

여자인 성스러운 [카톤의] 아들인 토곤 [타이시] 나는 죽는다.

가시 같은 사람들은 없어진다.

다만 하나의 가시는

몽골진(mongyoljin) 부의 몽케(möngke)다.

그를 죽여라!”라고, 아들에게 말하고 죽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몽골진 부의 몽케를 죽였다. 몽골의 한 정권이 오이라드에게 빼앗겼다는 것은 이것이다.

그 뒤에 예센 타이시가 칸의 대위에 올라서, 오이라드와 몽골 둘을 데리고, 물가의 3만 주르치드[女直]를 토벌하여 자기 통치하에 두었다. 예센 [타이시]이 말하기를, “주르치드의 한 성을, 말의 가슴팍과 같은 [모양으로] 구축했기 때문에 빼앗을 도리가 없다!”고 하여 공격하지 않

었다. 한 성의 사람들을 몰살하여 호수에 버렸다. 피가 [강물처럼] 흘렀기 58a 때문에 ‘붉은 호수(ulayan nayur)’라고 부른 것은 이 때문이다. 원정하러 주르치드로 가는 도중에, 응시에부(yongsiyebüi [=yöngsiyebü]) 부의 아산 사미(asan sami)가 “대명 황제를 잡는 꿈을 꾸었다.”고 [아산 사미가] 에센 타이시에게 말해주었다. 에센 타이시는 “잡을 수 있기를! 만일 잡으면 네게 주겠다!”고 말했다. 주르치드 나라를 정복하고 돌아올 때, 중국의 징타이 황제(jingtai qayan, 景泰帝[正統帝])가⁸⁶ 군사를 이끌고 몽골에 출병해왔을 때, 도중에서 서로 만났는데, 한인이 호(yuu küriy-e)를 파고 방해했다. 에센 타이시는 돌아가는 척하고 척후병을 보냈다. 한인이 호에서 나와서 갔다. 에센 타이시는 돌아와서 한인 군사를 진압했다. 300명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을 모두 죽이고, 한 사람을 산 채로 사로잡아서 “왜 움직이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그 사람은, “우리들은 대명(大明) 황제의 대신이다. [황제를] 버리고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느냐?”고 말했다. “너희 황제는 어디에 있느냐?”고 58b 물었다. 그 사람은 황제가 숨어 있는 땅속을 가르쳐주었다. 황제를 구멍에서 끌어내어 베려 했으나, 그의 몸은 상처가 나지 않고, [오히려] 칼이 조각조각 부러져서 떨어졌다. 묶어서 물에 버려도 가라앉지 않고 떠올랐다. 죽이기 어려워서 징타이 황제를 꿈에서 본 대로 아산 사미에게 주었다. 에센 타이시가 되돌아갈 때, “이 포로가 대명의 징타이 황제를 잡은 것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다. “어느 누구라도 말하면 죽이겠다!”고 말했다. 에센 타이시는 집에 돌아온 뒤에 어머니에게, “노획물은 없습니다. [다만] 건강할 따름입니다!”라고 말했

⁸⁶ 여기서는 정통제(正統帝)를 경태제(景泰帝)로 잘못 적고 있다.

다. “너는 무엇 때문에 감추느냐? 큰 포로를 잡았는데, 대명 징타이 황제를 잡아왔다고 들었다!”라고 말했다. “그 말을 누가 했습니까?”라고 물었다. 그의 어머니는, “몽골의 응시예부(yongsiyebüi [=yöngsiyebü]) 부의 소르손(sorsun)이 말했다.”고 그의 아들인 에센에게 말했다. “말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너는 왜 말했느냐?”고 소르손을 59a 죽여서 가슴과 궁둥이를 베어서 구부러진 나무에 매달아버렸다. 그 뒤, 오이라드 우익의 알락 테무르 칭상(alay temür čingsang)과 좌익의 카톤 테무르(qatun temür) 두 사람은 “에센 [타이시] 당신은 칸[위]에 앉았습니다. 타이시라는 칭호는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에센 타이시는] 이 말에 “타이시 칭호는 내 아들에게 주었다!”고 하여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 두 사람은 말하기를, “알락 테무르의 용맹으로, 카탄 테무르의 강한 의지로, 압도라 세첸의 계략으로 오이라드와 몽골 두 나라를 정복하고 칸[위]에 앉았습니다! 당신은! 단지 당신만의 힘뿐이었겠습니까?”라고 하며, 그들은 군사를 모아 와서 에센 타이시를 습격했다. 에센 타이시는 도망쳐갔다. 처자식과 날뛰는 가축들을 빼앗았다.

그 뒤, 에센 타이시는 길을 잃고 헤매다가, 소르손의 처가 있는 계르에 가서 마유주를 마시고 나올 때, [89] 소르손의 처가 보고, “이 사람의 걸음걸이는 독기를 품은 에센이 걷는 것과 같이, 59b 찢룩거리며 걸어간다.”고 말했다. 어머니의 말씀에 저 사람이 “어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라고 그의 아들들이 물었다. 그의 어머니는, “에센 타이시는 그동안 스스로 화평을 깨뜨렸다고 한다. 이 사람이 바로 맞는 것 같다! 잘 보고 있어라!”고 말했다. 그 뒤에 또 [에센이] 왔다. 에센을 알아보고, 소르손의 아들인 부케 보곤(böke buyun)이 그를 잡아 죽였다. 보곤 형

제는 아홉이었다. 그 [징타이] 카안에게 몰로 자카토(mulu jaqatu)라는 여자를 주고, ‘모코르 세구세(muqur següse)’라는⁸⁷ 별명을 지어주고, 그를 용시예부 부의 아산 사미가 노예로 부리고 있었다. 그 나라에는 천재(天災)도 기아도 없었는데, 징타이 황제를 부리는 사람은 정직하지 않았다. [징타이 황제가] 잠이 든 후에는 몸에서 빛이 났다. [그는] ‘나는 여기 있노라!’고 글을 써서, 팔려고 하는 모피 털 속에 감추어서 보냈다. 이 글씨를 한인이 보고 글을 썼다. 60a 징타이 황제를 당신들이 부리고 있다! 당신에게는 어울리지 않으니 우리에게 모시고 오라고 했다. 산 남쪽의 6천 우지예드(üjiyed)를 보내주고 다이도(dayidu, 특허권)를 받았다. 용로 황제에게 힘을 보태주고 받은 3백 다이도, 징타이 황제에게 힘을 보태주고 받은 3백의 다이도, 산 남쪽의 [우지예드의] 6백의 다이도가 바로 그것이다. 일부는 징타이 황제를 몽골이 보내주고, 산 북쪽의 [몽골에게] 3백의 다이도를 내렸다. 그러다가 몽골의 화평이 깨졌기 때문에 막혀서 받지 못했다. 6천 우지예드와 산 북쪽의 3백의 다이도를 요구하여 받았다고 한다.

그 징타이 황제가 몽골 땅에서 얻은 몰로 자카토라는 여자에게서 태어난 아들을 몽골인이 데리고 남았다고 한다. 그의 후손이 아소드(asud)의 탈비 타보낭(talbi tabunu[a]ng)이라고 한다. 그 뒤에 마르구르키스 카안(margürkis qaγan)이⁸⁸ 대위에 올랐다. 60b 닭띠 해에 승천했

⁸⁷ 경멸하는 별명으로, 뿔 없는 마소 같은 노복(奴僕)이라는 뜻.

⁸⁸ 마르구르키스 또는 우케투 카안(Ükegtü qaγan, 재위 1455~1465). 1465년에 볼라이 타이시에게 죽임을 당했다.

다. 마르구르키스 카안은 자손이 없었다. 타이송 카안을 죽일 때, 모올란 타이지(muulan[=moolan] tayiji)를⁸⁹ 첩텐이 자기 딸의 아들[외손자]이라고 죽이지 않았다. 그 뒤에 첩텐에게서 모올란 카안을 켐치구드(kemčigüd) 부의 다가타르 타이보(dayatar tayibu), 고를라드(γorlad) 부의 콥치르 몰라타이(qubčir molatai) 둘이 대국의 변경으로 보내서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 그 사람은 마골리카이 옹(mayuliqai ong)에게 보냈다. 옹니고드(ongniγud) 부의 대신인 마골리카이 옹이 대국의 정치를 안정시켰다. “당신이 칸위에 앉으십시오!”라고 말했다. 마골리카이 옹이 말하기를, “우리의 카안 군주에게 자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몸과 후손에게 맞지 않습니다!”라고 하며 따르지 않았고, 마골리카이 옹은 모올란 카안을 배꼽 모양의 귀를 한 말에 태우고, 금강저(altan wčir, 金剛箸)을 들려, 일곱 살 되던 닭띠 해에 대위에 올랐다.

그 뒤에, 오르도스(ordusi[=ordus]) 부의 61a 몽케(möngke)와 카다보카(qadabuq-a) 둘은, “마골리카이 옹은 당신에 대해서, 사만다이 카톤(samandai qatun)과 내통했다고 하여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선동하는 말을 했다. 그 전에 ‘우리가 출진하자!’고 하여 출정했다. 모올란 카안을 병사가 보고, 마골리카이 옹에게 소식을 전했다. 마골리카이 옹은 믿지 않았고, 뒤에 군사들이 일으키는 먼지를 보고서야 알았다. 마골리카이 옹은 군사를 모아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말하

⁸⁹ 타이송 카안의 부인 알타가나 카톤에게서 태어난 첩텐의 외손자(재위 1465~1466). 1466년 정변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을 카안으로 앉히는 데 힘썼던 마골리카이 옹에게 죽임을 당했다.

기를,

“영원한 높은 하늘이시여! 당신은 아시리라!

그다음에 계신

홍복(洪福)을 받으신 [聖君] 당신은 아시리라!

당신의 자손들에게

저는 잘했습니다.

당신의 자손들은 나에게

나쁜 생각을 가졌습니다!”라고 하며, 하늘에 절을 했다. 마골리카이
웅은 3백의 군사와 더불어 숨었다. [그는] 자신의 몽골 자르고치(jaryuči)
라는 동생을 비롯하여 세 동생들을 싸우게 하여, 모올란 카안을 잡아서
개피 해에 마골리카이 웅의 손으로 죽였다. 61b 보르복(borbuy)의 바
얀 우르메기르(bayan örmegir)를 사로잡았다. 모든 대신이 죽이자고 말
했다. “모올란 카안의 앞에서 침병으로 갔던 이가 바로 이 사람이다.
카안의 침병으로 간 좋은 사람이 우리 앞에서도 침병으로 가지 않겠
느냐?”고 죽이지 않았다. 놓아준 뒤에 우르메기르는, 노란 손잡이 칼로
카안의 유해 밖으로 땅을 파고 묻어주었다. 모올란 카안의 몽골데이 카
톤(mönggöldei qatun)이 비통하게

“나의 애처로운 정치를 깨뜨린

만백성의 군주인 카안에게서 나를 이별시킨 것은

몽케와 카다보카 두 사람이다.

온전한 나의 정치를 파멸하고

만백성의 군주인 카안에게서 나를 이별시킨 것은

몽케와 카다보카 두 사람이다!”라며 울었다. 모올란 카안에게는 자손이 없었다.

타이송 카안과 악바르친 지농(aybarč'in[abgirč'in] jinong) 두 사람이 오이라드와 철펜에게 나라를 빼앗길 때, 어머니가 다른 만도골리라는⁹⁰ 동생은 조소타이(josutai)의 62a 부중에 유목하러 나갔다. 그 뒤에 만도골리 카안은 카스카란다(qasqaranda)의 부중에서 양띠 해에 대위에 올랐다. 만도골리 카안에게는 두 명의 카툰이 있었다. 한 사람은 만도카이(manduqai)이고, 다른 하나는 예케 카바르토 응켄(yeke qabartu yüngken)이다. 만도카이 카툰의 아버지는 투메드(tümed) 부의 앙게구드(enggegüd) 지방의 초루스보이 테무르 칭상(čorusbui temür čingsang, 丞相)이다. 예케 카바르토 응켄의 아버지는 오이라드 부의 베게르센 타이시(begersen tayisi)다. 예케 카바르토 응켄과 카안은 몸이 좋지 않아서 동참하지 못했다고 한다. 만도골리 카안은 돼지띠 해에 승천했다. 만도골리 카안의 유해는 마고 운두르(mayu öndür)에 묻었다고 한다. 오르친(orč'in, 코르친) 부의 바이토르 시구시테이(bayatur sigüsitei)의 아들인 우네발라드 옹(önebalad ong)은 몽골의 정권을 오이라드에게 빼앗겼을 때, 오논 강으로 유목하며 이주해갔다. 62b 뒤에 모올란 카안의 원수를 갚고자, 황색 말을 타고 마골리카이 옹에게 군대를 이끌고 갔다. 우네발라드 옹이 출정했음을 마골리카이 옹이 알고 도망쳤다.

⁹⁰ 1426년 아자이 타이지의 세 아들 중 막내로 태어나, 1475년 카안이 되었고, 1479년에 사망했다.

그래서 우네발라드 옹이 말하기를, “이수케이 바아토르(yisükei bayatur)는 똑같이 우리 아버지시다. 우리 어머니 우겔렌 에케(ögelen eke)에게서 태어난 테무진(temüjin), 카사르(qasar), 카초곤(qačuyun), 온치긴(öčigin [=o[t]čigin])은 한 배에서 태어났다. 둘째 [부인인] 소치긴 에케(sočigin eke)에게서는 벡테르(begter)와 벨게테이(belgetei) 둘이 태어났다. 벡테르를, 성군께서는 나의 선조인 카사르를 데리고 [함께] 죽였다. 그의 원한으로 오늘날 모올란 카안을 죽였다.

우리 카안에게는 자손이 없지만

카사르의 자손에는 내가 있다! 추격하자!”고 하고, 울고인 케리게(olyu-yin kerige)에서부터 추격하여 마골리카이 옹의 동생들과 자녀 일곱 사람을 죽였다. 앞서 모올란 카안을 죽일 때, 금박을 입힌 강철 투구를 얻었다. 몽골 자르고치를 63a 비롯해 일곱 명의 머리를 잘라버렸기 때문에, 그 땅은 ‘일곱 언덕(doluyad-un tolyyai)’이라는 이름[地名]이 되었다. 마골리카이 옹은 [배꼽 모양의 귀를 한] 말을 타고, 마른 타르바간 털외투를 입고, 쿵쿠이 자바칸(küngküi jabaqan)에 자작나무(altayaya [=altayana])로 막사(čačir)를 짓고, 모피를 양식으로 삼아, 말려서 누웠다가 뒤에 죽었다고 한다. 카사르의 자손이 카안의 자손에게 한 가지 도움을 주었다는 것이 이것이다.

카르고축 타이지의 처가인 오이라드에게 빼앗긴 비기지에게서 아이가 태어났다. 거기서 에센 타이시가,

“여자아이면 머리를 빗겨줘라!

남자아이면 목숨을 끊어라!”라고 아바보르기 다이동(ababurgi dayidung)에게 말하고는 보냈다. 비기지는 이것을 알고, 아들의 불알(jayay)을 뒤로 잡아당겨서 여아처럼 오줌을 누게 했다. 그 사람이 보고 “여자아이입니다!”라고 에센 타이시에게 말했다. 그 사람이 돌아간 뒤에 비기지는 자기 아들을 감추고 집에서 부리는 차카르(čaqaar)의 63b 콜라바드(qolabad) 지방 출신의 오다이 에메겐(udai emegen)의 딸을 모른척하고 요람에 넣었다. 그 사람은 또 와서 요람을 열어보고는 여아임을 확인하고, “여자아이입니다!”라고 에센 타이시에게 말했다. 그 뒤 오이라드의 우게데이 바야토르(ögedei bayatur)는 자기 주인에게 화를 내며, 나는 열세 번이나 전쟁의 선봉에 섰다. 그렇게 내 힘을 보였으나 칭찬하지 않았다고 말하자, 그의 맹우 엘리에 나가초(eliy-e nayaču)는, “당신이 존중받고 싶다면, 카르고족 타이지의 비기지에게서 사내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당신이 그를 몽골에 데리고 가시오. [그러면] 6만 몽골의 모자의 술(jalay-a)과 같이 귀중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우게데이 바야토르의 누이를 타타르(tatar)의 토키 바야토르(toki bayatur)가 얻은 바가 있다. 그런 이유로 토키 바야토르가 아들을 내주었다. 오이라드 삼림민(oi modun)의 아들 우게데이 타이보(ögedei tayibu), 쿵기라드(qonggirad)의 에셀레이 타이보(eselei tayibu), 카라친(qaračin)의 64a 볼로이 타이시(bolui tayisi), 사르타골(sartayul)의 바얀다이 아칼라코(bayandai aqalaqu) 이들 네 명이 그 아들을 데리고 가는데, 오이라드의 추적자가 따라잡지 못했기 때문에, 아바보르기가 훌륭한 밤색 말에서 내려서는 엘리에 나가초에게 주었다. 오이라드의 노인들이 말하기를, “네가 그 아이를 쫓아가서 데려오라!

마을(ayil) 사람들을,

종마(種馬)가 있는 한 무리의 말도

알아서 하라!”며 쫓도록 하였다. 거기에서 엘리에 나가초가 쫓아가자, 아이를 버리고 가버렸다. 그 뒤에서 엘리에 나가초가 아이가 들어 있는 요람의 손잡이를 활 끝으로 걸고서는 뒤쫓아가서 말하기를, “당신은 무엇 때문에 이 아이를 버리고 가고 있는 것인가?” 하고는 아이를 주고, 서로 엇치락뒤치락 활을 쏘아댔지만, 화살은 서로에게 다다르지 않았다. 그때 뒤에서 오던 동료들이 도착했다. 엘리에 나가초가 말하기를, “서로 쏘아서 박혀 있는 화살을 보았으면 믿고 돌아가시오!”라고 했다. 겨우 그곳에서 그들 넷은 그 아이를 데리고 64b 와서는 오르코드(uruyud)의 코톡토 시구시(qutuytu sigüsi) 곁으로 갔다. 그 아이가 자란 다음에 코톡토 시구시는 시키르(sikir)라는 딸을 볼코 지농(bolqu jinong)에게 시집보냈다.

그 이후에 바얀 몽케 볼코 지농(bayan möngke bolqu jinong),⁹¹ 만도골리 카안(manduyulai qayan) 둘이 6만호 백성을 통치하였는데, 그 뒤에 만도골리 카안에게 혈뜬는 말을 하는 쿵쿨리(qongquli)가, “당신의 동생인 볼코 지농이 [당신의] 예케 카바르토(yeke qabartu, 코쟁이) 웅켄(wüngken)을 취하겠다고 합니다.”라고 말했다. 만도골리 카안은 그 말을 믿지 않고, 동생 볼코 지농에게 쿵쿨리가 한 말을 확인하기 위해 사

⁹¹ 악바르지 지농의 손자이며, 카르고축 타이지의 아들. 그의 어머니인 세척 베이 지(비기지)는 예센 타이시의 딸이다. 한때 정권을 장악했으나 할아버지의 동생(작은할아버지)인 만도골리에게 카안의 자리를 평화롭게 넘겨주고, 자신은 볼코 지농이 되어 몽골의 우익을 통치하였다.

신을 파견하겠다는 성지를 내렸다. 콩콜리 또한 볼코 지농에게, “너의 장형인 대칸은 너를 자신의 몸과 대등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너에게 나쁜 마음을 품고 있다.”고 말했다. “내가 한 이 말이 거짓이라고 [칸이] 생각한다면 네게 특무 사신(tursiyul elçi)을 파견할 것이다. 그들이 알아챌 것이다!” 65a 라고 하였다.

그 이후에 만도골리 카안은 말의 뜻을 알아보기 위해 사신 두 명을 파견하였던 것이다. 그들 사신을 지농이 보고서, 예전에 한 말이 진실이라고 믿고, 나쁜 마음을 가진 것은 사실이었다고 잘못 생각하였다. 카안이 파견한 그 사신들에게 지농은 좋은 말을 하지 않았다. 그 사신들은 돌아와, “당신의 동생인 지농은 좋은 말을 전해주지 않았습니다.”라고 카안에게 아뢰었다. 카안은 생각하기를, ‘이렇게 되었다면 내게 나쁜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다! 내 몸은 건강하지 못하다. 나는 자식도 없다. 내가 죽고 나면 카톤과 형수, 제수와 온 나라가 어차피 [그의] 것이다. 지금부터 [이렇게] 너무 서두르는 것은 나쁘다!’고 생각하고, 화를 내면서 [그를] 죽이겠다고 하자, 지농은 재빨리 눈치를 채고 늙은 누이에게로 갔다. 궁지(günji[=güngjü])는 베게르센에게 들키지 않고 숨어서, 네메쿠 초얀(nemekü čüneg[=čoyang])과 박비이(baybii) 두 아들에게 베게르센을 속여서 실토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베게르센 타이시를 65b 속이려고 말을 물었다. 그들의 사랑스러운 자식이 한 명 온다면, 타이시 당신에게 의탁하게 하려고 합니다. 나는! 베게르센이 이르기를, “그들의 자식들을 본다면 고기와 피를 먹고 마시려고 한다. 나는!”이라며 머리카락을 끌어올려 묶고 콧등을 치켜들면서 위압적인 자세로 앉았다. 베게르센 타이시가 사냥을 하러 출발하였다. 네메쿠 초

얀과 박바[비]이 둘은 가지 않았다. 뒤에 지농을 달려보냈다. 베게르센 타이시가 사냥 도중에 알아차리고, 사람을 보내 궁지에게, “지달(čidür)을 한 황금색 누런 말이 어디 있는가?”라고 물었다. 궁지가 말하기를,

“네 간(eligen, 마음)에는
복수심이 가득 차 있는가!
사랑하는 네 친족은
질투의 대상인가!
지달을 한 황금색 노란 말은
고향으로 돌아갔다.”라고 하였다.

베게르센이 사냥에서 돌아온 후에 궁지는 두 젓가슴을 열어젖히고는 말하기를, “이 몸은 먼저 죽어서 못 보더라도, 당신의 후손들이 쇠사슬로 묶이는 것을 살아 있는 백성들이 66a 보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볼코 지농이 코톡토 데레수테이(qutuγtu deresütei)라는 곳에 머무를 때, 시키르 타이코(sikir tayiqu)가 다얀 카안(dayan qayan)을 낳았다. 다얀 카안을 발락친(balayčin) 부의 바카이(baqai)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 주었다. 그 이후에 오이고드(uyıγud[=uyıγur, 위구르]의 이스말리[이스마일] 타이시(ismali tayisi)가 공격해와서, 시키르 타이코를 데리고 가서, 이스말리 타이시가 보살폈다. 볼코 지농이 볼로타이와 같이 보르복(borbuγ) 땅으로 도망갈 때, 응시예부 부에 도착하여 자신은 초원에 있으면서, 변경민들에게 알아보라고 볼로타이를 파견하였다. 볼로타이의 누이는 인사를 나누고는 [자신의] 동생을 잡고는 돌려보내지 않았다. 지농은 목이 말라 참을 수가 없어서, 어느 집에 들러 아이락

(ayiray, 馬乳酒)을 마시고 있을 때, 결혼하지 않은 한 여자가 지농이 타고 온 하얀색이 감도는 황금색 말과, 입고 있는 다람쥐 가죽으로 안감을 댄 망단(mangnuγ, 蟒緞) 뿔, 황금 허리띠 등을 전부 눈여겨보면서 앉았다. 지농이 말을 타고 66b 떠난 후에 그 여자는 물가에 많은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는 가서 말했다. “그러저러하게 보이는 한 사람이 지나갔어요!” 용시에부 부의 다섯 오tok(otoγ)의 케리에(keriy-e)와 차간(čayan) 두 명과 테무르 몽케(temür möngke), 카라 바다이(qara badai) 등이 모두 쫓아가서 지농에게 “[너는] 뭐하는 사람이나?”고 물었다. [지농은] 지나가는 과객(過客)이라고 답했다. “황금 허리띠를 내놓아라!”라고 말했다. [지농은] 주지 않았다. 용시에부 부의 몇 명이 바얀 몽케 불코 지농을 잡아서 밧줄로 묶어서 죽이니, 호랑이띠 해에 하늘로 올라갔다. 용시에부 부의 잘못 하나가 바로 그것이라고 한다.

다얀 카안을 부실하게 키우고 있을 때, 탕나가스(tangnayas)의 툴레 게리(tölegeri)의 일곱 짝 아들인 테무르 카다이 와서 바카이에게, “이 아이를 훌륭한 사람에게 주시오. 그렇게 하지 않겠다면 나에게 주시오.”라고 청했으나, 주지 않았다. 그런 이후에 테무르 카다이 형제 여섯 명과 함께 좋은 붉은 말을 타고 가서, 빼앗아왔다. 67a 다얀 카안이 비장 비대중(beteg[e]=betegi) ebeč[in]=ebedč[in])에 걸리게 되었다. 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테무르 카다이의 부인은, 처음 새끼를 낳은 아홉 마리의 세 살짜리 하얀 낙타의 젖으로 세 개의 은잔이 다 닳아서 구멍이 뚫릴 때까지 문지르는 것이었다. 그 치료 덕분에 일곱 번이나 이끼 같은 것을 토하고 나서 좋아졌다. 다얀 카안이 고통을 겪은 한 가지는 바로 이것이었다.

그런 다음에 다얀 카안을 탕나가스의 테무르 카닥이 데리고 가서 사인 [만도카이] 카톤의 손에 건네주었다. 사인 만도카이 카톤(sayin manduqai qatun)은 옛날의 카안들의 원한을 열거하고는, [그 원한을 갚겠다고] 출정하기 위해, 보병과 소를 탄 군사를 보내고 나서 3일 후에 기병을 데리고 출발하였다.

사인 만도카이 카톤은

훌륭하게 화살통(saybar)을 메고

황망한 백성들을 모아

다얀 카안을 마차에 매단 바구니(ükeg)에 싣고 출정하였다.

케식텐(kesigten) 부의 알라이둥(alayidung)으로 하여금 길을 안내하도록 하고, 4만 오이라드를 징벌하려고 할 때, 사인 카톤의 투구가 벗겨져 67b 목에 걸친 채 진군하고 있는데 오이라드 부의 한 사람이 보고는 “투구가 없으니 이것을 쓰시오!” 하며 자신의 투구를 주었다. 카톤이 투구를 받아 쓰고, 함성을 지르며 진격하여 4만 오이라드를 정복하였다.

타스(tas)와 보르도(burdu[=büridü])라는 곳에서 진격하여

데게두네(degedün-e)라는 곳에서 전투를 벌여

수없이 많은 물품을 노획하여

발전시켰네! 6만 백성을! 오이라드의 정권 하나를 미혹케 하였다.

그런 다음에 사인 [만도카이] 카톤을 코르친의 우네발라드 옹이

“[당신의] 불을 부싯돌로 피워주고

당신이 유목할 땅을 가리켜주겠다!”라고 하였다.⁹² 사인 카톤이 성지를 내리기를

“우리 카안들의 유산을

카사르의 후손이,

너희의 유산을

우리가 가지려 하는가!

[우리 집에는 아무나] 등에 질 수 없는 펠트 문과

뺨지 않고 지나갈 수 없는 문지방이 있다!⁹³

우리 카안의 후손이 있기 때문에

네게 시집가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런 이후에 알락초고드(alayčuyud)

부의 사타이 도골랑(satai doyulang, 절름발이 사타이)에게 68a “이러한
웅(왕)의 말씀이 옳은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라고 물었다. 사타이 도
골랑이 “옳습니다. 시집가지지요!”라고 답했다. 그런 이후에 고를라드
부의 멘드 우를룩(mendü örtüg)의 지칸 아가(jiqan aγ-a)에게 같은 질문
을 했다. 지칸 아가가 이르기를,

“카사르의 후손에게 시집가면

잘못된 길을 밟아서

모든 백성에게서 떨어져서

카톤의 이름을 잃게 되리라!

⁹² 즉, 결혼하자는 뜻이다.

⁹³ 그만큼 아주 중요하다는 뜻이다.

카안의 후손에게 시집간다면
 높은 하늘의 은혜를 받아
 모든 백성을 정복하여
 카톤의 이름을 떨치리라!
 저쪽 사람들에게 시집간다면
 하얀 [선(善)한] 행위가 이어져
 차카르 만호(萬戶)를 정복하리라!
 무한한 명예를 드높이리라!”고 하였다. 사인 카톤은 [지칸] 아가의 말
 에 동의하고, 사타이 도골랑의 말이 틀렸다고 하여 뜨거운 차를 머리에
 들이부었다.

동북아역사재단

“우리 카안의 후손을
 보잘것없다고,
 우리의 모든 백성을
 주인이 없다고,
 카톤인 나를

과부가 되었다고, 68b
 카사르 숙부의 후손이

강탈하였다.”라는 사인 만도카이 카톤의 이 말을 성지로 삼아, 다안
 카안에게 세 겹으로 된 장화를 신기고, 알락초고드 부의 암소 젖으로
 빛은, 얼룩색깔의 술병에 담은 술을 들고, 집안의 귀족인 멩겐 이라고
 (menggen irayu)로 하여금 홍복(洪福)을 받은 카톤에게 훌뿌리게 하고
 는 [다음과 같이]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

“검은 말 색깔도 알아보지 못하는 땅으로 시집을 왔다.
 너희, 카안의 후손이 어리다고
 카사르 숙부의 후손이 취하겠다고 할 때
 옥궁(玉宮) 옆에 왔네! 나는.
 알록달록 색깔의 말을 알아볼 수 없는 땅으로 시집을 왔네.
 너희 자손들이 어리다고
 먼데 있는 숙부가 [나를] 취하겠다고 할 때
 두려운 목숨을 버리고
 황금 궁전 곁으로 왔네! 나는.
 두려운 내 목숨은 쇠약해졌네.
 부끄러운 내 얼굴은 망가졌네.
 넓고 커다란 너희 [펠트]문이 가뱃다고
 높고 위대한 너희 문지방이 가느다랗다고
 우네발라드 옹(önebalad ong)에게⁹⁴ 시집간다면 69a
 네 말을 잡는 장대는 길고
 네 올가미는 크기 때문에
 나를 올가미로 잡아라!
 네 자손들을
 별 볼일 없다고 멸시하고 차지한다면
 우네발라드 옹을 올가미로 잡으라고 하였다.
 적들이 둘러싼 [상황에서]
 왕자가 태어나셨네.

94 카사르의 후손.

너희 왕자는 세상을 떠났다고
 이 몸이 제멋대로 시집간다면
 [나의] 사지를 잘라버리겠다!
 우리 성군(聖君)의 아들이 태어났다.
 주군인 너의 아들을 잃었다고
 여자인 이 몸이 제멋대로 시집간다면
 [위대한] 에시 카톤(esi qatun, 正后[소르각타니 베키])이시여! 당신 앞에
 무릎을 꿇겠나이다!”라고 하였다. 이 진실한 말로 에시 카톤에게 고해
 를 올렸다. 그런 다음에 또한 에시 카톤에게 복을 바라며 빌기를,

“내가 한 이 말을 받아들여신다면

나의 에시 카톤 어머니시여

내 앞섰 안쪽에는

아들 일곱을 주시고

내 앞섰 바깥쪽에는

딸 한 명만 주시기를

내가 한 이 말로 인해

아들 일곱 명을 낳게 해주신다면

일곱 명 69b 모두에게

볼로드(bolud)라는 이름을 주겠나이다!”라고 하며 나갔다. [만도카이
 사인] 카톤의 그 말씀을 듣고 우네발라드 옴은, 예전에 한 말을 다시는
 하지 않게 되었다. 다만 키안이 일곱 살 때 콜로고르(quluyur, 타르바간)
 강에서 물에 빠졌을 때, 탕나가스 부의 아인 테무르(ayin temür)라는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서 구해냈다고 한다. 그 이후에 바토몽케 다얀 카

안이⁹⁵ 일곱 살 때, 만도카이 카툰이 혼인을 하여 그해, 즉 돼지띠 해에 칸의 자리에 앉았다. 그전에 복을 빌었던 연유로, 만도카이 카툰에게서 일곱 명의 아들과 딸 한 명이 태어났다. 투루 볼라드(törü bolad)와 울로스 볼라드(ulus bolad)는 쌍둥이였다. 아르소 볼라드(arsu bolad)와 바르소 볼라드(barsu bolad)도 쌍둥이였다. 그다음에 [만도카이] 사인 카툰은 오치르 볼라드(wčir bolad)와 알초 볼라드(alču bolad) 둘을 가지고 아홉 달이 되었을 때, 오이라드 부가 습격하였다. 그때 사인 카툰이 말에서 떨어졌는데, 바라고드(barayud) 지방의 사인 사이한(sayin sayıqan)이 [그녀를] 보호하자, 발락친(balaγčin) 부의 바얀 부케(bayan böke)와 아소드(asud) 부의 바토 볼라드 부케(batu bolad böke) 둘이 사인 카툰을 미란(miran) 70a 지방에서 나는 우수한 담황색 말에 태우고 출발하여 도망갔다. 한 달이 지나서 오치르 볼라드와 알초 볼라드 둘이 쌍둥이로 태어났다. 그다음에 알 보고라(al buyur-a)가 태어났다. 이들 일곱 명에게 모두 볼라드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오로고드(uruyud) 부의 코톡토 시구시(qutuγtu sigüsi)의 손녀인 사모르 타이코(samur tayıqu)에게서 게레센제(geresenje)와 오바산자(ubasanja) 둘이 태어났다고 한다. 그리고 다른 구세이 카툰(güsei qatun)에게서 가로도(garudu)와 칭(čing) 둘이 태어났다고 한다. 이들 모두가 다얀 카안의 열한 명의 자식들이다. 그런 이후에 남쪽으로 이동하여 차간 게르테이(čayan gertei)라는 곳에 머무르며 유목을 하였다. 에르케구드(erkegüd) 부에서

95 1473(?)년 바얀 몽케 볼코 지논의 아들로 태어났다. 만도카이 세첸 카툰의 도움으로 1479년 일곱 살에 칸위에 올라 몽골의 여러 부족을 통합하여 통치하였다. 그는 1482년부터 직접 통치를 시작하여 1527년까지 재위했다.

초병(哨兵)을 내어주었다. 중국[키타드] 군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알고 [다얀] 카안에게 [사람을 보내] 소식을 전해주었다. 그리고 또한 에르케 구드 부의 구둥(güdüng)과 보보스(bubus) 둘을 70b 초병으로 내보냈다. 그들은 쿠케 코타(köke qota, 歸化城)에서⁹⁶ 군대가 맞이하러 오는 것을 보았다. 구둥과 보보스 둘은 될 수 있는 한 빨리 카안에게 와서, 한 명은 게르 뒤쪽에서 깨우고 한 명은 묶어둔 말을 풀어서 데리고 와서는 카안과 카톤 둘을 태우고는, 메닝 초원(menen tala) 쪽으로 도망갔다. 차가장 카톤(čayajang qatun) 머느리는 다람쥐 가죽으로 만든 옷옷(keremün uyjur)을 입은 채 도망갔다. 그 차가장[진] 비기지(čayajin bigiji)를 백세 태후(jayun nasutu tayiqu)라고 한다.

그런 다음에 케를렌(kerülen) 지방에 머물렀다. 다얀 카안은 몽골진 부에게로 군대를 내어 쉬지 않고 달려서 투르겐 강(türgen-i[=türgen-ü] youl)을 건너는 얇은 물길 옆에서 하룻밤을 지냈다. 몽골진이 알고 군대를 데리고 와서 투르겐 강가에서 서로 만나고, 몽골진 부의 달라드(dalad)의 용사인 네구레케이(negürekei)가 좌우에서 뿔피리와 나팔 등을 불면서 공격하였다. 카안의 군대가 놀랐다. 그 투르겐 71a 강가의 카안이 타고 있던 바가린(bayarin) 지방에서 나는 담홍색 말도 놀라서 진흙탕에 빠져서 넘어졌는데, [다얀 카안의] 투구 끝[장식]이 땅속에 박혀서 일어설 수가 없었다. 베수드(besüd) 부의 토간이 이마에 점이 박힌 훌륭한 말이 진흙에 빠져 넘어졌다고 하여, 베수드 부의 차간 마고 치라이(čayan mayučirai)를 불러서 ‘내려라!’ 하고는, 둘이서 같이 [말에

⁹⁶ 오늘날 중국 네이멍구자치구의 성도인 후허하오터[呼和浩特].

서 내려 카안의 투구 끝을 잡아당겨 빼내서는 말에 태워주었다.

카안을 말에 태워준 베수드 부의 토간과 마고치라이 둘은 고를라드의 카라 투루(qara türü)를 도와주었다. 다만 카안이 친히 가서서 몽골진 부의 군대를 진압하였다. 다만 카안은 투르겐 강의 상류에서 쉬며 후방부대가 오기를 기다렸다. 다만 카안은 케식텐 부의 노약타이(noyaytai)가 부친의 술으로 고기를 삶아서 끓자 고기는 땅에 쏟아버리고 술을 빼앗았다. 후방부대의 군사를 맞이하러 나왔다.

그 이후에 71b 오이고드(uyiyud, 위구르) 부의 이스말(ismal)에게 군대를 파견하였다. 고를라드(yorlad) 부의 토고치 시구시(toyuči sigüsi), 카고치드(qayučid) 부의 에센 투겔 차간 아만(esen tügel čayan aman), 추분 바이토르 밍가토(čübün bayatur mingyatu), 아를라드(arlad) 부의 모올라(muula), 케식텐(kisigten[=kesigten]) 부의 베르치 아칼로코(berči aqaluqu), 라복 시게친(labuy sigečin), 타타르(tatari[=tatar]) 부의 타르곤 카라(taryun qara), 시라 바톨라드(sir-a batulad), 캄추구드(kemčügüd) 부의 코리 바야스코(qori bayasqu), 고를라드(yorlad) 부의 바바카이 우를룩(babaqai örlüg), 타라친(taračin) 부의 바가소카이(bayasuqai), 코니 캅타가이(qoni qabtayai), 보르복(borbuy) 부의 몽케 벨구(möngke belgü), 두치긴(döčigin), 비키 우게데이(biki ögedei), 아가 테무르(ay-a temür) 부의 세구세 밍가토(següse mingyatu), 사라고드(sarayud) 부의 에센테이(esentei) 등 이들 모두는 사이드직의 지휘관으로 군대를 파견하였다.

그들 군대가 도착할 때쯤, 이스말의 게르 지붕덮개를 관리하던 알락(alay)이라는 부인이 그 군대가 타고 오는 말발굽 소리를 듣고는 이스말에게 “땅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라고 말했다. 그 부인은 훌륭한 밤색 말을 끌어서 이스말 타이시를 태웠다. 이스말은 말을 타고 그 시끄러운 [말발굽] 소리가 나는 곳을 살펴보러 72a 갔다. 고를라드 부의 토고치 시구시와 맞닥뜨렸다. 토고치 시구시가 이스말 타이시를 알아보고는 활로 쏘아 죽였다. 토고치 시구시는 이스말의 아들 콜라리(qulari)라는 이름의 귀공자를 잡았다. [그 귀공자의] 갑옷은 카고치드 부의 용사 밉가토가 가졌다. 시키르 타이코에게 출발하라고 말했다. 울음 때문에 출발하지 못했다. 토고치 시구시는 화가 나서,

“[너의] 남편인 지농이 나쁜 것인가!

[너의] 아들인 카안이 나쁜 것인가!

너희 차카르 부 백성도 또한 나쁜 것인가!

너는 무엇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울고 있는가?”라며 칼을 만지작거리며, 말에 올려 태워서는 데리고 왔다. 시키르 타이코에게서 태어난 바보다이(babudai)와 보라카이(buraqai) 둘을 데리고 함께 돌아왔다. 다만 카안이 어머니 시키르 타이코에게 문안인사를 올릴 때 토고치 시구시가 말했다.

“네 원수를 죽였다.

네 원한을 풀어주었다. 내가!” 그 이후에 시키르 타이코는 시라 무렌(sir-a mören, 黃河)의 세르게메이(sergemei)에서 세상을 떠났다.

72b 오이고드[위구르] 부의 베게르센 타이시가 연회 준비를 위해 음식[고기]을 끓이고 있을 때, 살코기를 끓인 기름진 국물을 베게르센 [타이시]이 식히면서 마시고 있을 때, 암단(amtan[=amdan])의 몽골진(mongjoljin) 부의 툽신(töbsin)의 아들인 사인 돌루게겐(sayin dölügegen)이 목이 말라, 베게르센에게 “고깃국을 좀 주세요!”라고 말했다. 베게르센은 식은 국물을 다른 그릇에 따라버리고는 그릇에 [뜨거운 고깃국]을 담아서 주었다. 뜨거운 국물인 줄 모르고 꿀꺽 마셨기 때문에 입[천장]을 데었다. 돌루게겐이 생각하기를, ‘이 뜨거운 국물을 삼킬 것인가, 그러면 가슴이 타겠지! 내뱉을까, 그러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라며 입안에 머금은 채로 식혔다. 입천장이 모두 벗겨져 떨어졌다. 돌루게겐이 말하기를 “이 원한은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다. 언젠가는 생각나게 할 것이다. 나는!”이라고 했다. 그 원한을 생각하며 지나다가, 그 이후에 디얀 카안이 차카르 부와 투메드 부 두 부족을 [거느리고] 정복하고 베게르센 [타이시]에게 군대를 데리고 가서 합류하였다.

몽골진 부의 장기 테무르 아칼라코(janggi temür aqalaqu)를 73a 시험해보라고 했다. 장기 테무르 아칼라코는 베게르센의 게르로 한쪽 눈을 감고 들어갔다. 장기 테무르 아칼라코는 어찌 이렇게 된 것인가? 하고 물었다.

“아! 이 못난 나는

편안하게 살다가 적이 되었구나!

건강하게 살다가 병이 들었구나!”라며 장기 테무르 아칼라코가 말했

다. 베게르센 타이시는 장기 테무르 아칼라코에게 은쟁반에 술[아르키]을 따라주었다. 장기 테무르는 아르키를 마시며 앉아서 말했다. “내가 술을 마셨다는 증거다!”라며 은쟁반을 품에 안고 나가버렸다. 장기 테무르가 나간 뒤, 베게르센 타이시는 장기 테무르가 한두 마디 무슨 말을 했는지 점을 쳐보았다. 검은 소의 뿔 끝에 있다는 점괘가 나왔다. 내 점괘가 나쁘게 나왔다면 군사를 소집했다. 가까이 있는 군대의 먼지를 보고 “어떻게 된 것인가?”라며, [자기] 아들인 네메쿠 초양(nemekü čüneg[=čoyang])에게 물었다. 네메쿠 초양이 “아버님이 가지신 많은 거세마의 먼지일 것이다!”라고 하였다. 다얀 카안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73b** 공격하였다. 베게르센이 도망치는 것을 보고 쫓았다. 거의 따라잡을 무렵, 머리에 썼던 투구를 벗어서는 길잡이에게 씌워주어 착각하게 하고는 도망갔다. 투메드 부의 툽신의 아들 사인 둘루게젠과 키타드(kitad)의 아들 우누구치(ünügüči) 자코이 코라가치(jaqui qurayači) 둘은 투구를 쓴 사람이 베게르센이라고 여겨 막아섰다. 막아서고 보니 베게르센이 아니라 길잡이였다. “네 주인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다. “저기 가고 있네요!”라며 가리켰다. 베게르센을 뒤쫓아 잡아서 길치르 투쿰(gilčiri-yin töküm, 분지)에서 죽였다. 죽은 그곳에서 소금이 생겨났다고 한다.

베게르센의 아들 네메쿠 초양이 슬퍼하며 말했다.

“[자기] 친척을 건드리기도 했다!

일족을 해치기도 했다!

[같은 가족에게서] 태어난 자들을 깨물기도 했다!

검은 머리를 눕혀버렸구나! 너는.” 이바라이(ibarai)⁹⁷의 동생이 오리 양칸(uriyangqan) 부의 바얀 토틀(bayan toytu)의 훈련받지 않은 담황색 종마 등을 흠쳤으나 벌은 74a 주지 않았다. 죄를 묻지 않았으며 말떼를 쫓아서 오자, 이바라이의 동생이 쫓아와서 [서로] 칼로 싸우다가 죽임을 당했다. 그로 인해 더 큰 죄를 범했다. 그 죄를 물으라고 다얀 카안에게 우익(右翼) 삼만호(三萬戶)에서 몽골진 부의 울제이(öljei)의 아들 옹고로코이(onggyuruqui), 오르도스 부의 칼리고친(qaliyučin)의 오다가치 사비(udayači sabi) 둘이서 차간 게르(čayan ger)에 제수용품을 차리고 목숨만 살려달라고 빌게 하고, 또한 정치를 잘하라고 하며 사신을 보내왔다. 다얀 카안은 가지 않고, 울로스바이코라는 아들[왕자]과 함께 고를라드 바바카이 장군을 팔려보냈다. [보내온 사신 중] 다른 한 명인 옹고르코쿠이를 [거기에] 주저앉게 하였다. 다른 한 명의 사신인 오다가치 사비는 회맹이 열리는 곳으로 갔다. 그곳에서 아바카이는 차간 게르에 도착하여 다시 절을 했다. 왕자와 [함께] 갔던 동료들은 오이고드[위구르] 부의 사람에게 말 한 마리의 빛을 받아야 했다. 그 빛을 받았다고 가서는 다툼을 벌여 매를 맞았다. 74b 왕자는 무엇 때문에 내 동료를 매질했느냐고 화를 내며 가서는 그 사람을 죽여 버렸다. 오이고드 부의 이바라이 타이시와 오르도스 부의 레구시 아칼로코 둘이 와서 보고는 화를 내며 꾸짖기를,

97 이바라이 타이시(?~1533)는 오이고드 부의 이스말리 타이시의 뒤를 이어 우익의 타이시가 되었다. 나중에 오르도스 부의 만돌라이(또는 레구시) 아칼라코에게 죽임을 당했다.

“우리의 정치를 바로잡겠다고 온 것이다.

우리의 머리를 베겠다고 온 것이 아니더냐!

지금부터 정치를 할 이런 사람[왕자]은

이후에 어느 누구도 가리지 않고 죽일 것이다!”라며 군대를 이끌고 와서 서로 죽이고 있을 때, 바이토르 구리순(bayatur gürisün[=gürisün]) 이 자신의 훌륭한 은백색(buyural[=buyurul]) 말에서 내려 왕자에게 주고는 말에 태워서 도망치게 하였다. [차간] 게르의 고관들이 말했다. “네가 죽은 다음에 우리가 죽겠다!”라며 도망치지 못하게 했다. 왕자를 차간 게르에 피난하게 하고 [적들과] 죽기 살기로 싸웠다. [차간] 게르의 고관들을 죽이고 왕자를 잡아서 죽였다.

몽골진 부의 코쇼이 타보낭(qosui tabunang, 駙馬)의 부인인 도골롱 궁지(doyulung günji[=güngjü], 公主)라는 [왕자의] 누이가 이 소식을 듣고 왔지만, 도착하기 전에 죽었다. 공주는 모든 75a 몽골진 부의 게르를 무너뜨리고 상(喪)을 당했다. 왕자를 죽였다는 소식을 카안이 듣고 군대를 모아 도착했다. 모든 관료들은 [다얀 카안 곁에] 살았던 옹고로코이를 죽이겠다고 아뢰었다. 카안은 그 사람을 뒤에 앉게 하고는 성지(聖旨)를 내렸다. “나의 자식을, 왕자를 죽였구나! 나의 바가바가이 장군(örlüg bayabayai)을 죽였구나! [우리는] 너희 누구를 죽였는가?”라고 하는 하늘에 맹세했다.

“얼마나 많은 피가 흘러서 고일지

얼마나 많은 시체가 누워 남을지

군주이신 높은 하늘에게 맡기겠소!

그다음에는 아버님이신 성군께 맡기겠소!”라고 말했다. 바르소 볼라드 지농은 [그때] 도골롱 궁지 누이의 집에 살고 있었다. 그 악한 행동을 지켜보며 앉아 있는데, 다얀 카안의 군대가 출발했다는 소식을 우익 만호가 듣고는 오이고드 부의 이바라이 타이시와 오르도스 부의 레구시 아칼로코,⁹⁸ 투메드 부의 사인 코쇼이 밤바카이 시구시(sayin qosui bambaqai sigüsi) 등이 서로 토의하였다. 75b “매를 길들여 손에 잡고 있으면, 또한 주인에게 덤비기도 한다네! 이 [몽골진 뷘는 누구에게 좋을 것인가? 몽골진 부도 해치자!”고 하자, 도골롱 궁지 누이는 바르소 볼라드 지농을 오르도스 부의 테무르 타이시(temür tayisi), 보르복 부의 일지겐 우룰룩(eljigen örlüg) 장군, 달라드타이(daladtai) 부의 알락치(alayči), 송코르(songqur) 부의 톡토바이코(tuytu bayiqu), 토복 두치엔(tobuy döčiyen), 발락친 부의 에센 우룰룩(esen örlüg) 장군, 고를라드 부의 토보코(tobuqu) 등 일곱 명으로 하여금 데려다주게 하였다. 그러는 동안에 요람에 있는 아이가 먹을 것이 떨어지자 쿠멜리(kümeli, 야생화의 일종)를 뜯어먹었다. 그로 인해 이름을 쿠멜리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를 메르겐 카라 지농(mergen qar-a jinong)이라고 한다.

자신의 자식을, 왕자를 죽였기 때문에, 다얀 카안이 군대를 출정시켰다. 우익 만호가 그 소식을 듣고는 맞이하여 싸우기 위해 군대를 출정시켰고, 달란 테리군(dalan terigün)이라는 곳에서 조우하였다. 알락 초고드 부의 차간 자가린(čayan jaγarin), 우쨌친(üjümüčin) 부의 엘둥게

⁹⁸ 몽골의 우익 오르도스 부의 지도자로 다른 사료에는 만돌라이(Mandulai)라고도 한다.

(aldüngge[=eldüngge]) 박시(baysi) 둘이 76a 점을 치고는 카안에게 아뢰었다. 이브라이의 목숨은 불과 같습니다. 불에는 물을 부어서 끄는 게 좋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불을 피우고 물을 은잔에 가득 담아 불 위에 부었다. 옹니고드 부의 툴레게테이(tölegetei)라는 점쟁이(singsiči)가 말했다. “보르지긴 부에서 태어나는 네모난 [얼굴의] 붉은 사람이 나와, 다른 사람을 낫설어 하게 된 검은 사람이 호랑이띠 해에 네모난 [얼굴의] 사람을 결투에 나가게 하면 진압할 것이다”. 코르친 부의 오르다고카이(urdayuqai) 귀족이 자기 자식인 보르카이(burqai)를 흰색이 도는 담황색 말에 태워 데리고 왔다. 때를 아는 타본(tabun) 부의 체키체(čekiče), 나라를 잘 아는 마고 밍간(mayu mingyan) 부의 울롬(ulum), 검은 혀를 가진 타타갈진(tatayaljin) 부의 바가소카이(bayasuqai), 다양한 언어를 아는 케레이드(kereyid) 부의 올도(oldu), 좋은 말을 잘하는 알타진(altajin) 부의 사이마가(sayimay-a) 등이 말했다. “날이 어두워지기를 기원합니다!” 보르복 부의 비안 우르메게르는 다얀 카안의 깃발을 숨기고, 오리양간 부의 깃발로 상대방을 속여 쫓았다. 오르다고카이 노안의 아들인 76b 보르카이, 타본 부의 체키체(čekiče), 사이마가의 아들 바르동(bardung) 이들 셋이 죽었다. 보르카이 옹, 바가손 타보냥, 체키체 세 사람이 점칠 때 들어갔다고 한다. 우익 만호가 활 모양의 전투 태세를 취하고 있다. 그에게 다얀 카안이 “이런 전투 태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네가 잘 알지!”라며 검은 군대의 오이라드 부 출신 세구세에게 물었다. [오이라드 부의] 세구세가 말했다.

“이런 활시위 모양(numun tülkgürtü)의 포위작전에는
황소 뿔(buq-a sejgür) 진형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라며 예

순한 개의 황소 뿔 진형으로 위치를 잡았다. 우익 만호의 군대는 카안의 깃발이라며 오리양칸 부의 깃발을 향해 돌진하여 공격하였다. 오르다고카이 웡(왕)은 아들 보르카이와 함께 오리양칸 부의 바이카이 바야토르(bayaqai bayatur), 코르친 만호(qorčin tümen) 타본(tabun) 부의 사인 체키체 바야토르(sayin čekiče bayatur), 타본 오톡(tabun otuy) 칼카(qalq-a) 부의 귀족들인 오로고드(uruγud)와 바가손 타보낭(bayasun tabunang) 등 다섯 명이 선봉대를 지휘하였다. 얼마 안 있어 오리양칸 부가 도망가버렸다. 투메드 부 77a 군대가 뒤를 쫓아가다, 저쪽에서 카안의 검은 깃발(qar-a tuy, 纛)을 잘 보이게 내어 잡고서는, 적진의 허리를 끊고 돌격하여 투메드 부를 진압하였다. 우익 만호의 군대 대부분은 카안의 검은 깃발을 자기 부대의 깃발이라고 착각하고는 들어와서 죽임을 당했다. 이 전투에서 이브라이 타이시는 도망가 버렸다. 이로써 다만 카안은 우익 삼만 호의 정권을 차지하여 자신의 통치하에 두었다고 한다. 체키체 바야토르도 또한 돌아가 다시 전투에 나아가겠다고 자신의 투구를 어깨에 늘어뜨리고 맨머리로 들어갔다. 그때 [전투에] 들어가면서 체키체 바야토르가 말했다.

“이처럼 훌륭한 통치를!

매일매일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 하고는 도착해서 칼로 싸웠다. 그렇게 싸울 때, 체키체 바야토르의 머리를 세계 내리치자 말 위에서 떨어져버렸다. 누운 채로 몸을 일으켜 끌며 저쪽에 있는 사람의 쇠 등자를 디디고 있는 발을 단칼에 베어버렸다. [자기] 마부에게 가서 “이제 [전투를 하고 있는] 동글게 그은 자리를 77b 누가 차지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마부가 “그 자리를 우리가 차지하고 있다!”고 했다.

“나 체키체는
질 때 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죽었다.

그 이후에 다얀 카안은 우익 삼만 호를 진압한 전투에서 [자기를] 도왔던 이들에게 모두 면세의 특권을 하사하였다. 체키체의 후손들은 앞으로 주인이 없도록 [노예가 되지 않도록] 특권을 부여했다. 오이라트 부의 세구세 아칼라코(següse aqalaqu)의 후손들에게는 일곱 세대에 이르기까지 공납을 면제해줄 것을, 바가손 타보낭(bayasun tabunang, 駙馬)에게는 사인 만도카이 카툰이 낳은 딸을 시집보냈다. 그런 이후에 우익 삼만 호는 내분으로 다투게 되었고, 그러다가 오르도스 부의 아칼라코 레구시는 이브라이를 죽였다. 레구시를 에르케구드(erkegüd) 부의 겔레케이(gelekei)가 잡아서 죽였다. 겔레케이가 다얀 카안에게 레구시에 대해 아뢰었다.

“당신의 원한 있는 사람의
가슴을 찢어 죽였습니다. 제가!

당신의 적을

죽였습니다. 제가!” 이후에 다얀 카안은 겔레케이에게 [세금을 면제시켜주고, 죄를 묻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이후에 몽골진 부의 78a 코쇼이 타보낭[부마]과 테무르켄(temürken) 둘이 항복해 왔다. 코르친 부의 오르다고카이 옹이 “우익 삼만 호를 나누어 갖자!”고 말했다. 그 일을 자녹산(januyšan)이 중간 역할을 담당했다. 원수인 사람을 모두 집집마다 노예로 부리자. 원수 모두를 살려둔다면 우리의 후손들이 고생하게 될 것이다. 카라친 부 일곱 오tok을, 그리고 꽤 큰 융시예부 부를 우리

일곱 오tok 코르친 부에 합병시켜버리자! 오르도스 부의 여덟 오tok이 중심이다. 차카르 부의 여덟 오tok에 합병시켜 버리자! 투메드 부의 열두 오tok은 칼카 열두 오tok에 합병시켜 버리자고 했다. 웅(왕)의 그 말을 다얀 카안은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아들인 바르소 볼라드 지능을 우익 삼만 호 위에 앉혔다. 오르다고카이 웅은 “내 후손들이 고생하면서 죽을 것이다”라고 하며, 제 말의 머리를 때렸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코르친 부의 오르다고카이 웅에게 오르도스 부의 타일라다르(tayiladar)가 말미를 주지 않았다고 78b 하여 타일라다르를 죽여버렸다고 한다. 콩콜리가 거짓말을 했다고 하여 주둥이를 베고는 죽여버렸다고 한다. 이 말을 모두 다 들어보았을 것이다. 다얀 카안은 44세에 하늘로 올라갔다.

다얀 카안의 큰아들인 투루 볼라드는 칸의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자식도 없이 사망하였다. 그 동생인 올로스 볼라드도 칸의 자리에 오르지도 못하고 이바라이 타이시의 손에 죽임을 당했다. 그런 다음에 보디 알락(bodi alay)⁹⁹ 어리다고 해서 숙부가 대칸의 자리에 올랐다. 그 이후에 보디 알락 [카안]은 좌익 삼만 호를 데리고 나이만 차간 게르[八白室]에 제사를 올리고 대칸의 자리에 앉겠다고 가서, 바르소 볼라드 지능에게 말을 했다. “너는 내가 어릴 때 예의 없이 칸의 자리에 올랐다. 이제 너는 내게 무릎을 꿇어라! 만약 무릎을 꿇지 않는다면, 나는 너와 싸우게 될 것이다!”라고 심각하게 말을 내뱉었다. 이 말을 듣고 바르소 볼라드 지능은 79a 카안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무릎을 꿇겠습니다! 라

⁹⁹ 바투 몽케 다얀 카안의 아들인 투루 볼라드의 아들(재위 1519~1547).

고 말했다. 이 말도 또한 옳다고 여겨 나이만 차간 게르에 제사를 지내고, 보디 알락 카안이 대위(大位)에 올랐다.

그런 이후에 되돌아오고 있을 때, 보디 알락 카안에게 코르친 부의 바야토르(bayatur, 勇士) 몰로차이(mulučai)가 새끼를 뱀 황갈색 암말을 타고 와서 말을 했다. 이 우익 삼만 호의 변두리부터 공격하면서 되돌아가시지요라고 했다. 그 말에 보디 알락 카안은 동의하지 않았다. 몰로차이 바야토르는 화가 나서 새끼를 뱀 말을 타고 와서 빈손으로 어찌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했다고 한다. 타이송 카안의 원한을 갚겠다며 시구시테이의 아들 볼로나이 옹(왕)이 왔지만, 보고롤에서 첼텐의 아들 몰로차이, 알초고다이(alčuyudai), 알로리(aluri) 등 세 명이 요새를 쌓고 지켜서 잡아가지 않고 돌아갔다. 이후에 쿠리엔(küriyen, 원형 요새)을 쌓고 지켜서 함락되지 않았다. 그런 다음에 끈으로 쓸 수 있는 79b 녕쿨나무[게르를 둘러싸고 묶어놓은]를 끊어버리고 이사 가라! 어떻게든 우구르겐(ügürgen) 땅에 거주하겠다!라며 오고 있는데, 오논 강의 사가차간토(sayačayantu)라는 큰 섬(aral)에서 만나게 되었다. 비데린 코시곤(bideri-yin qosiyun)에서 큰 전투를 벌였다. 에세부리(esebüri)의 아들인 에부제이 바야토르(ebüjei bayatur)가 말했다.

“회갈색 땅이 흔들릴지라도

건장한 에부제이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며 내려서는데 눈에 화살을 맞고 넘어지자, 이놈의 배를 갈라버리겠다고 할 때, 허리띠에 묶어놓았던 말이 당겼다. 에부제이가 일어나서 그 사람과 말을 화살로 쏘아 버렸다. 돌루구겐(dölügügen)의 아들을 멘두이 다르칸(mendüi darqan)

이 맞이하는데 자신의 훌륭한 잣빛 말이 다리에 화살을 맞아 부러졌다. [화살을 맞은] 말은 세 발로 큰 나무를 뛰어 넘어갔다. 오르다고카이의 아들인 오양고 바아토르(uyangyu bayatur)는 멘두이 다르칸(mendüi darqan)을 자신의 수염이 있는 황금색 말에 태워 나가게 했다. 코르친의 타타갈진(tatayaljin) 부의 바이리(bayiri), 케레이드 80a 부의 불라이(bulai) 두 명은 서로 처남과 매형이었다. 바랑고드(bayarangud) 부의 데굴레이(degülei)와 코쿨라이(quyulai) 둘은 사촌지간이었다. 그들 네 명에서 선봉에 섰다가 죽었다. 그들에게 사로잡히지 않았다. 이후에 멘두이 다르칸(mendüi darqan)이 먼저 출발하고 카라 강(qara-yin yoruqan)가의 지다 칠라곤(jida čilayun)에서 요새를 쌓고 전투를 벌였다. 솔롱고드(solungyud) 부의 카락친 타이보진(qarayčın tayibujin)의 후예인 샤가다(šayada)의 아들 사인 탐가토(sayin tamayatu), 알타진(altačın) 부의 사인 코고다이(sayin quyudai) 둘이 앞장섰을 때, 우구우테이 바아토르(ögüütei bayatur)는 형인 쿠쿨데이 바아토르(köküldei bayatur)에게 말했다. “둘이서 나아가자!”

“스무 명의 사람에게 지더라도, 나는!

두 아들에게는 지지 않는다.

너는 여기 있어라. 내가 나가마!”라고 하였다. 탐가토(tamayatu)가 화살에 맞았다. 사인 코고다이가 용감하게 싸움을 하고 있을 때, 탐가토가 일어나서, 쿠쿨데이의 뒤꿈치를 한 칼로 내리쳐 죽였다. 그에게 빼앗기지 않은 900마리의 말 떼를 데리고 80b 돌아왔다. 주텍센(jüdegsen)으로 멘두이 다르칸이 출발하여 우구르게네 강(ügürgene-yin youl)가에서 항복시켜서, 알로우리 바아토르(aluuri bayatur)를 보르카이의 아

들 아르사코 보이마 옹(arsaḡu buyim-a ong)이 압박하여 죽였다. 알초 오다이를 종마에 묶어서 데리고 갈 때, 알초오다이가

“알초오다이를 키운 독,

이카초고드(aḡačuyud≈alayčuyud)를 훌어버린 독”이라고 말했다. 알 초오다이를 도끼로 내리쳐 죽였다. 몰로차이를 말에 묶어와서, 사르키 가스(sarkiyas)라는 분지에서 보디 알락 카안(bodi alay qaγan)에게 멘두 이 옹을 데려다주어 죽음에 이르게 했다. 멘두이 옹에게 공납을 면제시키는 특권을 하사했다. 카사르의 후예가 카안의 후예에게 한 가지 도움을 주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런 다음에, 보디 알락 카안은 양띠 해 7월 10일에 조돌롱 운두르(jodulüg[=jodulung] öndür)라는 곳에서 사망하였다.

그 이후에 개띠 해에 다라이손 구텡 카안(darayisun güdeng qaγan)이¹⁰⁰ 대위에 81a 올랐다. 이 카안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

[카안의] 친족이 서로

사이 좋게 지내

모든 백성은 통합되어

여섯 큰 울로스(나라)가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였다. 서른여덟 살인 뱀띠 해에 사망하였다.

100 다라이손(darayisun, 1520~1557)은 보디 알락 카안의 큰아들로 1548~1557년까지 재위했다.

그 카안이 재위하던 시기에 바르소 블라드 지논의 아들 게겐 알탄 카안(gegen altan qayan)은 성군이신 우리의 [칭기스] 카안이 고생하면서 모았던, 엄청나게 많이 정복한 다섯 색깔 네 이방[五色四夷]으로 이루어진 대국, 우구데이 카안(ogidei[=ögedei] qayan), 쿨룩 카안(külüg qayan), 몽케 카안(möngke qayan)의 통치시기에 믿기 시작한 종교[불교]의 근본을, 부처님의 화신이신 세첸 [코빌라이] 카안(sečen qayan)이 평화롭게 세운 정치, 보석 같은 종교 경전, 굳건하게 세운 궁궐들, 도시와 성벽 등을 운명의 힘에 의해 잃어버렸다. 그 이후에 엘벡 카안(elbeg qayan), 아다이 카안과 타이송 카안을 쫓아버리고, 아브기르친 지논(abgirčin jinong)을 술수를 써서 죽였다고 옛날 옛적의 그 원수를 들먹이며 키타드[중국, 明]와 오이라드 둘을 정벌하러 출정하였다. 훌륭한 알탄 81b 카안은 굳건한 마음으로 출정하여 탕고드와 티베트(töbed)의 이쪽 경계에 있는 압도 나라(amdoo ulus)와 시라이고르 나라(sirayırur ulus) 등을 정복하고, 아릭 쟁기르체스가바(ariγ senggirčesgaba)와 로본 차오르차(glubum čaurča), 이시다그링 세렌구르(isdayring serengür) 등 세 명의 바야토르[용사]를 잡아 공납을 바치도록 했다. 오이라드 부를 공격하여 잘라만 투루(jalaman törü)를 살해하고, 예케켄 아가(yekeken ay-a, 왕비)를 비롯하여 한 무리의 집단을 통치하에 두었다. 키타드를 공격하여 도시와 성을 부수며 나아갈 때, 키타드의 다이밍(大明) 황제(dayiming qayan)는 두려워하여 공납과 공물을 바치며 알탄 카안에게 수이 왕(süi wang)이라는¹⁰¹ 칭호를 바쳤다.

¹⁰¹ 순의왕(順義王). 16세기 전반에 몽골의 우익인 오르도스 3만호가 명(明)의 북변을 지속적으로 침공하였는데, 특히 1550년에는 북경을 포위(庚戌의變)하

그 이후에 자삭투 투멘 카안(jasaytu tümen qayan)이¹⁰² 대위에 올랐다. 보석 같은 종교[불교]를 행하고, 옛날부터 원수인 키타드 정벌을 계속하였다. 키타드로 진군하고, 전투를 벌일 때 힘쓴 아낭기(ananggi)에게 다르칸[공납 면제 등의 특권]의 지위를 보장해주었다. 그 카안의 통치 시기에 또한 알탄 카안은, **82a** 토고간 테무르 카안(toɣuɣan temür qayan, 元順帝)의 시기에

“잃어버린 정권을,

흔어진 종교를” 다시 잇기 위해, 콩심 보디승(qongsim bodisüg, 大悲觀音[文殊菩薩])의 화신인 탐자드 첸바(tamjan [=tamjad] imčenba)인¹⁰³ 소드눔 잠츠(bsodnam jamaču) 코톡토(qutuɣtu) 달라이 람(dalai blam-a)과 만조시리 코톡토(manjusiri qutuɣtu), 오치르바니(wčirbani)의 화신(qubilɣan)인 잡도 지룽 코톡토(jamdou irjeyirüng qutuɣtu) 등 세 명을 비롯하여 많은 현자와 승려들(quwaray-ud)을 다얀 키아(dayan kiy-a)로 하여금 모시고 행차하게 하였다.

“깨달음을 얻으신, 조 석가모니 부처님(juu šigemüni burqan)의 모습

보석과 금은으로 조성하였다.

기까지 했다. 1570년(명 穆宗, 隆慶 4) 명 조정에서 알탄(Altan, 俺答) 카안에게 순의왕이라는 칭호를 주고, 마시(馬市)를 여는 등 융경화의(隆慶和議)를 맺었다.

¹⁰² 다라이손 구멍 카안의 아들(1539~1592)로 1558~1592년까지 재위했다.

¹⁰³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는 자’라는 티베트어 ‘tams-cad mkyen-pa’의 몽골 발음.

[전통이] 끊어진 종교를 잇게 해주고

망가진 정치를 바로잡고

다섯 색깔 네 이방[五色四夷] 나라에

옛날에 [코빌라이] 세첸 카안처럼 유명해지셨다!”

자삭토 카안(jasaγtu qaγan)은 개띠 해에 태어나셨다. 그 이후에 보얀 세첸 카안(buyan sečen qaγan)이¹⁰⁴ 대위에 올랐다.

“보석 같은 종교와 경전을 꽃피우셨고

옛날에 타이송 카안이 82b 잃었던 탐가(tamay-a, 옥새)를 찾았으며

안정된 정치를 더욱 발전시켰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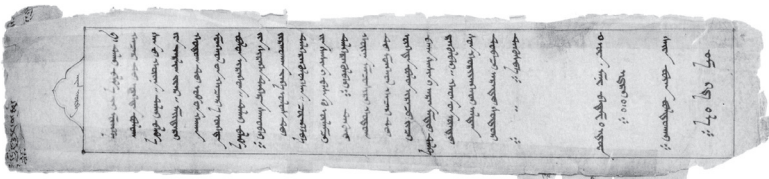
거대한 나라를 활기 넘치는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드셨네! 분명하게!”

이 보얀 세첸 카안의 재위, 계겐 알탄 카안의 재위시기에 이어 계겐 알탄 카안의 아들 생게 테무르 두구렝 카안(sengge temür dügüreng qaγan)이 있었다. 그의 아들 수메르 타이지(sümer tayiji)에게서 소드논 잠츠(bsod-nam [=bsodnam] jamču) 달라이 람(dalai blam-a)의 화신이 아들로 되어 태어나셨다. 이름은 윤동 잠츠(yondan jamču)이다. 윤동 잠츠 달라이 람은 다얀 카안의 알탄 오록(altan uruγ, 황금 가문)에서 태어남으로써, 종키바(jōngkiba, 총카파)의 종교[불교]를 몽골 땅에서 [하늘에 떠 있는] 태양처럼 더욱더 흥성하게 하였다. 보얀 세첸 카안(buyan sečen qaγan)은 마흔아홉의 나이에, 토끼띠 해에 세상을 떠났다. 그 이

¹⁰⁴ 투멘 자삭토 카안의 큰아들(1555~1603)로 ‘보얀 다얀 세첸 카안’이라고도 한다. 1593년에 카안이 되었고 1603년에 사망했다.

후에 [그의 아들인] 망고스 메르겐 타이지는 카안의 자리에 앉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그[망고스]의 아들 린덴[릭텐] 코톡토 카안(linden qutuytu qayan)이¹⁰⁵ 열세 살이 된 용띠 해(1604)에 대위에 올랐다. 83a 달라이 람이 영원한 곳으로 떠나가신 후에 달라이 람의 자를릭[法旨]으로 마이 다르 코톡토 놉은 카안(mayidari qutuytu nom-un qayan)이 몽골 땅으로 찾아오셔서, 달라이 람의 자리에 앉으셨다. [그는] 여섯 큰 나라에서 전파된 종교바(jōnggaba, 총카파)의 종교도 더욱더 융성하게 하였다. 그 이후에 만조시리 코톡토(manjusiri qutuytu, 文殊師利[菩薩])가 몽골 땅에 오셔서 또한 종교를 해처럼 더욱 발전하게 했다. [이렇게 해서] ‘카안들의 근원을 간략하게 적은 알탄 톱치[황금 가문의 역사]라는 경전(Qad-un ündüsün quriyangyui altan tobči neretü sudur)’이 끝났다.

움 마니 바드 메 흠. 크리.¹⁰⁶
선덕(善德)을 이루시길, 망갈람!¹⁰⁷



신발견 『황금사』 사본 83a

¹⁰⁵ 린단 또는 릭단(릭텐) 코톡토 카안(1592~1634)은 보얀토 세첸 카안의 아들인 망고스 타이지의 아들로 1604~1634년까지 재위했다.

¹⁰⁶ Ôm manê badmê hôn, hri, ‘온 세상의 지혜와 자비가 모든 이에게 충만하길!’

¹⁰⁷ mam kha lam,

참고문헌

■ 17세기 몽문연대기 사료 관련

* 저자미상, 『황금사 *Altan tobči*』(17세기 전반, 1621~1627?)

- Temgetü[特木格圖, 汪睿昌] ed.(1940), 『蒙文 蒙古史記 *Mongol Chronicle Činggis Qagan u Čidic including Altan tobči*』, 北京(Neyislel qota): 蒙文書社(Mongyol bičig-ün qoriy-a)[1925년 초판본의 영인 재판본].

Temgetü, Пүрэвжав Э.(2012), *Чингис хааны цадиг*, УБ: Мөнхийн үсэг.

- Чоймаа Ш.(2002), *Qad-un ündüsün quriyangui Altan tobči (Эх бичгийн судалгаа) · тэргүүн дэвтэр*, Monumenta Mongolica, Tomus III, УБ: Centre for Mongol Studies · National University of Mongolia.

Чоймаа Ш.(2006), *Хаадын үндсэн хураангуй Алтан товч*, УБ: МУИС · Монгол Судлалын Төв/МХСС · Эх бичиг-Алтай судлалын тэнхим.

Чоймаа Ш.(2011), *Хаадын үндсэн хураангуй Алтан товч*, УБ: МУИС · МҮНС · ШУА-ТХ, Мөнхийн үсэг.

- 김방한(1999), 『몽골어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 朱風·賈敬顏 譯(1985), 『漢譯蒙古黃金史綱』, 呼和浩特: 內蒙古人民出版社.
- 小林高四郎 譯註(1941), 『蒙古黃金史』, 東京: 生活社.
- Bawden C. R.(1955), *The Mongol Chronicle Altan tobči*, Wiesbaden: Otto Harrassowitz.

* 룽상단진, 『황금사 *Altan tobči*』(17세기 후반)

- bLo · bzañ bsTan · jin[Лувсанданзан](1937), *Erten-ü qad-un ündüsülegsen törü yosun-u jokiyal-i tobčilan quriyaγsan Altan tobči kemekü orusibai, Degedü · Douradu debter*, Ulaγanbaγatur: Ulus-un keblel-ün γajar.
- Cleaves F. W · Mostaert A. ed.(1952), *Altan tobči: A Brief History of the Mongols*, Camb./Mass.: Harvard Univ. Press.
- Шагдар Ц.(1957 · 1990), *Эртний хаадын үндэслэсэн төр ёсны зохиолыг товчлон хураасан Алтан товч хэмээх оршивай*, УБ: Сүхбаатарын нэрэмжит х.ү./Улсын х.г.
- Шастина Н. П.(1973), *Лубсан Данзан, Алтан товч*, Москва: Изд. Наука.
- Сүхбаатар О.(1990), *Эртний хаадын үндэслэсэн төр ёсны зохиолыг товчлон хураасан Алтан товч хэмээх оршивай*, УБ: Монголын уран зохиол х.г.
- Бира Ш.(1990), *Altan tobči: Эртний хаадын үндэслэсэн төр ёсны зохиолыг товчлон хураасан Алтан товч хэмээх оршивай*, Ulaγanbaγatur: Ulus-un keblel-ün γajar.
- Чоймаа Ш.(2006), *Эртний хаадын үндэслэсэн төр ёсны зохиолыг товчлон хураасан Алтан товч хэмээх оршвой*, УБ: МУИС.
- Чоймаа Ш.(2011), *Эртний хаадын үндэслэсэн төр ёсны зохиолыг товчлон хураасан Алтан товч хэмээх оршвой*, УБ: МУИС · Мөнхийн үсэг.
- 札奇斯欽 譯(1979), 『蒙古黃金史譯注』, 臺北: 聯經出版事業公司.
- 色道爾吉 譯(1993), 『蒙古黃金史』, 呼和浩特: 蒙古學出版社.
- de Rachewiltz I.(1989), “Some Remarks on the Manuscript Copies, Printed Editions and Transcriptions of the *Altan Tobči* of Blo-bzañ bsTan-jin”, 中國蒙古史學會 編, 『蒙古史研究』 3, 呼和浩特: 內蒙古大學出

版社.

- Vietze H-P · Lubsang G.(1992), *Altan tobči: Text und Index*, Tokyo: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nguage and Cultures of Asia and Africa,
- Орловская М. Н.(1984), *Язык 『Алтан товч』*, Москва: Изд. Наука.
- Орловская М. Н., 郭守祥 譯(2004), 『《黃金史》語言』, 呼和浩特: 內蒙古教育出版社.

* 저자 미상, 『大黃史 *Šir-a tuγuji*』(17세기)

- Шагдарсүрэн Ц·Мөнх-учрал Э.(2006), *Эртний монголын хаадын үндэсний их Шар тууж*, УБ: МУИС.
- Чулуун С·Цэрэндоо Ш.(2011), *Эртний монголын хаадын үндэсний их Шар тууж*, УБ: МУИС·Мөнхийн үсэг.
- 五力吉圖 校註(1983), *Erten-ü mongyol-un qad-un ündüsün-ü yeke Šir-a tuγuji orusiba*, 北京: 民族出版社.
- Шастина Н. П.(1957), *Шара туджи: Монгольская летопись XVII века*, Москва·Ленинград: Изд. АН СССР.

* Saγang Sečen, 『몽골원류 *Erdeni-yin tobči*』(1662)

- Nasunbaljir[Насанбалжир] ed.(1961), *Erdeni-yin tobči*, Monumenta Historica·Tomus I, fassc.1, Instituti Historiae Comiteti Scientiarum Reipublicae Populi Mongoli, Ulaγanbaγatur: Ulus-un keblel-ün γajar.
- Баярсайхан М.(2006), *Эрдэнийн товч*, УБ: МУИС.
- Баярсайхан М.(2011), *Хаадын үндэсний Эрдэнийн товч*, УБ: МУИС·Мөнхийн үсэг.
- Sanang Sečen[薩囊徹辰](1961), *Qad-un ündüsün-ü Erdeni-yin tobči* (蒙古源流), Köke qota(呼和浩特): Öbür mongyol-un arad-un keblel-ün qoriy-a(內蒙古人民出版社).

- 최학근 역주(1985), 『蒙古諸汗源流의 寶綱: 蒙古源流』, 보경문화사.
- 烏蘭 譯註(2000), 『《蒙古源流》研究』, 沈陽: 遼寧民族出版社.
- 烏蘭, Altanbayana or.(2005), 『*Erdeni-yin tobči*』-yin sudulul, Shenyang: Liyuuning ündüsün-ü keblel-ün qoriy-a.
- 沈曾植 箋證·張爾田(石州) 校補(1931/1990), 『蒙古源流箋證』, 北京: 中國書店.
- 藤岡勝二(1940), 『羅馬字轉寫日本語對譯 喀喇沁本蒙古源流』, 東京: 文求堂書店.
- 江實(1940), 『蒙古源流』, 東京: 弘文堂.
- 岡田英弘(2004), 『蒙古源流』, 東京: 第一書房.
- Chiodo E · Sagaster K.(1996), *Sayang Sečen Erdeni-yin tobči: A Manuscript from Kentei Ayimay*, Wiesbaden: Harrassowitz Verlag.
- de Rachewiltz I · Krueger J. R.(1990), *Erdeni-yin tobči (Precious Summary): A Mongolian Chronicle of 1662, Sayang Sečen I*, Canberra: Australian National Univ.
- de Rachewiltz I · Krueger J. R.(1991), *Erdeni-yin tobči (Precious Summary): A Mongolian Chronicle of 1662, Sayang Sečen II, Word Index*, Canberra: Australian National Univ.
- de Rachewiltz I.(1996), *The Mongolian Tanjur Version of the Bodhicaryavatara*, Wiesbaden: Harrassowitz Verlag.
- Krueger J. R.(1961), *Poetical Passages in the Erdeni-yin tobči, A Mongolian Chronicle of the Year of 1662 by Sayang Sečen*, Central Asiatic Studies VII, 'S Gravenhage(The Hague): Mouton & Co.
- Krueger J. R.(1967), *Sayang Sečen, Prince of the Ordos Mongols, The Bejewelled Summary of the Origin of Khans(Qad-un ündüsün-ü Erdeni-yin tobči), A History of the Eastern Mongols to 1662*, pt. 1, Bloomington: The Mongolia Society.

• Mostaert A. ed.(1956), *Erdeni-yin tobči I~IV*, Camb./Mass.: Harvard Univ. Press.

* **bYam-ba(=Šamba)**, 『아사락치史, *Asarayči neretü-yin teüke*』(1677)

• Peringlei[Perlee Kh.] ed.(1960), *Asarayči neretü-yin teüke*, Monumenta Historicae, Tomus II, fasc. 4, Ulaγanbaγatur: Erdem shinjilgeenii kheblekh üildber.

• Shagdarsüreng Ts[Шагдарсүрэн Ц.]·Lee Seong-gyu[이성규](2002), *Byamba-yin Asarayči neretü-yin teüke*, Ulaanbaatar, Monumenta Mongolica, Tomus I, Centre for Mongol Studies·National University of Mongolia.

• Заябаагар Д.(2006), *Асрагч нэртийн түүх*, УБ: МУИС.

Заябаагар Д.(2011), *Асрагч нэртийн түүх*, УБ: МУИС·Мөнхийн үсэг.

• 烏雲畢力格(2009), 『《阿薩喇克其史》研究』, 北京: 中央民族大學出版社.

• Kämpfe H. R.(1983), *Das Asarayči neretü-yin teüke*, Wiesbaden: Otto Harrassowitz.

* **저자 미상**, 『알탄칸傳, *Erdeni tunumal neretü sudur orosiba*』(17세기)

• 珠榮嘎 校注(1984), 『*Erdeni tunumal neretü sudur orodiba*(阿拉坦汗傳)』, 北京: 民族出版社.

珠榮嘎 譯注(1991), 『阿勒坦汗傳』, 呼和浩特: 內蒙古人民出版社.

• 楊紹猷(1992), 『俺答汗評傳』,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森川哲雄(1987), 『アルタン・ハーン傳の研究』, 福岡: 九州大學教養部[私家版].

• 森川哲雄(1985), 「珠榮嘎校注, 『阿拉坦汗傳』 *Erdeni tunumal neretü sudur orosiba*」, 『東洋學報』 67-1·2, 東京.

• 吉田順一 編(1998), 『《アルタン・ハーン傳》譯注』, 東京: 風間書房.

- Kollmar-Paulenz K.(2001), *Erdeni tunumal neretü sudur: Die Biographe des Altan qayan der Tümed-Mongolen*, Wiesbaden: Harrassowitz.
- Elverskog J.(2003), *The Jewel Translucent Sūtra: Altan Khan and the Mongols in the Sixteenth Century*, Leiden · Boston: Brill.
- Заябаатар Д.(2006), *Чакраварди Алтан хааны тууж*, УБ: МУИС.

■ 몽골 및 티베트 관련 사전 및 사료

※ 저자 미상, 『몽골비사 *Mongol-un niyuča tobčiyan*』(1240)

- Гаадамба Ш. ред.(2006), *Монголын нууц товчоо*, УБ: Улсын х.г.
- Чоймаа Ш.(2006), *Монголын нууц товчоо*, УБ: МУИС.
- 小林高四郎 譯註(1941), 『蒙古の秘史』, 東京: 生活社.
- 那珂通世 譯註(1943), 『成吉思汗實錄』, 東京: 筑摩書房.
- 유원수 역주(1994), 『몽골비사』, 혜안.
- 유원수 역주(2004), 『몽골비사(元朝秘史)』, 사계절.
- Cleaves F. W. tr.(1982), *The Secret History of the Mongols*, vol. I, Camb./Mass.: Harvard Univ. Press.
- de Rachewiltz I.(1972), *Index to the Secret History of the Mongols*, Bloomington: Indiana Univ. Press.
- de Rachewiltz I. tr.(2006), *The Secret History of the Mongols*, vol. II, Brill, Leiden · Boston.
- Haenisch E.(1939 · 1962), *Wörterbuch Mangḥol un Niuca Tobca'an (Yüan-Ch'ao Pi-shi)*, *Geheime Geschichte der Mongolen*, Leipzig/Wiesbaden: Franz Steiner Verlag.
- 柯紹忒(1935), 『新元史』, 上海: 開明書店.
- 嘉木揚凱朝(2004), 『モンゴル佛教の研究』, 京都: 法藏館.

- 故宮博物院藏『五體清文鑑』上·中·下(1957), 北京: 民族出版社.
- 固始噶居巴·羅桑澤培 著, 陳慶英·烏力吉 譯註(1991/2004), 『蒙古佛教史』, 天津/臺北: 天津古籍出版社/全佛文化事業有限公司.
- 國家圖書館版本 提供(2009), 『諸佛菩薩聖像贊』, 北京: 中國藏學出版社.
- 國家圖書館版本 提供, 龔唯·熊文彬 主編(2011), 『諸佛菩薩妙相名號經咒』, 北京: 中國藏學出版社.
- 金炯秀 編著(1994), 『蒙古語·滿洲語比較語彙辭典』, 大邱: 螢雪出版社.
- 大正大學綜合佛教研究所モンゴル佛典研究會 譯註(2002), 『《モンゴル佛教史》研究(一)』, 東京: ノンブル社.
- 屠寄(1989), 『蒙兀兒史記』, 上海古籍出版社·上海書店[元史二種本].
- 渡邊棧雄(1935), 『佛陀の教説』, 東京: 三省堂.
- 鄧衍林 編(1958), 『中國邊疆圖籍錄』, 上海: 商務印書館.
- 梅日更葛根(Mergen gegen): 羅布桑丹畢堅贊(Lubsangdambijalsan), 齊木德道爾吉(Čimeddorj)·孟和寶音(Möngkebuyan) 標音, 格日樂(Gerel) 漢譯(1998), 『黃金史 (Altan tobči)』, 海拉爾(Hayilar): 內蒙古文化出版社(Öbür mongyol-un soyul-un keblel-ün qoriy-a).
- 梅日更葛根(Mergen gegen): 羅布桑丹畢堅贊(Lubsangdambijalsan)[Мэргэн гэгээн Лувсандамбижалцан], Бүрнээ Д. ор.(2006), *Их монгол улсын үндсэн Алтан товч тууж оршвой*, УБ: МУИС.
- 梅日更葛根(Mergen gegen): 羅布桑丹畢堅贊(Lubsangdambijalsan), Балданжапов П. Б.(1970), *Altan tobči, Монгольская летопись XVIII в.*, Улан-Удэ, Бурятское книжное изд.
- 馬大正·成崇德 主編(1990), 『清代蒙古高僧傳譯輯』, 北京: 全國圖書館文獻縮微復制中心.
- 馬大正·成崇德 主編(1990), 『清末蒙古史地資料薈萃』, 北京: 全國圖書館文獻縮微復制中心.
- 拉西色楞 格.[Rashisereng G.] 主編(2002), 『蒙古文《甘珠爾》佛像大全

Monᡔol 《*ᡤanjuur*》 *daki Burqan-u büren iji körtüg jiruy*》上, 呼和浩特: 內蒙古人民出版社.

- 『蒙古文甘珠爾·丹珠爾目錄』編委會 編(2002), 『蒙古文甘珠爾·丹珠爾目錄 *Monᡔol ᡓanjuur · danjuur-un ᡓarčay*』上·下, 呼和浩特: 遠方出版社.
- 伯彥畢勒格圖[*Bayanbiligtü*] 繙譯(清 光緒年間), 『國朝年號 *Biden-ü ulus-un on-u ner-e*』, 北京(Beijing): 斌記石印局(*Binji čilayun darumal-un giui*).
- 北京蒙文書社 編(1956), 『蒙文分類辭典』, 北京: 民族出版社[原 1926年 第一版].
- 石濱裕美子·福田洋一(1989), 『新訂繙譯名義大集, *A New Critical Edition of the Mahāvvyutpatti Sanskrit-Tibetan-Mongolian Dictionary of Buddhist Terminology*』, 東京: 東洋文庫.
- 釋妙舟(1993/2009), 『蒙藏佛教史』, 揚州: 江蘇廣陵古籍刻印社/廣陵書社 [1935 初版].
- 宋濂 等 撰(1997), 『元史』, 北京: 中華書局.
- 耶喜巴勒登 著, 蘇魯格 譯註(1989), 『蒙古政教史』, 北京: 民族出版社.
- 『五譯合璧集要』上·下.
- 魏源 編(1936), 『元史新編』, 上海: 大光書局.
- ユネスコ東アジア文化研究センター 編集(1988), 『日本における中央アジア關係研究文獻目錄 1879-1987年 3月』, ユネスコ東アジア文化研究センター.
- ユネスコ東アジア文化研究センター 編集(1989), 『日本における中央アジア關係研究文獻目錄 1879-1987年 3月』索引·正誤, ユネスコ東アジア文化研究センター.
- 井上哲次郎·堀謙德(1913), 『釋迦牟尼傳』, 東京: 文榮閣.
- 齊木德道爾吉·巴根那 編(2001), 『清朝太祖太宗世祖朝實錄蒙古史史料抄—乾隆本康熙本比較』, 呼和浩特: 內蒙古大學出版社.
- 齊木德道爾吉·巴根那 編(2003), 『清朝聖祖朝實錄蒙古史史料抄』上·下, 呼和浩特: 內蒙古大學出版社.

齊木德道爾吉·巴根那 編(2009), 『清朝世宗朝實錄蒙古史史料抄』, 呼和浩特: 內蒙古大學出版社.

- 中國第一歷史檔案館·李保文 編輯 整理 轉寫(1997), 『十七世紀蒙古文書檔案(1600-1650)』, 通遼: 內蒙古少年儿童出版社.
- 中國第一歷史檔案館·李保文 編輯 整理 轉寫, Төрбат Ц·Энхцэцэг Д. хөр.(2004), *XVII зууны тэргүүн хагасын Монгол-Манжийн харилцаанд холбогдох баримт бичгүүд*, УБ: МУИС·ТТ.
- 樋口康一(1991), 『蒙古語譯《寶德藏般若經》の研究』, 廣島: 溪水社.
- 八省區 蒙古語文工作協作小組辦公室 編(1979), 『全國蒙古古舊圖書資料聯合目錄 *Bükü ulus-un Mongγol qayučin nom-un γarčay*』, 呼和浩特(Köke qota): 內蒙古人民出版社(Öbür Mongγol-un arad-un keblel-ün qoriy-a).
- 包銀海[Bo. Mōnggündalai](1989), 『北京圖書館館藏蒙古古舊書籍提要 *Begejing-ün nom-un sang-un Mongγol qayučin bičig-ün tobči*』, 呼和浩特(Köke qota): 內蒙古人民出版社(Öbür Mongγol-un arad-un keblel-ün qoriy-a).
- Bendall C. ed.(1897·1898·1901·1902), *Çikshāsamuccaya, A Compendium of Buddhistic Teaching compiled by Çāntideva Chiefly from Earlier Mahāyānā-Sūtras I·II·III·IV*, St. Petersburg: de l'Académie Impériale des Sciences.
- Bhattacharya V.(1939), *Bhoṭa=Prakāśa, A Tibetan Chrestomathy*, Univ. of Calcutta.
- Bsod-nams rGyal-mtshan, Kuznetsov B. I. ed.(1966), *Rgyal Rabs Gsal Ba'i Me Long(The Clear mirror of royal genealogies)*, Leiden: E. J. Brill.
- Čebel Y.[Цэвэл Я.] ed.(1937), *Ulus-un nom-un sang-un Azi-yin anggi-dur бүкүү Mongγol anggi-yin bičimel ba darumal nom bičig-ud-ün бүритгел*, Улаанбаатар: Бүгүдө найрамдагу монγол arad ulus-un sinjilekүү

uqayan—u küriyeleng.

- Das S. Chandra(1902), *A Tibetan-English Dictionary with Sanskrit Synonyms*, Calcutta: The Bengal Secretariat Book Depôt.
- Galdan tusalayči, Gerelbadrakh J. tr.(2007), *Erdeni-yin erike kemekü teüke bolai*, Ulaanbaatar: Mongolian State Univ. of Education.
Galdan tusalayči[Галдан туслагч], Gerelbadrakh J., Гэрэлбадрах Ж.(2010), *Эрдэнийн эрх хэмээх түүх болой*, УБ: Бемби сан.
- Gyalbo Ts·Hazod G·Sørensen P. K. tr.(2000), *Civilization at the Foot of Mount Sham-po: The Royal House of Iha Bug-pa-can and the History of g.Ya'-bzang*, Wien: Verlag der Österreichi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
- Heissig W.(1965), *Die Familien- und Kirchengeschichtsschreibung der Mongolen II*, Wiesbaden: Otto Harrassowitz.
- Heissig W·Bawden C. R.(1971), *Catalogue of Mongol Books, Manuscripts and Xylographs*, Copenhagen: The Royal Library.
- Hjjigs—med nam—mkhah[ジクメ・ナムカ], 外務省調査部 譯(1940·2011), 『(増訂) 蒙古喇嘛教史』, 東京: 生活社/大空社.
- Jaschke H. Ä.(1881·1968), *A Tibetan-English Dictionary*,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Ltd.
- Kara G.(2000), *The Mongolian and Manchu Manuscripts and Blockprints in the Library of the Hungarian Academy of Sciences*, Budapest: Akadémiai kiadó.
- Kowalwski J. É.(1844·1849·1993), *Dictionnaire Mongol-Russe-Francais I·II·III*, Казань/Таиреи: в Университетской типографии/SMC Publishing House.
- Lessing F. D. ed.(1960·1982), *Mongolian-English Dictionary (Corrected Re—Printing)*, Bloomington: Univ. of California/The Mongolia Society.

- Ligeti L.(1942-1944), *Catalogue du Kanjur Mongol Imprimé vol.I, Catalogue*, Budapest: Société Körösi Csoma.
- Lomi, Heissig W·Bawden C. R. ed.(1957), *Mongyol Borjigid oboy-un teüke: Meng-ku shih-hsi-pu*, Wiesbaden: Otto Harrassowitz.
- Meinert C. hg.(2011), *Buddha in der Jurte, Buddhistische Kunst aus der Mongolei I·II*, München: Hirmer Verlag.
- Rashid al-Din, 김호동 역주(2002), 『집사 1, 부족지』, 사계절.
Rashid al-Din, 김호동 역주(2003), 『집사 2, 칭기스 칸 기』, 사계절.
Rashid al-Din, 김호동 역주(2005), 『집사 3, 칸의 후예들』, 사계절.
- Rasipungsuy(1941), *Rasipungsuy-un jokiyaysan Mongyol ulus-un teüke, terigün/ded/yutayar/dötüger debter*, terigün noyan-u ordun-u niyrtalan naribčilaqu ger-ün darumalan γaryaqu γajar-ača darumalabai, Boyda Činggis qayan-u doluyan jayun yučin jiryuyadyar on-u yisün sarayin nigen edür-e [聖칭기스칸紀 736=1941년 (陰) 9월 1일].
- Sagaster K.(1976), *Die Weisse Geschichte (Čayan teüke), Eine Mongolische quelle zur lehre von den Beiden ordnungen religion und statt in Tibet und der Mongolei*, Wiesbaden: Otto Harrassowitz.
- Šayja S.(1937), *Mongyol üsüg-ün dürim-ün toli bičig*, Ulayanbayatur: Šinjileküi uqayan-u küriyeleng.
- Schulemann G.(1911), *Die Geschichte der Dalailamas*, Heidelberg: Carl Winter's Universitätsbuchhandlung.
- Soothill W. E·Hodous L.(1937·1987), *A Dictionary of Chinese Buddhist Terms*, Delhi: Motilal Banarsidass.
- Tsepak Rigzin(1993), *Tibetan-English Dictionary of Buddhist Terminology (Revised and Enlarged Edition)*, Dharamsala: Library of Tibetan Works and Archives.
- Veit V.(1990), *Die Vier Qane von Qalqa I·II*, Wiesbaden: Otto Harrassowitz.

- Балданжапов П. Б·Ванчиков Ц. П.(2001), *ᠰᠠᠷᠠᠨ teiike-『Белая история』, Монгольский историко-правовой памятник XIII-XVI вв.,* Улан-Удэ: Изд. Бурятского научного центра СО РАН,
- Баярсайхан Б.(2002), *Монгол улсын Арван буянт номын Цагаан түүх нэрт судар оршивой*, УБ: МУИС.
- Болд Л. ер. ред.(2008), *Монгол хэлний дэлгэрэнгүй тайлбар* толь I-V, УБ: ШУА·ХЗХ.
- Бүрнээ Д·Энхтөр Д.(2004), *Монголын бурхан шашны түүхэн сурвалж* I, УБ: Дорно дахины гүн ухаан хүн судлалын д.с.
- Голстунский К. Ф.(1891-1901), *Монгоьско-Русский словарь*, I-III+дополн, С.-Петербургъ, Литог. А. Иконникова Пет. ст. Ролшиная ул.
- Гомбожав, Пучковский Л. С.(1960), *Ганга-ийн урушал, История золотого рода владыки Чингиса-Сочинение под названием 『Течение ганга』*, Москва: Изд. Восточной литературы.
- Гомбожав, Пучковский Л. С., Билгүүн Г.(1992), *Чингис эзний алтан ургийн түүх, Гангын урсгал нэрт бичиг оршив*, УБ: Соембо х.г.
- Дармадалаа, Гомбожав С. ор.(1995), *Их монголын оронд дээдийн ном ямар мэт дэлгэрсэн ёсыг тодорхой өгүүлэгч цагаан лянхуан эрхис хэмээх оршвой(Монголын бурхан шашны түүх)*, УБ: Шашны д.с.
- Касьяненко З. К.(1993), *Каталог Петербургского рукописного 『Ганджура』*, Москва: Изд. Наука.
- Позднеев А. пер.(1908·1991), *Учебникъ тибетской медицины (Rasiyan-u jiriken nayiman gesigütü niyuᠰa ubadis-un ündüsün)*, том I, С.-Петербург/Ленинград: Типо. Императорской Академий Наук/Дацан Гунзэчойнэй.
- Пучковский Л. С.(1957), *Монгольские, Бурят-Монгольские и*

Ойратские рукописи и ксилографы Института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I, История право, Москва–Ленинград: Изд. АН СССР.

• Рерих Ю. Н.(1984–1987·1993), *Тибетско-русско-английский словарь с санскритскими параллелями 1–10·11*, Москва: Изд. Фирма Восточная литературы.

• Цендина А. Д. пер.(1999), *История Эрдэни-дзу*, Москва: Изд. Фирма Восточная литературы.

• Цэвэл Я.(1966), *Монгол хэлний товч тайлбар толь*, УБ: ШУА·ХЗХ, УХХЭХ.

Цэвэл Я.[策布勒](2002), 『*Монгол келен-үй товчи тайлбур толи* 簡明蒙古語詞典』, 呼和浩特: 內蒙古人民出版社.

Цэвэл Я., Шагдарсүрэн Ц.(2013), *Монгол хэлний товч тайлбар толь, нэмж дэлгэрүүлсэн хоёрдугаар хэвлэл*, УБ: УБИС·Мөнхийн үсэг ххк.

• Цэмбэл гүүш, Тэрбиш Л·Бямбаа Р. ор.(1997), *Монголын түүх оршвой*, УБ.

■ 몽골사 및 몽문연대기 관련 단행본

• 岡洋樹(2007), 『清代モンゴル盟旗制度の研究』, 東京: 東方書店.

• 岡田英弘(2010), 『モンゴル帝國から大清帝國へ』, 東京: 藤原書店.

• 高文德·蔡志純 編著(1979), 『蒙古世系』,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喬吉[Čoiji](2008), 『蒙古佛教史 北元時期 (1368–1634)』, 呼和浩特: 內蒙古人民出版社.

• 橋本光寶(1942·2011), 『蒙古の喇嘛教』, 東京: 佛教公論社·大空社.

• 宮脇淳子, 조병학 譯(2000), 『최후의 유목제국』, 백산출판사.

• 吉田金一(1974), 『近代露清關係史』, 東京: 近藤出版社.

吉田金一(1984), 『ロシアの東方進出とネルチンスク條約』, 東京: 東洋文庫

近代中國研究センター.

- [韓]金成修(2006), 『明清之際藏傳佛教在蒙古地區的傳播』,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 김장구 외(2006), 『중국역사가들의 몽골사 인식』, 고구려연구재단.
- 金炯秀(1974), 『蒙學三書研究』, 大邱: 螢雪出版社.
- 김호동(2002), 『동방기독교와 동서 문명』, 까치.
- 김호동(2007), 『몽골제국과 고려』, 서울대학교출판부.
- 杜家驥(2003), 『清朝滿蒙聯姻研究』, 北京: 人民出版社.
- 寶力高(2012), 『蒙古文佛教文獻研究』, 北京: 人民出版社.
- 杉山正明, 임대희·김장구·양영우 옮김(1999), 『몽골 세계제국』, 신서원.
- 森川哲雄(2007), 『モンゴル年代記』, 東京: 白帝社.
- 石濱裕美子(2011), 『清朝とチベット佛教』, 東京: 早稻田大學出版部.
- 小松久男 外, 이평래 옮김(2005), 『중앙유라시아의 역사』, 소나무.
- 수미야바야타르[Сумьябаатар Б.] 편저(1992), 『中世韓蒙關係史: 文獻篇』, 단국대학교출판부.
- 留金鎖[Liu Jinsuo](1979), *Arban yurban~arban doloduyar jayun-u mongyol-un teüke bičig* (13-17世紀蒙古史書), Köke qota(呼和浩特): Öbür mongyol-un arad-un keblel-ün qoriy-a(內蒙古人民出版社).
- 윤은숙(2010), 『몽골제국의 만주지배사』, 소나무.
- 이성규·최형원·샤다르수렝[Шагдарсүрэн Ц.](2005), 『17世紀 蒙文年代記의 蒙古語 研究』, 네오출판사.
- 李龍範(1988), 『中世 滿洲·蒙古史의 研究』, 同和出版公社.
- 李龍範(1989), 『韓滿交流史의 研究』, 同和出版公社.
- 李治安 等 編著(1989), 『元史學概說』, 天津教育出版社.
- 張東翼(1997), 『元代麗史資料集錄』, 서울大學校出版部.
- 張東翼(2009), 『高麗時代 對外關係史 綜合年表』, 동북아역사재단.
- 箭內互(1930), 『蒙古史研究』, 東京: 刀江書院.

- 田山茂(1954), 『清代に於ける蒙古の社會制度』, 東京: 文京書院.
- 田村實造 編(1961), 『元史語彙集成』上·中·下, 京都大學文學部.
- 井上治(2003), 『ホトクタイ=セチェン=ホンタイジの研究』, 東京: 風間書房.
- 曹永年(2012), 『明代蒙古史叢考』, 上海古籍出版社.
- 池尻陽子(2013), 『清朝前期のチベット佛教政策』, 東京: 汲古書院.
- 陳高華·史衛民(1988), 『元上都』, 長春: 吉林教育出版社.
- 陳得芝(2012), 『蒙元史研究導論』, 南京大學出版社.
- 青木文教(1942), 『西藏の民族と文化』, 東京: 高原社.
- 萩原淳平(1980), 『明代蒙古史研究』, 京都: 同朋舎.
- 包文漢·喬吉(1994), 『蒙古歷史文獻概述』, 呼和浩特: 內蒙古人民出版社.
- 包慕萍(2005), 『モンゴルにおける都市建築史研究: 遊牧と定住の重層都市フ
フホト』, 東京: 東方書店.
- 胡日查·喬吉·烏云(2012), 『藏傳佛教在蒙古地區的傳播研究』, 北京: 民族出
版社.
- 呼和浩特市塞北文化研究會·內蒙古社會科學院歷史研究所 編著(2008), 『阿
勒坦汗: 紀念阿勒坦汗誕生五百周年』, 呼和浩特: 內蒙古大學出版社.
- 和田清(1959), 『東亞史研究(蒙古篇)』, 東京: 東洋文庫.
和田清, 潘世憲 譯(1984), 『明代蒙古史論集』上·下, 北京: 商務印書館.
- 希都日古(2006), 『17世紀蒙古編年史與蒙古文書檔案研究』, 沈陽: 遼寧民
族出版社.
- Bawden C. R. tr.(1961), *The Jebtsundamba Khutukhtus of Urga*,
Wiesbaden: Otto Harrassowitz.
- Bawden C. R.(1989), *The Modern History of Mongolia*, London and New
York: Kegan Paul International.
- Chiodo E.(2000), *The Mongolian Manuscripts on Birch Bark from
Xarboxyn Balgas in the Collection of the Mongolian Academy of Sciences*,

pt. 1, Wiesbaden: Harrassowitz verlag.

- Choi Hyong-Won[최형원](1996), *Sprachliche Untersuchung zum Pancatantra in der Mongolischen Version*, Göttingen: Universität zu Göttingen.
- di Cosmo N·Dalizhabu B.[達力扎布](2003), *Manchu-Mongol Relations on the Eve of the Qing Conquest: A Documentary History*, Leiden·Boston: Brill.
- Elverskog J.(2010), *Buddhism and Islam on the Silk Road*, Philadelphia·Oxford: Univ. of Pennsylvania Press.
- Farquahar D.(1990), *The Government of China under Mongolian Rule*, Stuttgart: Franz Steiner Verlag.
- Fletcher Jr. J. F., Manz B. F. ed.(1995), *Studies on Chinese and Islamic Inner Asia*, Aldershot: Variorum Reprints.
- Franke H. & Twitchett D. eds.(1994),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6: *Alien Regimes and Border States 907-1368*,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udaki H[二木博史]·Ulziibaatar D.[Өлзийбаатар Д.] eds.(2004), *Researching Archival Documents on Mongolian History: Observations on the Present and Plans for the Future*, Tokyo: 東京外國語大學大學院地域文化研究科.
- Fudaki H[二木博史]·Kamimura A.[上村明] eds.(2005), *Landscapes Reflected in Old Mongolian Maps*, Tokyo: 東京外國語大學大學院地域文化研究科.
- Grousset R., 김호동·유원수·정재훈 옮김(1998), 『유라시아 유목제국사』, 사계절.
- Haltod M.(1966), *Mongolische Ortsnamen I*, Wiesbaden: Franz Steiner Verlag.

- Heissig W., 이평래 옮김(2003), 『몽골의 종교』, 소나무.
- Klimburg-Salter D. E·Allinger E. eds.(1998), *The Inner Asian International Style 12th~14th Centuries*, Wien: Verlag der Österreichi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
- Kwanten L., 송기중 옮김(1984), 『유목민족제국사』, 민음사.
- Laufer B.[Лауфер Б.], Казакевич В. А. пер.(1927), *Очерк монголь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Ленинград: Изд. Ленинградского Восточного Института.
- Ligeti L.(1933·1977), *Rapport préliminaire d'un voyage d'exploration fait en Mongolie chinoise 1928-1931*, Budapest: la Société Kőrösi Csoma.
- Litvinsky B. A.(1968), *Outline History of Buddhism in Central Asia*, Moskwa: Nauka Publishing House.
- Miller R. J.(1959), *Monasteries and Culture Change in Inner Mongolia*, Wiesbaden: Otto Harrassowitz.
- Morgan D., 권용철 옮김(2012), 『몽골족의 역사』, 모노그래프.
- Moses L. W.(1977·1997), *The Political Role of Mongol Buddhism*, Bloomington: Indiana Univ·Curzon Press.
- Petech L.(1972), *China and Tibet in the Early XVIIIth Century*, Leiden: E. J. Brill.
- Petech L.(1990), *Central Tibet and the Mongols, The Yüan Sa-skya Period of Tibetan History*, Rome: Istituto Italiano per il medio ed estremo oriente.
- Puri B. N.(1996), *Buddhism in Central Asia*, Delhi: Motilal Banarsidass Publishers.
- Ratchnevsky P., 김호동 옮김(1992), 『칭기스 칸』, 지식산업사.
- Róna-Tas A.(1966), *Tibeto-Mongolica*, The Hague: Mouton & Co.
- Sárközi A.(1973), *Toyin Guiši's Mongol Vajracchedika*, Budapest: Kőrösi Csoma Society[原 AOH·27-1, 1972].

Sárközi A.(1992), *Political Prophecies in Mongolia in the 17~20th Centuries*, Budapest: Akadémiai Kiadó.

- Serruys H.(1958), *Genealogical Tables of the Descendants of Dayan-qan*, Central Asiatic Studies III, 'S Gravenhage(The Hague): Mouton & Co.
- Serruys H.(1959), *The Mongols in China during the Hung-wu period (1368-1398)*, Bruxelles: Institut Belge des Hautes Etudes Chinoises.
- Serruys H.(1967), *The Tribute System and Diplomatic Missions (1400~1600): Sino-Mongol Relations During the Ming II*, Bruxelles: Institut Belge des Hautes Etudes Chinoises.
- Schmidt I. J.(1831), *Grammatik Mongolischen Sprache*, St. Petersburg: Gedruckt in der Buchdruckerei der Kaiserli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
- Weatherford J., 이종인 옮김(2012), 『칭기스 칸의 딸들, 제국을 경영하다』, 책과함께.
- Амар[Amur](1934), *Mongyol-un tobči teike Terigün debter*, Ulayanbayatur: Mongyol keblel-ün qoriy-a.
- Амар[Amur], Очир А. хөр.(1989), *Монголын товч түүх I*, УБ: Улсын х.г
- Амар[Amur], Очир А · Лонжид З · Төрбат Ц хөр.(2006), *Монголын товч түүх*, УБ: МУИС-МСТ · МХСС-Эх бичиг Алтай судлалын төв.
- Ариунгуа Н.(1996), *XIV-XVI зууны Монгол-хятадын харилцаа*, УБ: ШУА-ДДОУСХ.
- Баатарбилэг Ё.(2000), *Монголын түүхийн арван долоон жаран, 1027-2000 он*, УБ.
- Баярсайхан Д.(2006), *Арван долдугаар зууны Монголын түүхийн зохиолууд*, УБ: Соёмбо принтинг ххк.
- Баярсайхан Д.(2006а), *Арван долдугаар зууны Монголын түүх*

бичлэг, УБ: Соёмбо принтинг ххк.

• Баярсайхан М. эрх.(2005), *Цогт хун тайжид холбогдох бичгийн дурсгалууд*, УБ: МУИС · МХСС · Түрэг судлалын төв.

• Бира Ш.(1960), *Монгольская Тибетоязычная истрическая литература (XVII-XIX)*, УБ: ШУА–ТХ.

Бира Ш., Frye S. N. tr.(1970), *Mongolian Historical Literature of the XVII-XIX Centuries written in Tibetan*, Bloomington: Indiana Univ. Press.

Бира Ш., Ишдорж Ц·Пүрэвтогтох ор.(2001), *Монголын түвэд хэлт түүхийн зохиол (XVII-XIX)*, УБ: ОУМСХ.

• Бира Ш.(1978), *Монгольская историография XIII-XVII вв.*, Москва: Изд. Наука.

Бира Ш., 陳弘法 譯(1988), 『蒙古史學史:十三世紀~十七世紀』, 呼和浩特: 內蒙古教育出版社.

Бира Ш., Krueger J. R. tr.(2002), *Mongolian Historical Writing from 1200 to 1700* (2nd ed.), Center for East Asian Studies, Western Washington University.

• Бира Ш.(1977), *БНМАУ-ын түүх, соёл, түүх бичлэгийн асуудалд*, УБ: ШУА–х.ү.

• Бира Ш.(1994), *Монголын түүх, соёл, түүх бичлэгийн судалгаа*, Токио: ААХССХ.

• Бира Ш.(2001), *Монголын түүх, соёл, түүх бичлэгийн судалгаа III*, УБ: ОУМСХ · ШУА–ТХ · НИСОУХ.

• Бира Ш.(2007), *Түүвэр зохиолууд*, УБ: ОУМСХ.

• Владимирцов Б. Я.(1934), *Общественный строй монголов: Монгольский кочевой феодализм*, Ленинград: Изд. АН СССР.

Владимирцов Б. Я., 外務省調査部 譯(1941), 『蒙古社會制度史』, 東京: 生

活社.

Блаимирцов Б. Я., 劉榮俊 譯(1980), 『蒙古社會制度史』,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Блаимирцов Б. Я., 주채혁 역(1990), 『몽골사회제도사』, 대한교과서(주).

- Бүдсүн Д.(2011), *Цогт хун тайжид холбогдох баримтын судалга*, УБ: Соёмбо д.с.
- Бямбаа Р.(2004), *Монголчуудын төвд хэлээр туурвисан монгол хэлэнд орчуулсан ном зүйн бүртгэл I·II·III*, УБ: Монгол билиг.
- Гантулга Ц.[강톨가] 외, 김장구·이평래 옮김(2009), 『몽골의 역사』, 동북아역사재단.
- Голстунский К. Ф.(1880), *Монголо-Ойратские законы 1640 года*, САНКТПЕТЕРБУРГЪ: Типо. Императорской Академии Наук.
Голстунский К. Ф., Лүндэндорж Н·Баярсайхан Б. эрх.(2004), *Монголо-Ойратские законы 1640 года*, УБ: МУИС.
- Гэрэлбадрах Ж.(1999), *XV-XVII зууны монголын ноёд язгууртны зэрэг дэвийн асуудалд*, УБ: ШУА-ТХ.
- Гэрэлбадрах Ж.(2010), “Дөчин дөрвөн хоёрын” Монгол улсын язгууртны цол зэрэг, УБ: Бемби сан.
- Греков Б. Д·Ширендыб Б. гла. ред.(1954), *История монгольс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Москва: Изд. Наука.
- Далай Ч.(1973), *Юан гүрний үеийн Монгол*, УБ: ШУА·ТХ.
Далай Ч.(1983), *Монголияв XIII~XIV веках*, Москва: Изд. Наука.
Далай Ч.(1992), *Монголын түүх (1260~1388) III*, УБ: ШУА·Зүүн-хойт ази судлалын төв/Хэвлэлийн «Эрдэм» пүүс.
- Дашбадрах Д.(1998), *Монгол-гүвэдийн улс төр, шашны харилцааны түүх*, УБ: ШУА-ТХ.
- Диваасамбуу Г·Тайвансайхан Д. эмх.(2000), *Монголын бурхан*

шашны түүхээн тойм, УБ: Шашны и.с.

- Дэндэв[Dingdüb](1934), *Mongyol-un tobči teüke · Dötüger debter*, Улаанбаатар: Mongyol keblel-ün qoriy-a.
Дэндэв[Dingdüb], Чулуун С. хөр.(2006), *Монголын товч түүх IV*, УБ: МУИС-МСТ·МХСС-Эх бичиг Алтай судлалын төв.
- Жамцарано Ц. Ж.(1936), *Монгольские летописи XVII века*, Москва·Ленинград: Изд. АН СССР.
Жамцарано Ц. Ж., Loewenthal R. tr.(1955), *The Mongol Chronicles of the Seventeenth Century*, Wiesbaden: Otto Harrassowitz.
Жамцарано Ц. Ж., Прэвжав Э·Чулуун С. ор.(2009), *Арван долдугаар зууны Монголын түүхэн сурвалжууд*, УБ: Содпресс ххк.
- Кара Д.(1972), *Книги монгольских кочевников*, Москва: Изд. Наука.
Кара Д.[Kara G.], Krueger J. R. tr.(2005), *Books of the Mongolian Nomads*, Bloomington: Indiana Univ. Press.
- Кляшторный С. Г. отв. ред.(1994), *MONGOLICA III*,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Изд. 『Фарн』.
Кляшторный С. Г. отв. ред.(1998), *MONGOLICA IV*,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Изд. 『Петербургское Востоковедение』.
Кляшторный С. Г. отв. ред.(2001), *MONGOLICA V*,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Изд. 『Петербургское Востоковедение』.
- Кононов А. Н. пред.(1986), *MONGOLICA: Памяти академика Б. Я. Владимирцова 1884-1931*, Москва: Изд. Наука.
- Окладников А. П·Бира Ш. гла. ред.(1983), *История монгольс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изд. 3-е.*, Москва: Изд. Наука.
- Осетров Е. И. гла. ред.(1988), *Книга Монголии*, Москва: Изд. 『Книга』.
- Очир А. ер. ред.(2003), *Монгол улсын түүх I-V*, УБ: ШУА·ТХ.

- Оюунжаргал О.(2009), *Манж Чин улсаас Монголчуудыг захирсан бодлого*, УБ: ШУА · ТХ,
- Пишель Р.(1911), Анучина Д. Н, пер., *Будда, его жизнь и учение*, Москва: Типо-литогр. Т-ва И. Н. Кушнеревъ.
- Поппе Н. Н.[Poppe N.](1937), *Грамматика письменно-монгольского языка*, Москва-Ленинград: Изд. АН СССР.
- Поппе Н. Н.[Poppe N.](1954), *Grammar of Written Mongolian*, Wiesbaden: Otto Harrassowitz.
- Поппе Н. Н.[Poppe N.](1992), 유원수 옮김, 『몽골문어문법』, 민음사.
- Пурбуев Ц. П.(1984), *Биография Нейжи тойна; источник по истории буддизма в Монголии*, Новосибирск: Изд. Наука.
- Пэрлээ Х.(1958), *Монголын хувьсгалын өмнөх үеийн түүх бичлэгийн асуудалд*, УБ: ШУДБХ.
- Рерих Ю. Н.(1967), *Избранные труды*, Москва: Изд. Наука.
- Рерих Ю. Н.(1999), *Тибет и Центральная азия, статьи лекции переводы*, Самара: Издательский дом 『Агни』.
- Сазыкин А. Г.(1988 · 2001 · 2003), *Каталог Монгольских рукописей и ксилографов Института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Академии Наук СССР*, том I · II · III, Москва: Изд. Наука.
- Сазыкин А. Г. пер.(1990), *История Чойджид-дагини*, Москва: Изд. Наука.
- Солнцев В. М. пред.(1993), *MONGOLICA: к 750-летию Сокровенного сказания*, Москва: Изд. Наука.
- Сумъябатар Б.(1978), *XIII-XIV зууны Монгол-Солонгосын харилцааны бичгүүд*, УБ: ШУА-ХЗХ.
- Сүхбаатар О.(1999), *Монгол хэлний харь үгийн толь*, УБ: ШУА-ХЗХ.
- Тихвинский С. Л. отв. ред.(1976), *Татари-монголы в азии и европе:*

сборник статей, 2-е изд., Москва: Изд. Наука.

Тихвинский С. Л., Сандаг Ш. эрх.(1984), *Монгол-татаарууд ази, европт*, УБ: Улсын х.г.

- Урангуа Ж.(2007), *Алтан хан*, УБ: МУИС.
- Хавх Н·Чоймаа Ш·Чулуунбаатар Л. эрх.(1998), *Буддын судлал*, УБ: МУИС.
- Хавх Н. эрх.(1999), *Буддын шашин, соёлын тайлбар толь I·II*, УБ: МУИС.
- Хүрэлбаатар Л.(1995), *Монгол орчуулгын товчоон*, УБ: Улсын х.г.
- Чоймаа Ш.(2002), 『Монголын нууц товчоо』, *Лувсанданзаны 『Алтан товч』 эхийн харьцуулсан судалгаа*, УБ: МУИС.
- Чоймаа Ш.(2003), *Монгол судлалын өгүүллүүд*, УБ: МУИС.
- Чулуун С. эрх.(2010), *Шинжлэх Ухааны Академийн түүхийн хүрээлэнгийн түүхэнбаримтын бүртгэл*, УБ: ШУА·ТХ, Адмон ххк.
- Энхээ Ц.(2008), *Лигдэн хутагт хаан*, УБ.

■ 몽골사 관련 논문

- 葛根高娃(1998), 「論十六世紀下半葉藏傳佛教轉入蒙古之原因」, 『內蒙古社會科學』 1998-5, 呼和浩特.
- 岡洋樹(1993), 「清朝とハルハ「八擦薩克」について」, 『東洋史研究』 52-2, 京都.
岡洋樹(2001), 「乾隆期中葉ハルハモンゴルにおける漢人旅蒙商の商業活動」, 山田勝芳 編, 『東北アジアにおける交易據點の比較研究』, 仙台: 東北大學東北アジア研究センター.
- 岡田英弘(1965·1966), 「ダヤン・ハンの年代」上/下, 『東洋學報』 48-3/4, 東京.

- 岡田英弘(1966), 「ダヤン・ハガンの先世」, 『史學雜誌』 75-8, 東京.
- 岡田英弘(1968), 「Čoytu Qong Tayijiについて」, 『アジア・アフリカ言語文化研究』 1, 東京外國語大學.
- 岡田英弘(1968a), 「順帝悲歌の源流」, 『アジア・アフリカ言語文化研究』 1, 東京外國語大學.
- 岡田英弘(1974), 「ドルベン・オイラトの起源」, 『史學雜誌』 83-6, 東京.
- 岡田英弘(1975), 「ダヤン・ハンの六万戸の起源」, 『榎博士還力記念東洋史論叢』, 東京: 山川出版社.
- 岡田英弘(1988), 「ウリヤンハン・モンゴルの滅亡」, 『榎博士頌壽記念東洋史論叢』, 東京: 汲古書院.
- 宮脇淳子(1980), 「十七世紀清朝歸屬時のハルハ・モンゴル」, 『東洋學報』 61, 東京.
 - 宮脇淳子(1981), 「17世紀のオイラット; 「シェン・カル・ハン國」に對する疑問」, 『史學雜誌』 90-10, 東京.
 - 宮脇淳子(1983), 「モンゴル・オイラット關係史」, 『アジア・アフリカ言語文化研究』 25, 東京外國語大學.
 - 宮脇淳子(1983a), 「ガルダン以前のオイラット—若松說再批判」, 『東洋學報』 65-1・2, 東京.
 - 宮脇淳子(1991), 「オイラット・ハーンの誕生」, 『史學雜誌』 100-1, 東京.
 - 金岡秀郎(1988), 「モンゴル語譯『賢愚經』について; その成立に關する基礎的研究」, 『モンゴル研究』 18(1987), 東京: 日本モンゴル學會.
 - 吉田順一(1972), 「ロプサン・ダンジンの『アルタン・トプチ』に引用されている『蒙古の秘史』について」, 『東洋學報』 55-1, 東京.
 - 吉田順一(1974), 「ロプサン・ダンジンの『アルタン・トプチ』と著者不明『アルタン・トプチ』」, 『史觀』 89, 東京.
 - 金芳漢(1964), 「蒙古黄金史考—몇 句節에 對한 새로운 解釋」, 編輯委員會編, 『李相佰博士回甲紀念論叢』, 乙酉文化社.

- 金芳漢(1966), 「黃金史研究 1」, 『東亞文化』 6,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
- 金芳漢(1971), 「黃金史研究 2」, 『東亞文化』 10,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
- 金芳漢(1972), 「Altan tobči 研究」, 『東亞文化』 11,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
- 金芳漢(1973), 「黃金史研究 3」, 『白山學報』 15, 백산학회.
- 金芳漢(1974), 「德王府本 Altan tobči 攷」, 『東洋學』 4, 檀國大學校東洋學研究所.
- 金芳漢(1976), 「德王府本 元朝秘史攷」, 『東亞文化』 13,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
- 김성수(2002), 「17世紀 ‘할하(Qalq-a) 中心論의 形成과 티벳佛敎」, 『中央아시아研究』 7, 중앙아시아학회.
 - 김성수(2003), 「1세 제브준단바호독도와 17세기 할하 몽골」, 『東洋史學研究』 83, 동양사학회.
 - 김성수(2004), 「티벳불교권의 형성과 淸朝 藩部支配體制」, 『明清史研究』 22, 명청사학회.
 - 김성수(2009), 「청대 불교세계의 여행」, 『東洋史學研究』 107, 동양사학회.
 - 김성수(2009a), 「17-18세기 몽골의 동아시아 인식과 대외정책」,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편, 『중국 없는 중화』, 인천: 인하대학교출판부.
 - 김성수(2013), 「17世紀初 滿蒙關係와 內陸아시아」, 『中國史研究』 82, 중국사학회.
 - 김장구(2006), 「람스테트의 유목민족사 이해와 그 한계」, 『중앙아시아연구』 11, 중앙아시아학회.
 - 김장구(2006a), 「중국사연구자들의 원대사연구와 ‘몽고’인식」, 『중국 역사가들의 몽골사 인식』, 고구려연구재단.
 - 김장구(2008), 「몽골 역사교육의 동아시아 인식에 대한 고찰」, 『동북아역사논총』 19, 동북아역사재단.
 - 김장구(2010), 「플라노 드 카르피니의 『몽골인의 역사』에 보이는 몽골사 인

식」, 『동국사학』 49, 동국사학회.

김장구(2012), 「대몽골국 초기 異文化와 宮廷의 外交典禮」, 『동국사학』 53, 동국사학회.

- 김정위(1977), 「중세 이슬람 문헌에 비친 한국상」, 『한국사연구』 16, 한국사연구회.
- 김호동(1989), 「『華夷譯語』의 「納門駙馬書」에 대한再解釋」, 『알타이學報』 1, 한국알타이학회.
- 김호동(2006), 「몽골제국과 ‘大元」, 『역사학보』 192, 역사학회.
- 김호동(2009), 「元代の 漢文實錄과 蒙文實錄」, 『동양사학연구』 109, 동양사학회.
- 達力扎布(1988), 「元惠宗至烏斯哈勒汗時期的北元政權」, 南京大學碩士學位論文.
- 達力扎布(2005), 「清代察哈爾扎薩克旗考」, 『歷史研究』 2005-5, 北京: 中國社會科學院.
- 馬楚堅(1994), 「近十年來中國研究明代蒙古史之回顧」, 『明清邊政與治亂』, 天津人民出版社.
- 孟永亮(2006), 「16~18世紀喀爾喀蒙古社會的政教演變」, 內蒙古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 溥音湖(1987), 「關於北元汗係」, 『內蒙古大學學報』 1987-3, 呼和浩特.
- 溥音湖(1994), 「北元與明代蒙古」, 『內蒙古大學學報』 1994-1, 呼和浩特.
- 寶音德力根(1996), 「釋明代蒙古官稱“阿哈剌忽知院”和迭知院」, 『內蒙古大學學報』 1996-2, 呼和浩特.
- 服部四郎(1941), 「オロンスム出土の蒙古語文書について」, 『東方學報(東京)』 11-2.
- 山口瑞鳳(1963), 「顧實汗のチベット支配に至る経緯」, 『岩井博士古稀記念典籍論集』, 東京.
- 山本守(1950), 「漢蒙對譯語彙について」, 『羽田博士頌壽記念東洋史論叢』,

京都: 東洋史研究會.

- 森川哲雄(1972), 「中期モンゴルのトゥメンについて」, 『史學雜誌』 81-1, 東京.
- 森川哲雄(1972a), 「中期モンゴルのハーンとサイトの関係について」, 『待兼山論叢』 6.
- 森川哲雄(1972b), 「ハルハ・トゥメンとその成立について」, 『東洋學報』 55-2, 東京.
- 森川哲雄(1973), 「オルドス・十二オトク考」, 『東洋史研究』 32-3, 京都.
- 森川哲雄(1976), 「チャハル・八オトクとその分封について」, 『東洋學報』 58-1・2, 東京.
- 森川哲雄(1977), 「トゥメト・十二オトク考」, 『江上波夫教授古稀記念論集; 歴史編』, 東京: 山川出版社.
- 森川哲雄(1983), 「17世紀前半の歸化城をめぐる」, 護雅夫 編, 『内陸アジア・西アジアの社會と文化』, 東京: 山川出版社.
- 森川哲雄(1984), 「中國におけるモンゴル史研究の現状; 內蒙古を中心として」, 『モンゴル研究』 15, 東京: 日本モンゴル學會.
- 森川哲雄(1995), 「『蒙古源流』の殿版本に關する諸問題について」, 布目潮風 博士古稀記念論集 『東アジアの法と社會』, 東京: 汲古書院.
- 森川哲雄(1995a), 「『蒙古源流』の寫本とその系統について」, 『アジア・アフリカ言語文化研究』 50, 東京外國語大學.
- 森川哲雄(1997), 「サガン・セチェンと『蒙古源流』の編纂」, 『比較社會研究』 3, 九州.
- 森川哲雄, 「ポスト・モンゴル時代のモンゴル」, 岩波講座・世界歴史11, 『中央ユーラシアの統合』, 東京: 岩波書店.
- 森川哲雄(2002), 「一七世紀から一八世紀初頭のモンゴル年代記について; 特に『蒙古源流』と『シラ・トゥージ』との關係を通して」, 『東洋史研究』 61-1, 京都.

- 舒健(2008), 「也談『柏朗嘉賓蒙古行紀』所記高麗王子」, 『中國邊疆史地研究』 18-3.
- 石濱裕美子(1990), 「『エルデニ・イン・トプチ』におけるニマン派文獻の影響について」, 『史觀』 123, 東京.
石濱裕美子(1995), 「轉輪王思想がチベット・モンゴル・清朝三國の王の事績に與えた影響について」, 『史滴』 16, 東京: 早稲田大學東洋史懇話會.
石濱裕美子(1998), 「チベット文書簡の構造から見た17世紀のチベット・モンゴル・清關係の一斷面」, 『アジア・アフリカ言語文化研究』 55, 東京外國語大學.
- 城地孝(2004), 「隆慶和議の政治過程－明代後期の内閣專權の背景」, 『東洋學報』 86-2, 東京.
- 安啓賢(1960), 「麗元關係에서 본 高麗佛教」, 『黃義敦先生古稀紀念史學論叢』, 동국사학회.
- 若松寛(1973), 「蒙古ラマ教上の二人の弘法者」, 『史林』 56-1, 京都.
若松寛(1975), 「ボグド チャガン ラマとココホトのラマ教」, 『鷹陵史學』 1, 東京.
- 永井匠(1998), 「『アルタン≡ハーン傳』におけるアルタン≡ハーン像」, 『日本モンゴル學會紀要』 28(1997), 東京: 日本モンゴル學會.
永井匠(2001), 「隆慶和議と右翼モンゴルの漢人」, 『史觀』 145, 東京.
- 原田理恵(1989), 「十五世紀モンゴルの支配權力の變容」, 『青山學院大學文學部紀要』 30.
原田理恵(1990), 「ダヤン≡ハーンの連邦」, 『山根幸夫教授退休記念明代史論叢』 下, 東京: 汲古書院.
- 윤은숙(2007), 「나가추의 활동과 14세기 말 동아시아 정세」, 『명청사연구』 28, 명청사학회.
- 李康漢(2010), 「친원'과 '반원'을 넘어서: 13~14세기사에 대한 새로운 이해」, 『역사와 현실』 78.
- 이개석(1996), 「元代の 카라코룸, 그 興起와 盛衰」, 『몽골학』 4, 한국몽골학회.

- 이성규(2001), 『『*Altan tobči*』몽골어의 형태론적 연구』, 『몽골학』 11, 한국몽골학회.
- 이성규(2002), 『『황사』몽골어의 형태론적 연구』, 『몽골학』 12, 한국몽골학회.
- 이성규(2002a), 『『*Erdeni-yin tobči*』 몽골어의 형태론적 연구』, 『몽골학』 13, 한국몽골학회.
- 이성규(2003), 『『*Asarayči neretü teüke*』의 몽골어 연구』, 『몽골학』 14, 한국몽골학회.
- 이성규(2003a), 「신발견『*Altan tobči*』의 몽골어 연구」, 『몽골학』 15, 한국몽골학회.
- 李益柱(2007), 「元の '부마국'으로서의 고려국가의 성격」, 『한국사시민강좌』 40, 일조각.
- 李龍範(1962), 「奇皇后의 冊立과 元代の 資政院」, 『歷史學報』 17·18, 역사학회.
- 李龍範(1964), 「元代 喇嘛教의 高麗傳來」, 『佛教學報』 2,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 李忠憲·金成修(1999), 「17세기 티벳 걸루빠와 오이라트 불교에 관한 연구」, 『人文研究』 30, 仁川: 仁荷大學校 인문과학연구소.
- 이평래(1997), 『『十善福經法』(*Arban Buyantu Nom-un Čayaġa*)의 分析』, 『中央아시아研究』 2, 중앙아시아학회.
- 이평래(1998), 「17-18世紀 몽골法典에 登場하는 盜物의 分析」, 『中央아시아研究』 3, 중앙아시아학회.
- 張國柱(1984), 「多倫與章嘉活佛兼談清代對待喇嘛教及其治蒙政策」, 『大陸雜誌』 68-2, 臺北.
- 張雙志(2008), 「五世達賴喇嘛對清初蒙古地區穩定的貢獻」, 『中國藏學』 2008-2, 北京.
- 田中克彦(1964), 「モンゴル, 中央アジアにおける, インド起源の難題モチーフの傳播について」, 『東京外國語大學論集』 11, 東京.

- 井上治(1998), 『『少保鑑川王公督府奏議』に見えるアルタンと佛教』, 『東洋學報』 80-1, 東京.
井上治(2000), 「アルタンとソナムギャンツォのチャブチャール會見とその意義」, 『アジア・アフリカ言語文化研究』 59, 東京外國語大學.
- 齊木徳道爾吉(1998), 「1640年以後の清朝與喀爾喀的關係」, 『內蒙古大學學報』 1998-4, 呼和浩特.
- 趙洵(2009), 「元朝高麗貢海東青考」, 『語文學刊』 2009-3, 北京.
- 曹永年(2001), 「『北巡私記』所見之北元政局」, 『內蒙古大學學報』 33-1, 呼和浩特.
- 佐藤長(1965), 「ダヤン・カーンにおける史實と傳承」, 『史林』 48-4, 京都.
- 周清澍(1987), 「明成祖生母弘吉剌氏說所反映的天命觀」, 『內蒙古大學學報』 1987-3, 呼和浩特.
- 陳廣恩・陳偉慶(2008), 「試論西夏藏傳佛教對元代藏傳佛教之影響」, 『寧夏社會科學』 2008-5, 寧夏.
- 陳學霖(2004), 「蒙古『大明永樂帝建造北京城』故事探源」,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集刊』 75-3, 臺北.
- 川越泰博(1970), 「瓦剌政權に關する一考察—とくに支配權力の様態について」, 『東方學』 39, 東京.
川越泰博(1993), 「土木の變と親征軍」, 『東洋史研究』 52-1, 京都.
川越泰博(1996), 「明・朝鮮間の情報傳達について」, 『青丘學術論集』 8, 京都: (財)韓國文化研究振興財團.
- 青木富太郎(1971), 「明代內蒙古のオールドについて」, 『東洋史研究』 30-1, 京都.
青木富太郎(1979), 「歸化城の發展」, 內陸アジア史學會 編, 『內陸アジア史論集』 二, 東京: 國書刊行會.
- 최운정(2011), 「몽골의 요동·고려경략 재검토(1211~1259)」, 『역사학보』 209, 역사학회.

- 萩原淳平(1955), 「アルタン・カンと板升」, 『東洋史研究』 14-3, 京都.
- 萩原淳平(1972), 「明代嘉靖期の大同反亂とモンゴリア」上・下, 『東洋史研究』 30-4・31-1.
- 特木勒(2000), 「北元與高麗的外交: 1368年~1369年」, 『中國邊疆史地研究』 2000-2, 北京.
- 洪金富(2010), 「元代文獻攷釋與歷史研究—稱謂篇」,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集刊』 81-4, 臺北.
- 和田清(1936), 「元の征東都元帥府について」, 『史學雜誌』 47-6, 東京.
- 希都日古(2001), 「論17世紀蒙古編年史的史學模式—印藏蒙同源論」, 『內蒙古大學學報』 33-5, 呼和浩特.
- 希都日古(2002), 「論藏傳佛教對17世紀蒙古編年史的影響」, 『內蒙古大學學報』 34-2, 呼和浩特.
- 希都日古(2003), 「論17世紀蒙古史家筆下的異姓貴族」, 『內蒙古大學學報』 35-5, 呼和浩特.
- 希都日古(2003a), 「論17世紀蒙古史家對北元汗系的篡改」, 『內蒙古社會科學』 24-1, 呼和浩特.
- 希都日古(2004), 「17世紀蒙古編年史產生的歷史背景」, 『清史研究』 2004-3, 北京.
- 希都日古(2005), 「17世紀蒙古史家筆下的成吉思汗諸弟及其後裔」, 『內蒙古大學學報』 37-2, 呼和浩特.
- 喜蕾(2000), 「北元昭宗愛猷識理達臘生年考辨」, 『內蒙古大學學報』 32-4, 呼和浩特.

- Badaraev B. D.(1968), “Notes on a List of the Various Editions of the Kanjur,” *Acta Orientalia Academiae Scientiarum Hungaricae (AOH)* 21-3, Budapest: Akadémiai Kiadó.
- Bira Š.(1977), Rashdonduk·Veit V. tr., “A Sixteenth Century Mongol

Code,” *Zentralasiatische Studien (ZAS)* 11, Wiesbaden: Otto Harrassowitz.
Bira Š.(1989), “Indo–Tibetan and Mongolian Historiographical Mutual
Contacts,” *AOH* 43–2·3, Budapest: Akadémiai Kiadó.

- Chiodo E.(1994), “History and Legend: The Nine Paladins of Činggis (Yisün örlüg) According to the ‘Great Prayer’(Yeke öčig),” *Ural-Altäische Jahrbücher (UJb)*, n.f, 13, Wiesbaden: Harrassowitz.

Chiodo E.(1997·1998), “A Mongolian Hymn to Qongsim Bodisung on Birch Bark from Xarbuxyn Balgas (Bulgan Ajmag),” *UJb*, n.f, 15, Wiesbaden: Harrassowitz.

Chiodo E.(1997·1998a), “The Black Standard (qara sülda) of Činggis Qayan in Baruun Xüree,” *UJb*, n.f, 15, Wiesbaden: Harrassowitz.

Chiodo E. · Sagaster K.(1995), “The Mongolian and Tibetan Manuscripts on Birch Bark from Xarbuxyn Balgas: A Preliminary Description,” *ZAS* 25, Wiesbaden: Otto Harrassowitz.

Chiodo E. · Sagaster K., 井上治 譯(1997), 「ハルボヒン・バルガス出土のモンゴル語・チベット語白樺樹皮寫本」, 『日本モンゴル學會紀要』 27(1996), 東京.

- Cleaves F. W.(1986), “A Mongolian Rescript of the Fifth Year of Dagedü Erdemtü (1640),”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HJAS)* 46–1, Camb./Mass.
- Damdinsüren Ts.(1979), “Two Mongolian Colophons of the Suvarṇaprabhāsottama Sūtra,” *AOH* 33–1, Budapest: Akadémiai Kiadó.
- de Rachewiltz I.(1983), “Qan, Qa’an and the Seal of Güyüg,” Sagaster K · Weiers M. herau., *Documenta Barbarorum*, Wiesbaden: Otto Harrassowitz.
- de Rachewiltz I.(1990), “Three Mongolian Chronicles,” *Mongolica, An International annual of Mongol studies* 1(22), UB: IAMS.

- Elverskog J.(2005), “Mongol time enters a Qing,” Struve L. A. ed., *Time, temporality, and imperial transition, East asia from Ming to Qing*, Honolulu: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 Univ. of Hawai‘i Press.
- Fletcher Jr, J.(1962–1963), “A Source of the Erdeni–yin Erike,” *HJAS* 24, Camb./Mass.
- Fletcher Jr, J.(1968), “China and Central Asia, 1368~1884,” Fairbank J. K. ed., *The Chinese World Order*, Camb./Mass.: Harvard Univ. Press.
- Fletcher Jr, J.(1970), “An Oyiroid Letter in the British Museum,” Ligeti L. ed., *Mongolian Studies*, Amsterdam: Grüner.
- Franke W.(1949), “Addenda and Corrigenda to D. Pokotilov, *History of Mongols during the Ming Dynasty from 1368 to 1634*,” *Studia Serica Monographs*, Series A, Nr. 3, Chengdu and Peiping.
- Gervers M · Schlepp W.(1997), “Felt and ‘Tent Carts’ in the Secret History of the Mongols,” *Journal of Royal Asiatic Society*, Series 3rd, vol.7, pt. 1, London.
- Honda Minobu[本田實信](1958), “On the Genealogy of the Early Northern Yüan,” *UJAb* 30–3·4, Wiesbaden: Harrassowitz. [『モンゴル時代史研究』, 東京大學出版會, 1991에 재수록]
- Hyong–Won Choi[최형원](2002), “Sprachliche Untersuchung zum mongolischen Laokida (Mong–eo No geoldae) aus dem 18. Jahrhundert,” *Central Asiatic Journal (CAJ)* 46–1, Wiesbaden: Harrassowitz.
- Kara G.(2000), “On Sino–Mongol Cultural Relations as Seen in the Mongolian Lexicon,” 中國邊政協會 編輯, 『蒙古民族與周邊民族關係學術會議論文集』, 臺北: 蒙藏委員會.
- Kiripolská M.(1999), “More Mongol Manuscripts in the University Library of Oslo,” *Acta Orientalia* 60, Kopenhagen: Munksgaard.
- Krueger J. R.(1966), “The Mongol bičig–ün qoriya,” Heissig W. ed.,

Collectanea Mongolica, Wisbaden: Otto Harrassowitz.

- Ligeti L.(1972), “Une Ancienne Interpolation dans *l’Altan Tobči*,” *AOH* 26-1, Budapest: Akadémiai Kiadó.
- Lörincz L.(1964), “Fragments d’une version Oïrate du Cadavre ensorcelé,” *AOH* 26-1, Budapest: Akadémiai Kiadó.
- Luvsanbaldan Ch.(1972), “Le Subhāsitaratnanidhi Oïrate de Zaya Paṅḍita,” *AOH* 26-2·3, Budapest: Akadémiai Kiadó.
- Miyawaki Junko(1984), “Political Organizations in the Seventeenth-Century North Asia,” *Journal of Asian and African Studies* 27, Tokyo: Tokyo Univ. of Foreign Languages.
- Miyawaki Junko(1993), “The Birth of the Hong-Tayiji Viceroyalty in the Mongol-Oyirad World,” Kellner-Heinkele B. ed., *Altaica Berolinensia: The Concept of Sovereignty in the Altaic World*, Wiesbaden: Harrassowitz Verlag.
- Oka Hiroki(1992), “Political Role of the Buddhist Church of Qalq-a Mongolia in the Mid-18th Century,” Bethlenfalvy G. et al. ed., *Altaic Religious Beliefs and Practices*, Budapest: Hungarian Academy of Sciences & Etövös Loránd Univ.
- Oka Hiroki(1998), “The Mongols and the Qing Dynasty,” Tadashi Y·Hiroki O. eds., *Facets of Transformation of the Northern Asian Countries*, The Center for Northeast Asian Studies·Tohoku Univ.
- Okada Hidehiro(1967), “An analysis of the lament of Toyon Temür,” *ZAS* 1, Wiesbaden: Otto Harrassowitz.
- Okada Hidehiro(1993), “The Khan as the Sun, the Jinong as the Moon,” Kellner-Heinkele B. ed., *Altaica Berolinensia: The Concept of Sovereignty in the Altaic World*, Wiesbaden: Harrassowitz Verlag.
- Parker E. H.(1913), “Mongolia after the Genghizides and before the

Manchus,” *Journal of the North Chin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44, Shanghai.

- Perdue P. C.(1998), “Boundaries, Maps, and Movement; Chinese, Russian, and Mongolian Empires in Early Modern Central Eurasia,” *The International History Review* 20-2.
- Poppe N.(1964), “The Mongolian versions of the Vessantarajātaka,” *Studia Orientalia* 30-2, Helsinki: Edidit Societas Orientalis Fennica.
- Pučkovskij L. S.(1963), “The Date of Composition of the Bolor Toli,” *AOH* 16-2, Budapest: Akadémiai Kiadó.
- Robinson D. M.(1999), “Politics, Force and Ethnicity in Ming China; Mongols and the Abortive Coup of 1461,” *HJAS* 59-1, Camb./Mass.
- Rosén S.(1989), “Korea in Mongolian Sources,” *Cahiers d’Études Coréennes* 5, Paris: Centre d’Études Coréennes, Collège de France.
- Sárközi Á.(1976), “A Mongolian Picture-Book of Molon Toyin’s Descent into Hell,” *AOH* 30-3, Budapest: Akadémiai Kiadó.
- Sárközi Á.(1980), “Some Words on the Mongolian Mahavyuttrati,” *AOH* 34-1·3, Budapest: Akadémiai Kiadó.
- Shagdarsüren Ts., 向井晋一 譯(2002), 「古典式モンゴル文語あるいはモンゴル經典言語の若干の特徴について」, 『日本モンゴル學會紀要』 32, 大阪: 日本モンゴル學會.
- Serruys H.(1963), “Early Lamaism in Mongolia,” *Oriens Extremus (OE)* 10-2, Hamburg: Otto Harrassowitz(Wiesbaden).
- Serruys H.(1972), “Oaths in the Qalqa Ĵirum,” *OE* 19-1·2, Hamburg: Otto Harrassowitz (Wiesbaden).
- Serruys H.(1974), “Hsiao-ssu; Seüse, A Chinese Loan Word in Mongol,” *AOH* 28-3, Budapest: Akadémiai Kiadó.
- Serruys H.(1976), “Ĵinong: Chün-Wang or Ch’in-Wang,” *AOH* 30-2,

Budapest: Akadémiai Kiadó,

Serruys H.(1977), “The Office of Tayisi in Mongolia in the Fifteenth Century,” *HJAS* 37-2, Camb./Mass.

- Skrynnikova T. D.(1992·1993), “Sülde: The Basic Idea of the Činggis-Khan Cult,” *AOH* 46-1, Budapest: Akadémiai Kiadó.
- Tolmacheva M.(2000), “The Early Russian Exploration and Mapping of the Chinese Frontier,” *Cahiers du Monde Russe* 41-1, Éditions de L'École des Hautes Études en Sciences Sociales.
- Uranchimeg U.(2013), “A Mongolian Source on the Manchu Manipulation of Mongolian Buddhism in the Seventeenth Century: The Biography of the Second Neichi Toyin,” *Inner Asia* 15-2, Mongolia & Inner Asia Studies Unit, Univ. of Cambridge.
- Балданжапов П. Б.(1962), “К изучению Монгольской летописи 『Эрдэнийн эрхэ』,” *Материалы по истории и филологии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8, Улан-Удэ: Изд. СО АН СССР.
- Бира Ш., 斯林格 翻譯(2001),「蒙古佛教歷史概要」,『蒙古學信息』 2001-1, 呼和浩特.
- Гольман М. И·Слесарчук Г. И.(1965), Русские архивные материалы о взаимоотношениях России и Монголии в 30-50-х годах XVII в., *Краткие сообщения Института Народов Азии* 76, Москва: Изд. Наука.
- Далай Ч.(1994), “Өгэдэй хаан ба Хархорум хот,” *Mongolica* 5, Ulaanbaatar: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Mongol Studies.
- Михайлов Г. И.(1962), “『Сокровенное сказание』 и 『Алтан товчи』,” *Материалы по истории и филологии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8, Улан-Удэ: Изд. СО АН СССР.

- Пучковский Л. С., 龔方震 譯(1956), 「13-17世紀蒙古封建時期的史學」, 『史學譯叢』 5, 北京: 科學出版社.
- Рерих Ю. Н.(1958), “Монголо-тибетские отношения в XIII-XIV вв.,” Санжеев Г. Д. отв. ред., *Филология и история монгольских народов*, Москва: Изд. Восточной литературы.
- Рерих Ю. Н.(1959), “Монголо-тибетские отношения в XVI и начале XVII в.,” Якимов А. Т. отв. ред, *Монгольский сборник: экономика, история, археология*, Москва: Изд. Восточной литературы.
- Шастина Н. П.(1958), “Письма Лувсан тайжи в Москву,” Санжеев Г. Д. отв. ред., *Филология и история монгольских народов*, Москва: Изд. Восточной литературы.
- Шастина Н. П.(1961), “Монгольская летопись XVII в.,” *Народы Азии и Африки* 4, Москва: Изд. АН СССР.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중양유라시아 유목민의 역사와 실크로드의 문화에 흥미를 가지게 된 것은 대학 2학년 때인 1986년, 고(故) 취아(醉鵝) 이용범(李龍範)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서였다. 잘 알아들을 수 없는 단어들이 무수히 나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신장 위구르 지역[西域]의 지명과 인명 등이었던 것 같다. 이후 군 복무를 마치고 복학하여 은사(恩師)이신 조영록(曹永祿) 선생님의 강의와 한문 강독 등에 흥미를 느끼고 막연히 동양사 공부에 대한 꿈을 갖게 되었다. 1992년에 대학원에 입학한 후 쿠빌라이 카안(Qubilai Qa'an)에 관한 논문으로 1995년에 석사학위를 받고, 주채혁(周采赫) 선생님의 추천으로 바로 그해 3월에 몽골 과학아카데미 역사연구소로 1년간 어학연수를 가서 몽골어와 몽골 문자 등을 공부했다. 그때 몽골어와 몽골 문자를 가르쳐 준 선생님이, 지금도 친하게 지

나는 게렐바드라흐(Ж. Гэрэлбадрах) 연구원(지금은 몽골국립교육대학교 사학과 교수)이었다. 한국에 돌아와 다시 박사과정을 수료한 후 연구와 강의 등으로 바쁘게 지내던 중, 1999년 국제교육진흥원이 지원하는 국비장학생 시험을 보게 되었다. 다행히 합격한 뒤 결혼을 하고, 2000년 초에 몽골에 가서 다시 박사과정을 밟고, 2005년에 몽골국립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당시에 몽골어 사료와 문헌을, 지금은 고인(故人)이 되신 몽골국립대 담바(Д. Дамба) 선생님께, 오랫동안 몽골에 살면서 공부하고 계시는 권성훈(權星勳) 선생과 함께 강독하면서 배웠다. 몽골어는 다시 게렐바드라흐 선생에게, 러시아어는 히식트(Н. Хишигт) 선생님, 티베트어는 부르네(Д. Бүрнээ) 선생님에게 배웠다. 지도교수이신 비라(Ш. Бира) 선생님은 귀중한 자료와 논문 등을 아낌없이 빌려주시면서 많은 지도를 해주셨다. 올해 88세이신 선생님의 만수무강을 기원한다. 이 밖에도 볼드비아타르(Ж. Болдбаатар), 오치르(А. Очир), 체벤도르지(Д. Цэвээндорж), 샷다르수렝(Ц. Шагдарсүрэн), 초이마(Ш. Чоймаа) 선생님께서도 많은 가르침을 주셨다. 그리고 권성훈, 에르덴치멕(Г. Эрдэнэчимэг), 노로브냘(Б. Норовням), 체렝도르지(Ц. Цэрэндорж) 등 몽골국립대 한국학과의 선생님들, 투르크학과의 바트툴가(Ц. Баттулга) 선생과 그의 형님인 몽골국립교육대 사학과의 강툴가(Ц. Гантулга) 선생님의 호의도 생각이 난다. 몽골과학아카데미 역사연구소 소장이셨던 고(故) 달라이(Ч. Далай) 선생님, 다시다와(Ч. Дашдаваа) 전 소장님, 그리고 현 소장인 출론(С. Чулуун) 교수와 연구원들, 고고학연구소의 고(故) 바야르(Д. Баяр) 선생님을 비롯한 많은 연구원들, 한편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난 장치브(Ё.

Жанчив), 메네스(Г. Мэнэс), 간볼드(Ж. Ганболд), 다시바드라흐(Д. Дашбадрах) 선생님들도 아주 좋은 동료이자 뛰어난 학자들이었다. 또한 정말 고마운 분들은 내 서재를 풍부하게 해준 몽골 불경과 헌책을 구해준, 뜨거운 여름이나 영하 40도의 추운 겨울 할 것 없이 오르트차강(Уртцагаан)과 셀베(Сэлбэ) 강가에서 헌책을 팔고 있는 착한 몽골 사람들이다.

2005년 귀국 후, 중앙아시아학회와 몽골학회, 알타이학회 등에서 같은 분야를 공부하는 선후배, 동료 연구자들에게도 많은 도움과 격려를 받았다. 특히 동북아역사재단은 몽골 역사교과서 번역과 관련 논문 발표, 강의, 통역 등 다양한 기회를 주어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며, 지금 독자 여러분이 읽고 있는 이 역주서 또한 동북아역사재단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한편으로, 동국대학교 사학과 선생님들과 대학원 선후배 동료들도 외로운 공부를 하는 필자에게 많은 격려와 도움을 주었다. 이제는 팔순이 넘으신 부모님,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아들 향모와 몽골에서 태어난 딸 다람이, 또한 누이들과 동생 내외도 역자가 공부하는 것에 대해 참고 이해해주었다. 주위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낀다. 지금도 다 읽지도 못할 책을 열심히 사 모으고 있지만, 특히 몽골에서는 책과 자료, 불경 등을 구입하느라 아내에게 생활비 걱정을 많이 시켰다. 돌이켜보니 더욱 미안한 마음이 든다.

마지막으로, 여섯째로 태어나 한 집안의 장손으로 많은 기대와 사랑을 받았지만, 아직도 제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불초 손주는, 몽골

유학 중이던 2004년 초에 망백(望百)을 하시고 돌아가신 할머니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 극락왕생(極樂往生)을 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찾아보기

ㄱ

- 가로도 134
- 가슴걸이 48
- 각두전 111
- 갈겨니 46
- 갈대 62, 64
- 갈대로 엮은 광주리 53
- 갈자고 59
- 갈지게 54, 68, 80
- 감로주 71
- 감옥 74
- 강 93
- 강가 강 34
- 개구리매 62
- 개구리매 새 63
- [개똥]지빠귀 67
- 개띠 해 71, 93, 96, 121, 149
- 거세마 53, 139
- 검둥개 47
- 검은 까마귀 54
- 검은 낙타 44
- 검은 담비 104
- 검은 대머리 독수리 72, 73
- 검은 뱀띠 해 52
- 검은 수컷 낙타 82
- 검은 장성 94
- 계겐 센친 87
- 계겐 알탄 카안 150, 152
- 계겐 카안 84
- 계레센제 134
- 게르 141
- 게르게 카안 32
- 겐텐 107
- 겔레케이 145
- 고니 38, 40, 62, 64
- 고두리살 46
- 고라말 49, 74
- 고를라드 100, 108, 109, 120, 130, 136, 137, 142
- 고를라드 바바카이 장군 140
- 고북구(古北口) 88
- 고야 마탈 35
- 고일린치 114
- 고일린치 바이토르 100
- 곰슬머리의 사내 73
- 공골말 50
- 공납 52
- 관의 술 88
- 구등 135
- 구르벨진 고야 69, 74
- 구르벨진 고야 카톤 75, 76
- 구리 쿨룩 갈 볼로르 산달리토 카안 35
- 구세이 카톤 134
- 구시 카안 32
- 군 소빈 모린 산달리토 카안 35
- 궁지 126, 127
- 금강 53
- 금강저(金剛箸) 120
- 기다란 노란 각궁 57
- 기러기 38, 40
- 길루게데이 바이토르 77, 80
- 길치르 투쿰 139
- 까치 73
- 꽃사슴 112

L

나가초 111~113
 나란 카안 59
 나마익 쿠케이 32
 나소나 테굴데르 예케 네레투 33
 나소나 테굴데르 일라곡치 33
 나이만 차간 게르[八白室] 116, 146, 147
 나찰 74
 나코 바얀 50
 나코이 울코 70
 난추니 53, 59
 네구레케이 135
 네메쿠 초양 126, 139
 네쿤 타이시 42
 네팔 34
 노복 72
 노복 메친 72
 노새 58
 노약타이 136
 높은 마차 44
 느릅나무 45

C

다가타르 타이보 120
 다라이손 구텡 카안 149
 다르카드 57
 다르칸 98, 151
 다리타이 오초곤[울치긴] 42
 다섯 색깔 네 이방[五色四夷] 150, 152
 다얀 카안 127~129, 131, 133~146, 152
 다얀 키아 151
 다이도[大都] 84~86, 89~93

다이도(특허권) 95, 119
 다이밍[大明] 황제 150
 달라드 135
 달라드타이 142
 달라이 람 151~153
 달라이 소빈 알탄 산달리토 카안 35
 달란 테리곤 142
 달리 109
 닭띠 해 119, 120
 담비 외투 113
 담황색 말 113
 대나무 53
 대명(大明) 95, 96, 117, 118
 대명(大明) 황제 117
 대 바이갈 59
 데게두네 129
 테굴레이 148
 [테털]사위 44
 레이 세첸 43~45
 델 40, 65, 128
 멜리군 볼도가 81
 델벡 카안 99
 도골롱 궁지 141, 142
 도르동 69
 도보 메르겐 36, 37
 도와 소코르 36, 37
 도코 바이토르 87
 동코르 43
 돼지띠 해 71, 83~85, 122, 134
 두구렝 테무르 쿹 타이시 97
 두르벤 투멘(4萬) 103
 두 살배기 송아지 53
 두이렝 산 36
 두치긴 136
 둘루게젠 138, 147

등차 49
디와다드 33

ㄹ

라간 86, 89
라복 시계친 136
라시안 이태계투 카안 33
라코 바얀 51
라콜리 33
레구시 145
레구시 아칼로코 140, 142
로본 차오르차 150
로브시 105
료오반 76
룽친 황제[隆慶帝] 95
린넨[릭넨] 코톡토 카안 153

ㄻ

마가다국 34
마고 밍간 143
마고 운두르 122
마고치라이 136
마콜리카이 옹 120~123
마르가스 115
마르구르크스 카안 119, 120
마른 소퐁 115
마부 72
마시 우세스쿨렙투 32
마유주 50
마이다르 코톡토 늑은 카안 153
마카 사마디 31
마카 사마디 카안 31
마카 토단 41

마포 59
마하 사마디 카안 32, 34
막사 123
만도골리 122
만도골리 카안 122, 125, 126
만도카이 122
[만도카이 사인] 카톤 133, 134
만도카이 카톤 122, 131, 134
만조시리 코톡토 151, 153
말피 해 83, 84, 96, 99, 104
말안장 48
말 짓 49
망갈람 153
망고스 메르겐 타이지 153
망단 128
메병 초원 135
메르겐 카라 지농 142
메르키드 42
메친 72
멘두 우를룩 109
멘두이 다르간 147, 148
멘두이 옹 149
멘드 우를룩 130
멧담 38
멩겐 이라고 131
멩갈릭 45
면역권 57
명궁 64
모나 산 71, 80
모린오 엽치군 85
모올라 136
모올란 카안 120~123
모올란 타이지 120
모칼리 63, 65, 66, 77, 81
모코르 세구세 119

물로 자카토 119
 물로차이 147, 149
 물로차이 바이토르 147
 몽골 94, 100, 116
 몽골 씨족 35
 몽골인 99
 몽골 자르고치 121, 123
 몽골족 35
 몽골진 116, 135, 136, 138, 140~142
 문지방 40, 130
 몽군 쿠르두투 카안 32
 몽골데이 카톤 121
 몽골룬 고아 69
 몽케 116, 120~122
 몽케 벨구 136
 몽케 카안 83, 150
 몽켈레이 타이시 109
 미란 134
 밍가토 137
 밍간의 카라 105

ㅂ

바가리다이 41
 바가린 135
 바가바가이 장군 141
 바가소카이 136, 143
 바가손 타보낭 143~145
 바가토드 103
 바구니 129
 바라고드 134
 바랑고드 148
 바르고오다이 72
 바르고진 고아 36
 바르담 바이토르 41

바르동 143
 바르소 블라드 134
 바르소 블라드 지농 142, 146, 150
 바림 시기레투 갑치 쿨룩 41
 바바카이 우를룩 136
 바보다이 137
 바이토르 147
 바이토르 구리순 141
 바이토르 시구시테이 122
 바이카이 바이토르 144
 바안다이 아갈라코 124
 바안 몽케 볼코 지농 125, 128
 바안 부케 134
 바안 사르타고르 69
 바안 우르메기르 121, 143
 바안 특토 140
 마이리 148
 바이송코르 독신 41
 바이톨라 105
 마카이 127
 바타이 차간 35
 바토몽케 다얀 카안 133
 바토 블라드 부케 134
 박바[비]이 127
 박볼로드 109
 박비이 126
 박시 143
 발라모 칭상 99, 101
 발락친 127, 134, 142
 방고드 41
 백세 태후 135
 뱀띠 해 85, 99, 149
 뱃대끈 48
 베게르센 126, 127, 138, 139
 베게르센 타이시 122, 126, 127, 138,

139
 베구네테이 37
 베국테이 41
 베르치 아칼로코 136
 베리 부케 56
 베수드 41, 135, 136
 벡테르 37, 41, 46, 47, 123
 벨게테이 50, 77, 123
 벨구테이 46, 47, 56~58
 보고롤 147
 보고르치 50, 51, 60, 65~67, 77, 81
 보곤 형제 118
 보돈초르 37~41
 보돈초르 막내 38
 보돈초르 복다 캅치 쿨룩 41
 보동 74
 보디 알락 146
 보디 알락 카안 147, 149
 보라카이 137
 보로 노카인 조 100
 보로[아르가순] 코르치 61
 보로초 35
 보록친 고아 36
 보롤다이 콜라비 36
 보르도 129
 보르복 121, 127, 136, 143
 보르복 부 142
 보르지긴 41, 43, 50, 143
 보르카이 143, 144, 148
 보르카이 옹 143
 보르카토 칸 산 81
 보르칸 박시 33
 보르칸 칼돈 36, 83
 보리야드 59
 보병 71

보보스 135
 보살 31
 보새(寶蟹) 85
 보얀 세첸 카안 152
 보얀토 카안 31, 84
 보카 60, 86, 87
 보카 차간 60
 [보카 차간] 카안 60
 보카 테무르 칭상 92
 보코치 살치 37, 41
 보코 카타기 37, 39
 보통 93
 블라이 148
 블로나이 옹 147
 블로드 133
 블로이 타이시 124
 블로타이 127
 블리나이 115
 볼볼론 59
 볼코 지농 125~127
 봉황 75
 부룬[부르테] 치노아 35
 부르테 43
 부르테겔진 63
 부르테겔진 카톤 63, 64
 부르테 치노아 35
 부르투겔진 77
 부르투겔진 카톤 78, 79, 81
 부리 부케 57
 부싯돌 129
 부지르기데이 메르겐 36
 부처 150
 부처님 34, 51, 70, 92
 부케 보곤 118
 불알 124

붉은 돼지띠 해(丙[丁]亥年) 79
 붉은 토끼띠 해(丁卯年) 89
 붉은 호랑이띠 [해] 52
 붉은 호수 117
 비기지 97~99, 114, 123, 124
 비테린 코시곤 147
 비장비대증 128
 비키 우게데이 136
 빌릭투 88
 빌릭투 카안 96
 뼈 화살촉 46

人

사가차간토 147
 사냥매 53
 사돈 43
 사라고드 136
 사르바 34
 사르키가스 149
 사르타골 70, 108, 124
 사르타골 국 69
 사만다이 카톤 120
 사모르 타이코 134
 40만 몽골 87, 90
 사이 52
 사이도(카이도) 41
 사이드 136
 사이마가 143
 사인 둘루게켄 138, 139
 사인 만도카이 카톤 129, 145
 사인 사이한 134
 사인 우세스쿨렝투 32
 사인 우쩍치 카안 32
 사인 체키체 바야토르 144

사인 카톤 129~131, 134
 사인 코고다이 148
 사인 코쇼이 밤바카이 시구시 142
 사인 탐가토 148
 사인 투룰투 카안 32
 사일라모친 103, 104
 사자 75
 사타이 도골랑 130, 131
 사탁친 세첸 105~107
 사톨라 105
 사향 76
 산 73
 산[六盤山] 76
 산마늘 46
 산부추 45, 46
 살리 칼차고 36
 살치고드 41
 삼만호 140
 삼보 산 34
 삼시기[셈시케] 83
 상석 40
 상징 43
 상올다리 115
 셋별 75
 샤가다 148
 샤구니 카안 32
 산다 황제[宣德帝] 95
 상도[上鄱] 84, 85, 89, 91
 서라말 38, 39, 47, 50, 51
 세구세 143
 세구세 밉가토 136
 세구세 아칼라코 145
 세르게메이 137
 세첸 92
 세첸 카안 59, 84, 91, 92

세첸 [코빌라이] 카안 150
 셈 소치 36
 생게 테무르 두구렝 카안 152
 소드눔 잠즈 151, 152
 소피 해 83
 소르각타니 베키 133
 소르손 118
 소치긴 에케 123
 소토 세첸 카안 84
 술개 113
 술롱가 60, 61
 술롱고드 59, 60, 62, 63, 115, 148
 술탄 카안 70
 슝 59
 송골매 53
 쇠가래 100
 쇠사슬 차꼬 48, 49
 송코르 142
 수낙타 47
 수니드 80
 수리부엉이 67
 수메르 타이지 152
 수베에데이 바야토르 52, 54, 55, 74
 수이 왕 150
 수컷 노루 106
 스라소니 104
 시계무니 33
 시구시테이 100, 147
 시구시테이 노얀 114
 시구시테이 바야토르 100, 114
 시구시테이 바야토르 옹 100
 시구시테이 옹 114
 시기르 호수 84
 시도로고 카안 68, 69, 71, 73~76
 시라 무렌(黃河) 137

시라 바톨라드 136
 시라이고르 나라 150
 시바고치 35
 시키르 125
 시키르 타이코 127, 137
 실라마친 103, 104
 11만의 몽골인 87

○

아가 테무르 136
 아난다 33
 아낭기 151
 아다이 카안 99, 101, 102, 104, 150
 아룩타이 타이시 101~103
 아르가손 68
 아르기손 코르치 61, 62, 65~67
 아르사코 보이마 옹 149
 아르소 블라드 134
 아르슬란 오고치토 카안 32
 아틀라드 136
 아리곤 이테게투 카안 33
 아릭 쟁기르체스가바 150
 아릭 오손 37
 아바보르기 124
 아바보르기 다이동 105, 124
 아바카이 140
 아브기르친 지눔 104, 106, 107, 150
 아산 사미 117
 아소드 119, 134
 아이락 39, 57, 127
 아이톨가 아르바이 산달리토 카안 35
 아인 테무르 133
 아카초고드 149
 아칼라코 레구시 145

아홉 깃대에 올린 흰 독 52, 70, 71
 악바르친 지농 122
 악블로드 109
 안궁(鞍弓) 100
 안다(의형제) 100
 알라이둥 129
 알락 137
 알락초고드 106, 130, 131, 142
 알락치 142
 알락 테무르 105, 118
 알락 테무르 칭상 118
 알란 어머니 46
 알로리 147
 알로오리 바야토르 148
 알롱 고아 37
 알 보고라 134
 알초고다이 147
 알초 볼라드 134
 알초오다이 149
 알타가나 109
 알타이 카툰 108
 알타이 칸 산 83, 108
 알타진 143, 148
 알탄 59
 알탄 고르골다이 59
 알탄 오록 152
 알탄 카안 68, 150, 151
 알탄 쿠르두투 카안 32
 알테무르 칭상 85
 암단 138
 암도 나라 150
 암사슴 38
 압도라 세첸 105, 107, 118
 야보가 69
 야생 노새 64, 68
 야생 황양 106
 양띠 해 83, 84, 96, 99, 122, 149
 양지꽃 45
 양털 49
 에르치스 64
 에르케구드 134, 135, 145
 에르킨 돌로간 쿠문 산달리토 [카안] 35
 에부제이 바야토르 147
 에세부리 147
 에센 113, 118
 에센 우룰록 장군 142
 에센 [타이시] 116, 118
 에센 타이시 105, 110, 111, 113, 114,
 116~118, 123, 124
 에센테이 136
 에센 투겔 차간 아만 136
 에셀레이 타이보 124
 에시 카툰 133
 엘둥게 142
 엘리에 나가초 124, 125
 엘리에[솔개] 113
 엘벡 [니굴섹치] 카안 96
 엘벡 니굴투 카안 97
 엘벡 카안 97, 99, 150
 앙계구드 122
 앙구드 58
 여우성[狐城] 88
 여우의 꼬리 88
 여진 95
 여진인 94
 열두 명의 나쁜 칸 51
 열반 34, 51
 영기 81
 열은 노란색 사슴 73
 예견 51

예언자 71
 예케 구시 카안 32
 예케 니둔 36
 예케 우택 83
 예케 카바르토 125
 예케 카바르토 용켄 122
 예케켄 아가 150
 오가잠 보고롤 35
 오노이 아가 102
 오논 강 38, 39, 46, 47, 52, 81, 122, 147
 오다가치 사비 140
 오다이 에메켄 124
 오란 첩쿠이 58, 59
 오로고드 134, 144
 오로 시구시 59
 오르고드 125
 오르다고카이 143, 145, 146, 148
 오르다고카이 노얀 143
 오르다고카이 웡(왕) 144, 146
 오르도스 107, 120, 140, 142, 145, 146
 오르친 109, 122
 오리 40, 64
 오리양칸 140, 143, 144
 오바산자 134
 오색 52
 오색 사이 57
 오스칼 카안 96
 오양고 바아토르 148
 오오칸 105
 오움 소와스티 시드담 31
 오이고드 86, 127, 136, 142
 오이고드[위구르] 138, 140
 오이라드 97, 99~101, 103~108, 110~116, 118, 122~124, 129, 134, 143, 145, 150
 오이라드 고일린치 바아토르 100
 오이라드 삼림민 124
 오이풀 45
 오진 45
 오초고 43, 78
 오치르바니 151
 오치르 블라드 134
 오카가토 카안 86, 88, 89, 91~94
 오톡 128
 옥궁 66
 온치긴 42, 56, 123
 울고인 케리게 123
 울도 143
 올라 강 59
 올라나 에르구굴렉센 카안 31
 울로가이 메르겐 114
 울로스바이코 140
 울로스 블라드 134, 146
 울로이 테무르 카안 99
 울롭 143
 울빼미 72, 73
 울코노드 42, 43
 울코이 강 59
 울코이 메르겐 100
 움 마니 바드 메 흠, 크리 153
 웡고로코이 140, 141
 웡고르코쿠이 140
 웡니고드 99, 120, 143
 완리 황제[萬曆帝] 96
 왕촌 카안 59, 60
 윈동 잡츠 152
 윈동 잡츠 달라이 람 152
 옹피 해 85, 96, 153

- 용로[永樂] 95
 용로 카안[永樂帝] 94
 용로 황제 95
 우게데이 77~79
 우게데이 바야토르 124
 우게데이 카안 83
 우게데이 타이보 124
 우게치 카스카 99, 104
 우겔레드 103
 우겔렌 에케 42, 43, 56, 123
 우겔룬 어머니 46
 우겔룬 [에케] 51
 우겔룬 에케 46, 47, 50
 우구데이 카안 150
 우구르케네 강 148
 우구르겐 147
 우구우테이 바야토르 148
 우네겐 강 60
 우네발라드 123
 우네발라드 웅 115, 122, 129, 132, 133
 우누구치 139
 우룰록 노얀 72
 우르메기르 121
 우르멩투 83
 우부이 코지기르 114
 우익 140
 우익 만호 142, 144
 우제스쿨렝 게렐투 카안 31
 우제스쿨렝투 32
 우제스쿨렝투 난디 33
 우쨌친 142
 우지예드 95, 119
 우테구 콜란 83
 울루 투리독치 33
 울제이 140
 울제이투 고와 97
 울제이투 카안 84
 움막 38
 응쿠이 고개 78
 원숭이띠 해 84~86, 109
 유수이 카톤 71
 용단 56
 용로 황제 119
 용시예부 107, 117~119, 127, 128, 145
 용진(纒氈) 110
 용켄 125
 은백색 말 141
 은쟁반 113, 139
 응창 96
 이낙 차간 106
 이르체말 카안 85
 이르티시 64
 이바고 86, 89
 이바라이 140
 이바라이 타이시 140, 142, 146
 이브라이 143, 145
 이브라이 타이시 144
 이수케이 42~45
 이수케이 바야토르 42, 44, 70, 123
 이순 테무르 카안 85
 이스말 136, 137
 이스말리[이스마일] 타이시 127
 이스말리 타이시 127
 이스말 타이시 137
 이시다그링 세렌구르 150
 인도 31, 34, 90
 일곱 언덕 42, 123
 일라조 바얀 115

일리 109
일지견 우물록 장군 142
입이 작은 큰 통 111
잉창부(應昌府) 93

ㅈ

자그라와르티 32
자녹산 145
자다고드 41
자딩 황제[嘉靖帝] 95
자삭토 카안 152
자삭투 투멘 카안 151
자야가토 카안 85
자작나무 123
자코야 카안 94
자코야 황제 94
자코이 코라가치 139
작은 물고기 45
작은 언덕 76
잔쟁이 46
잘라만 투루 150
잘라이르 63
잘라카이 카톤 60
잠도 지룽 코복토 151
장기나니 세첸 노미다이 69
장기 테무르 139
장기 테무르 아칼라코 138, 139
장성(長城) 88
장킨 타이보 98
재두루미 38, 40
젯빛 이리 47
젯빛 푸른 늑대 73
자야가토 카안 85
전륜성왕 52

절따말 59, 61
점박이말 50
점쟁이 143
정자 53
제비 59, 60
제스 쿠르두투 32
조돌롱 운두르 149
조류색 종마 81
조릭토 카안 96
조 석가모니 부처님 151
조소타이 122
조요 86
존자 31
종가바 153
종달새 46, 49
종마 74, 125, 149
종기바 152
주 96
주게 86, 87
주택센 148
주테데이 41
주르치드[女直] 59, 86, 116, 117
주술 88
주 룡우(朱洪武) 93
준마 76
중국[키타드] 135
중궁 60
지농 107, 108, 110, 127
지다 칠라곤 148
지달 127
지도자[형] 40
[지칸] 아가 131
지칸 아가 130
징데 황제[正德帝] 95
징타이 황제(景泰帝[正統帝]) 95, 117~

징통 황제[正統帝] 95

ㄸ

차가나 투멘 에세쿠이 99

차가장[진] 비기지 135

차가장 카툰 135

차간 106, 128

[차간] 게르 141

차간 게르 140, 141

차간 게르테이 134

차간 마고치라이 135

차간 이데게투 카안 33

차간 자카린 142

차카르 124, 137, 138, 146

차카르 만호 131

차키르 109

척후 73

척후병 117

청회색 말 73, 74

체첵투 호수 85

체키체 143, 145

체키체 바이토르 144

척치르 43

첵텐 108, 109, 120, 122, 147

초루스보이 테무르 칭상 122

초르고 강 43

초병 135

총카파 152, 153

추분 바이토르 밍가토 136

칠라곤 48, 49

칠레두 42

침바이 48, 49

칭 134

[칭기스] 카안 150

칭기스 카안 51, 52, 78, 91~93

칭장부 83

칭코아 황제[成化帝] 95

칭 타이지 59

ㅋ

카고치드 136, 137

카다보카 120~122

카다칸 49

카도 시리 59

카라 강 148

카라고나 산 108

카라고나 칸 산 82

카라 바다이 128

카라창 86, 87

카라촉 36

카라친 124, 145

카라카니 109

카라투루 136

카라친 [타이보진] 115

카라친 타이보진 115, 148

카르고촉 112, 113

카르고촉 두구렝 97

카르고촉 타이지 106, 107, 111~113,
123, 124

카볼 카안 41

카사르 43, 46, 47, 52, 55~59, 72,
74, 75, 77, 87, 88, 123, 130, 149

카사르 군주 54~56

카사르 숙부 131, 132

카스카란다 122

카안 32, 92

카초고 43, 56

카초곤 123
 카초코 57
 카치고 78
 카치르[독수리] 테르비드 114
 카치 쿨룩 41, 87
 카타기 41
 카타긴 41
 카탄 테무르 105, 118
 카톤 63, 74
 카톤 구르벨진 82
 카톤 부르투겔진 82
 카톤의 강 76
 칼리고친 140
 칼차가이 108
 칼카 144
 갑치 쿨룩 41
 캉카이 카안 73
 캉카이 칸[산] 78
 케레이드 143, 148
 케를렌 83, 135
 케를렌 [강] 108
 케를룬 강 81
 케리에 128
 케식텐 129, 136
 케이봉[開平府] 89, 91
 케이봉 상도 90
 케테이 105
 켄테이 칸 산 83
 켈루렌 83
 캬추구드 136
 캬치구드 120
 코니 캬타가이 136
 코닝치 황제[弘治帝] 95
 코도고도 112
 코르모스타 탱리 70, 71

코르치 62, 68
 코르친 57, 129, 143~148
 코리 바야스코 136
 코리찰 메르겐 35
 코리 투메드 36
 코릴다이 메르겐 36, 37
 코빌간 59
 코빌라이 79
 [코빌라이] 세첸 카안 152
 코빌라이 세첸 카안 93
 코살라 왕 34
 코쇼이 타보낭[駙馬] 141, 145
 코오카이 타요 97, 98
 코이드 103
 코콜라이 148
 코톡토 151
 코톡토 테레수테이 127
 코톡토 시구시 134
 코톡토 카안 85
 코톡토 칸 산 82
 코톡토 시구시 125
 콜라리 137
 콜라바드 124
 콜라카니 109
 콜란 60
 콜란 카라가 106
 콜란 카톤 60, 64, 70, 72, 82
 콜로그르 133
 콜로손 112
 콤치르 몰라타이 120
 콩기라드 43, 45, 93, 124
 콩기라드 카톤 94
 콩두[공우, 洪武] 94
 콩두 황제 94, 96
 콩 비기지 97, 98

공시 황제[洪熙帝] 95
 공심 보디승 151
 콩코탄 73
 콩콜리 125, 126, 146
 쿠데에 아랄 81, 83, 85
 쿠리엔 147
 쿠멜리 142
 쿠벨렉 71
 쿠세발라드 74
 쿠주군 산달리토 카안 35
 쿠축 108
 쿠케 코타[歸化城] 94, 135
 쿠쿠이 칸[산] 68
 쿠쿨데이 148
 쿠쿨데이 바야토르 148
 쿨룩 보고르치 50
 쿨룩 카안 83, 84, 150
 쿨쿠이 자바칸 123
 큰 사냥 73
 키식텐 98
 키야 자르보 시바곤 산달리토 카안 35
 키요드 43, 50
 키타드[중국, 明] 69, 139, 150, 151
 키타드 국 68

E

타라친 108, 136
 타르곤 카라 136
 타르바간 50, 123, 133
 타만찬 35
 타본 143, 144
 타본 오탁 144
 타스 129
 타요 97~99, 101

타이손 황제[泰昌帝] 96
 타이승 카안 104, 106~109, 120, 122,
 147, 150, 152
 타이시 107, 118
 타이지 98
 타이초고드 47~50, 56, 57, 69
 타이코[太后] 98
 타일라다르 146
 타타갈진 143, 148
 타타르 43, 44, 124, 136
 탈비 타보낭 119
 탈빅치 카안 32
 탈빈 바릭치 카안 32
 탐가(옥새) 152
 탐가토 148
 탐자드 첸바 151
 탕고드 68, 69, 71, 74, 76, 82, 83,
 150
 탕나가스 128, 129, 133
 탕속 이테게투 카안 33
 털복숭이 개 47
 테구스 사인 33
 테구스 우제스쿨렐투 카안 32
 테드쿤 아사락치 코톡토 카안 31
 테무르 107
 테무르 뭉케 128
 테무르 울코 76
 테무르 카닥 128, 129
 테무르켄 145
 테무르 콩 타이지 97
 테무르 쿠르두투 카안 32
 테무르 타이시 142
 테무진 43~49, 51, 123
 테무진 코리-보카 43
 탕기스 바다 35

땡켈릭 강 36
 토간 135, 136
 토고간 카안 99
 토고간 테무르 카안[元順帝] 96, 151
 토고치 시구시 136, 137
 토곤 102
 토곤 쿠메치 105
 토곤 타이시 101~104, 116
 토곤[타이시] 101
 토그목 112, 113
 토끼띠 해 99, 152
 토르간 시라 49
 토몰코 바야토르 87
 토보코 142
 토복 두치엔 142
 토인 33
 토키 바야토르 124
 툽타가 86, 87
 툽타가 칭상 87
 툽타코 57
 툽토바이코 142
 툽통가 바야토르 59
 툽비나이 세첸 41
 툽로이 77~79
 툽 93
 투루 볼라드 134, 146
 투르겐 강 135, 136
 투르메게이 성 76
 투메드 122, 138, 139, 142, 144, 146
 툴레게리 128
 툴레게테이 143
 툽신 138
 특무 사신 126
 티베트 31, 34, 35, 90, 150
 턴치 황제[天啓帝] 96

ㅍ

팔각(八角) 백답 89
 팔백실(八白室) 82
 펠트 문 130
 편마 74
 평민 41
 푸른 영원한 하늘 80
 푸른 종달새 76
 풍석 105

ㅎ

하늘의 아들 69
 하얀 송골매 43
 하영지 89
 해성 75
 호금 65~68, 82
 호랑이띠 해 99, 128, 143
 호성(虎城) 88
 호피 60
 혼수 60
 화신 58
 활시위 모양 143
 황금 가문 32, 34, 92, 93, 152
 황금 가문의 역사 153
 황금 고삐 63
 황금 보좌 90
 황금 옥새 43
 황금 인장 92
 황금 허리띠 128
 황금 화살 58
 황소 뿔 143
 황소 뿔 진형 144
 회맹 110

회색 매 39
흰색 게르 82

흰 토끼 4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
역사재단
번역총서
35

동북아역사재단

역주 몽골 황금사

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초판 1쇄 인쇄 2014년 11월 5일

초판 1쇄 발행 2014년 11월 12일

지 음 저자 미상

역 주 김장구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 록 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 소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임광빌딩

전 화 02-2012-6065

팩 스 02-2012-6189

e-mail book@nahf.or.kr

© 동북아역사재단, 2014

ISBN 978-89-6187-351-2 93910

* 책값은 뒤표지에 있습니다.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지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IP제어번호 : CIP2014031149)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